



7

199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7호

(루게 537)



◆◆◆◆◆◆◆◆◆◆

차 례

◆◆◆◆◆◆◆◆◆◆

충효의 세계	4
영생의 품.....	5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 (외 1 편).....	15
시에 대한 생각	16
향도의 빛발	17
노을아 내 마음아.....	17
원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이라 하시며.....	18
빛나는 나날	20
전승의 년대기우에 빛나는 땅 (외 2 편).....	21
맑은 샘	21
출전의 시각을 앞에 두고.....	22
참된 삶의 길로	22
명제해설	23
병사휴양소.....	24
전승의 그날처럼 덩굴고싶소	25
더 높이 들자 혁명의 군기.....	25
보금자리	26
영웅이 되리	37

조국이여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38
룡마바위, 장검바위	45
당원의 량심	48
누리에 올려퍼지는 최고사령관 찬가	49
인간사랑의 대답	53
내가 가는 길 (외 1 편).....	54
아버지	54
푸른계절	55
사랑의 권리	65
보리밭 내 고향	68
상봉	69
통일조국 만만세	80

충효의 세계

안윤식

정원수 우듬지에서
호르륵... 날아오르는 봄새무리
어느덧 광명성탄 50주인가
아버이수령님
뜨거우신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추억-

감회도 깊으시여라
한줄기 그윽한 꽃향기도
강가에 흘러들도록 마음을 쓰고
내가 잡아볼 란간도
찬감이 들세라 온기를 감아주었지

감회도 새로우시여라
바다길에 오르려면
창파를 가르느 배머리에 먼저 서보고
하늘길에 오르려면
시험비행을 자신이 해보고야 마음 놓았지

세상 만물이 기쁨되라고
만수무강의 보약이 되라고
나라를 가꾸고 인민을 키우며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전설같은 그 충효...

건설도 잘되고
우리 군대도 더 강해지고
인민들은 경모하며 받들고...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수령님 밝은 미소를 지으시여라

인류백만년 갈피갈피를
다 뒤져 다 합쳐도 닿을수 없는
김정일동지의 충효의 세계
그 세계에로 인민을 이끌고
만민이 그 세계를 칭송하나니

백두산마루에 장엄히 솟은
정일봉이 영원하듯이
따르며 받드는 마음 한결같이
주체위업은 만대에 무궁하리라
수령님의 뜨거우신 마음!

아, 소백수 맑은 물처럼
줄기차게 이어지는 주체의 혈통이
너무도 마음에 드시여
수령님께서 손수 붓을 달리시여라
장엄한 시의 세계를 펼치시여라!

영생의 품

리상룡

1

자그마한 키에 까만 코고무신을 신고 흰 무명 치마저고리를 입은 마흔댓살 나보이는 녀인이 비척거리며 고개길을 오르고있었다. 손에는 팡목수건을 들었다. 줌전까지 머리에 썼던 수건이다. 팡목수건을 낀 손이 자꾸만 눈언저리며 턱끝이며 두볼로 흐르는 땀방울을 훔친다.

전선으로 나간 아들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렬차에서 술한 제대군인들과 휴가군인들이 내리였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영식의 모습은 그들속에 없었다.

(내리겠지, 이제 내리겠지.)

하지만 기차는… 야속하게도 기차는 문을 철컹 철컹 닫고는 알싸한 석탄냄새와 연기같은 증기몽테기를 확 내뿜고 떠나가버렸다.

(내가 공연히… 돌아오지 못할줄 알면서도…)

뽕양게 흐려지는 오정녀의 눈앞에서 네모난 하얀 종이장이 얼른거리였다. 열흘전에 조발김을 매다가 발머리에서 받아온 종이장이었다.

《사망통지서》!

순간 오정녀는 온 천지가 새까맣게 흐려지는것 같았다.

처음에는 까무라쳤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는 가슴을 두드리며 목놓아 울었다.

영식이는 오정녀의 외아들이었다. 소작살이를 하던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는것을 보지도 못한채 지주놈에게 매맞은 어혈로 저세상사람이 되어버렸다.

오정녀는 모든 희망을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 하나에 걸고 스물다섯해를 살아왔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바람세찬 낯선 길을 걸으면서 빌어먹기도 했고 손이 빨강게 얼도록 샅빨래를 하기도 하였다. 부엌데기, 쓰레기주이… 무슨 일인들 안해보았으랴. 그래도 살아갈길이 없어 열세살밖에 잡히지 않은 영식이를 험한 로동판으로 입살이를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라가 해방되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것이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4년만에 고향땅에서 아들을 만난 날 오정녀는 그를 꼭 품에안고 이 말부터 하였다.

《이제야 무엇때문에 헤어지겠어요.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영원히 없을것 같던 리별이 별안간 그들을 찾아왔다. 전쟁… 전쟁이 아들을 전선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그 작별을 영원한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울고있는 오정녀를 마을사람들이 위로했다. 그들은 오정녀의 가슴에서 슬픔을 한덩이 한덩이 나누어가지고 갔다. 하지만 퍼내도 퍼내도 줄어 들지 않는 우물의 물처럼 오정녀의 가슴에서는 슬픔이 덜어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났다. 전선으로 나갔던 마을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잡채워놓았던 아픔이 슬픔을 떠밀어올리며 가슴을 허비였다. 오정녀는 전선에서 돌아오는 마을청년들을 웃는 얼굴로 마중해주고는 혼자 빈집으로 들어와 울고 또 울었다.

그러던 어느날 사망했다던 옷마을청년이 돌아왔다. 오정녀의 아픈 가슴에 새로운 기대가 불꽃마냥 피어올랐다.

(우리 영식이기도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날부터 오정녀는 역으로 나갔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나…

오정녀는 마을이 손바닥처럼 뻗히 굽어보이는 고개마루로 올라왔다. 마당가에 배나무 한그루 서있는 자기 집에 시선이 닿자 그는 굳어진듯 서 버렸다.

(이제는 저 집에서 영영 혼자 살아야 하는가?)

오정녀는 커다란 느티나무밑에 풀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락수물처럼 두볼로 줄줄 흘러내리었다.

까만 승용차들이 령길로 오르고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느티나무에 기대어 울기만 했다. 선두차가 발동소리를 울리며 느티나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야 오정녀는 깜짝 놀라며 얼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선두차는 오정녀의 앞을 조금 지나 스르르 멎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멎었다. 바로 오정녀의 앞이었다.

오정녀는 황황히 일어서서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무엇인가 잘못 처신한듯한 두려움으로 하여 몸건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뒤차문이 조용히 열리었다. 차에서 수수한 재빛 여름옷을 입고 흰 중절모자를 쓴 풍채좋은 분이 천천히 내리시었다. 오정녀는 꿈을 꾸는것

만 같았다.

오정녀의 앞으로 걸어오시는분은 오매에도 그리던 아버지수령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날마다 방안에 모신 초상화를 우러러보며 가슴속 깊이 간직해온 자애로운 그 영상...

《장군님!》

오정녀는 장군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큰절을 올리였다.

얼마나 드리고싶던 인사인가.

장군님께서 악독한 왜놈들을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시켜주시였다는 가슴뛰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이께서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시고 기름진 땅을 분여하여주시였을 때에도, 그 땅에서 익은 쌀가마니가 퇴마루우에 높이높이 쌓일 때에도, 첫해농사를 짓고 아들이 황소 한마리를 사왔을 때에도... 기쁨과 함께 날마다 가슴에 커가는것은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절을 하고 일어서는 오정녀에게 다정히 물으시였다.

《아주머니, 어디서 삽니까?》

오정녀는 다소곳이 수그렸던 머리를 들고 눈앞에 굽어보이는 마을을 가리켰다.

《저 마을에서 삽니다.》

장군님께서서는 40여호의 초가집들이 들어앉은 농촌마을을 내려다보시였다. 마을뒤에는 숲이 무성한 산이 병풍처럼 솟아있고 마을앞으로는 강냉이며 조밭이 펼쳐져있었다. 마을옆으로 흐르는, 무명필을 펼쳐놓은것 같은 개울물이 푸른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는 해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였다. 마을북판에 서있는 용드레대가 중동이 끊긴채 모로 기울어져있었다. 용드레우물 주변에 서있는 초가집들도 몇채 불타버렸다. 악착한 미국놈들은 이 작은 산골마을에도 폭탄을 떨어뜨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을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였다.

《저 불탄 집 사람들이 다 무사합니까?》

오정녀는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마음이 놓이시는듯 길가에 파랑게 돌아오른 잔디밭우에 오정녀와 나란히 앉으시였다.

《마을 농사작황이 어떻습니까?》

《강냉이랑 조랑 다 잘되었습니다.》

《아주머니네는 김을 몇번 댔습니까?》

《세번 댔습니다. 후방가족이라고 마을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집에 일손이 딸리는가요?》

《제혼자 삽니다.》

장군님의 낮빛이 신중해지시였다.

《전선에는 누가 나갔습니까?》

오정녀는 자기가 이제 장군님께 아들의 희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될것 같은 불안을 느끼며 나직이 대답했다.

《아들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방전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아들의 이야기보다 한결 입밖에 내기 쉬웠다. 오정녀는 남편이 돌아가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리였다.

장군님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지난날 이 나라 농촌 어디에서나 있는 사실이고 또 어느 집에서나 겪은 비참한 생활이여서 크게 마음을 쓰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장군님께서 이리도 괴로워하실줄이야.

《아주머니 지금 어디 다녀오는 길입니까?》

오정녀는 짙막하게 대답했다.

《읍에 다녀옵니다.》

아들이 전사했지만 행여나해서 역으로 마중갔었다는 이야기는 차마 할수 없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사연은 가슴속에서 못건디게 사품치며 목구멍으로 치달아올랐다.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마음다질수록 더더욱 그이께 아뢰고싶은 충동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이께서 모든것을 다 아시는것 같았고 또 그이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하랴 하는 생각이 오정녀를 흥분시켰다. 오정녀는 지금 꼭 친아버지앞에 앉아있는 심정이였다. 친아버지 아니고서야 어찌 느티나무밑에 쓰러져 울고있는 촌녀자를 만나보시려고 차를 세우시겠는가.

장군님의 시선은 흰구름 몇송이 떠있는 남쪽하늘가를 더듬으시였다. 그 누군가를 그러보시는듯한 절절한 빛이 그이의 눈에 어리여있었다.

《전선에 나간 아들한테서는 편지가 자주 옵니까?》

오정녀는 장군님의 눈길에 불안감이 서리는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끝내...) 하는 생각이 아픈 가슴을 흔들며 피로움을 퍼올렸다. 다잡아놓았던 마음의 탕개가 한순간에 풀리였다. 그의 눈은 벌써 폭 젖어있었다.

오정녀는 고개를 모로 돌리며 수건으로 두눈을 닦았다. 수건을 권 손이 떨고 어깨도 떨었다.

《장군님, 우리 영식은...》

그이의 시선이 눈물로 뒤말을 대신하는 오정녀의 얼굴에서 슬며시 미끄러져나갔다. 그이의 얼굴에도 허공에 던져진 시선에도 아픔이 배여있었다.

그이께서는 파랑게 자란 풀잎을 하나 둘 뜯으시여 무릎가에 놓으시였다. 한잎 뜯어놓으시고는 생각에 잠기셨다가 또 한잎을 뜯어놓으시였다.

침묵이 흘렀다. 오래동안 흘렀다. 그이의 옆에는 파아란 풀잎만이 쌓이고 덧쌓이었다.

오정너는 풀을 뜯으시는 그이의 손이며 땅우에 덧쌓이는 풀잎들을 눈저리게 지켜보았다.

(아, 장군님께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면...)

이윽고 그이께서는 마지막으로 뜯으신 풀잎을 땅우에다 놓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아주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데 함께 갑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있는데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2

승용차는 마을 초입에 있는 오정너네 집앞에 와 멎었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마당가에 서시여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종이를 바른 문이 세계 달린 키낮은 집이며 갖가지 남새들이 싱싱하게 자라고있는 터밭이며 배나무가 한그루 서있는 넓지 않은 트랙을 둘러보시었다. 지붕에는 아직도 위장을 위해 었은 나무가지들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위장나무밑에 깔린 이영색깔이 다른것이 시선을 끌었다. 아래방쪽은 재빛이고 옷방쪽은 누런 색깔이었다. 벽에다 하얗게 회칠을 했으나 옷방을 새로 지었다는것이 인차 알렸다.

폭격을 맞아 옷방이 허물어졌던 모양이다. 옷방문앞에 서있는 배나무도 줄기에 상처를 입었다. 폭탄파편이 줄기 한모퉁이를 뭉쳐 찢어놓았다. 상처자리에는 흙으로 곱게 매질을 하였다.

칠팔년정도 자란 나무다. 그러니 해방된해 아니면 그 이듬해에 영식이가 심었을것이다. 나무는 희망과 포부를 지닌 신념있는 사람들만이 심는 법이다. 영식이의 뜻대로 나무에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졌다. 영식이 바라것이 어찌 나무의 열매만이겠는가. 그는 생활의 열매도 바랐을것이다.

나무는 살아야 열매를 키운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도 열매를 키운다. 세상만물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 아니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죽었어도 죽지 않은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 산 사람들의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도 언제나 산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그들이 산사람과 무엇이 다르랴.

오정너가 과연 이것을 모르겠는가.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싶어한다. 자기결에서 일하며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의 숨소리를 듣고싶어한다.

나무도 집도 상처를 가시었는데 오정너의 가슴속에 생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

마음의 상처도 집이나 나무처럼 쉽게 가실수 있다면...

장군님께서서는 방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동행한 일군이 팔소매를 들어올리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장군님께서서는 중요하고 급한일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잊으신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오정너를 만나주시는것이 기다리고있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는것 같았다.

오정너는 장군님께서 나라의 큰일을 뒤로 미루시고 자기집에 들러주신것이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못견디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장군님께서서는 퇴마루에 신발을 벗어놓으시고 방안으로 들어 서시었다.

갈노전 세일을 깬 방안은 넓지 않았으나 깨끗이 정돈되어있었다.

정면벽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고 안쪽벽밀에는 기층탄에 모서리가 풀린 갈색농작이 이불 세채를 이고 놓여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벽시계가 걸려있는 출입문쪽 벽을 등지고 서시여 방안을 빙 둘러보시었다.

옷가지들이 주련이 걸려있는 농작옆의 말코지들과 앉은뱅이책상, 그우에 놓인 책꽂이와 꽃병모양의 도자기필통... 눈길이는 닿는것마다가 영식의 생각을 퍼올리었다.

《아들 사진이 있습니까?》

《해방후 여러장 찍었는데 놈들의 폭격에 옷방이 허물어 지는바람에...》

장군님께서서는 무척 아쉬우시었다. 영식이의 사진이라도 보시려고 방으로 들어오신 그이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앉은뱅이책상우에 놓인 책꽂이에 시선을 멈추시었다. 책꽂이에는 영식이 문맹퇴치때 리용했을 책들이 꽂혀있었다.

그이께서는 책꽂이에서 백로지로 맨 학습장을 한권 뽑아드시고 한장한장 번치시었다.

처음에는 틀리게 쓴 글자들이 있었으나 마지막장들에는 모두 제대로 썼다. 날마다 열심히 공부한 영식이의 모습이 책장마다에 어려있는듯하였다.

학습장까지 보시였으나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방을 뜨지 않으시었다.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영식이의 체취가 스민것이면 무엇이든 다 보고싶으시었다.

《표창장이 있습니까.》

오정너는 농작안에서 자그마한 종이말이를 꺼내어 장군님께 두손으로 받쳐드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표창장을 펼치시었다.

1948년도 가을에 군인민위원회에서 받은 표창장이었다. 나라에 애국미를 많이 바치여 건국사업에 이바지했으므로 표창한다는 글이 써여있었다. 아까운 전사를 잃었다는 생각이 장군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영식이 전선에 나가 성실하게 싸웠으리라는 믿음이 아픔을 더해주었다.

그가 어떻게 전사했는지 몹시 알고싶으시었다. 영식이가 용감히 싸웠다면 오정녀의 가슴에서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표창장에 써여진 글을 두번이나 읽어보시고 오정녀에게 넘겨주시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받은 표창장인데 보란듯이 벽에다 걸어놓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식이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자면 아직 멀었다고... 그래서 표창으로 받은 시계만 걸어놓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벽시계를 바라보시었다. 둥그런 문자판아래로 추통이 길게 늘어진 시계였다. 테두리에 새긴 조각무늬며 유리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다. 시계추는 멎어있고 바늘은 두시반을 가리키고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오정녀의 심정이 그대로 멎어있는 시계로 굳어진듯하였다.

오정녀는 시계를 살려놓으면 아들생각이 더 날가봐 두려웠을것이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시계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저밀수밖에...

시계소리를 살아있는 아들의 숨결소리로 생각하기전에는 오정녀의 손이 시계태엽을 감아주지 않을것이다.

오정녀는 그럴 날이 있으리라고 믿고있는지... 아니 믿지 않을것이다. 그는 그저 슬픔을 누르려고만 할것이다. 누른다고 슬픔이 없어 지겠는가. 잊으려고 모지름치는 그 순간마다 슬픔을 생각해야 한다. 슬픔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잊을수는 없다.

장군님께서는 시계추통안벽에 꽃혀있는 태엽감개를 뽑아 문자판구멍에 꽂으시고 힘주어 돌리시었다.

빠드득... 빠드득...

태엽감기는 소리가 고르롭고 탄력있게 울리었다. 생기를 잃고 쓸쓸해졌던 방안에 대뜸 삶이 태동하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한돌기 두돌기 계속 태엽감개를 돌리시었다. 멎었던 시계바늘이 흠칫흠칫 떨었다. 싸늘해졌던 시계가 갑자기 생명체로 변하여 숨을 쉬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는 태엽 두틀을 다 감으시고 시계추를 살짝 다쳐놓으시었다. 순간 시계추가 좌우로 그네를 뛰고 치차 돌아가는 소리가 울리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삼시에 고요한 방안의 굳어진 공기를 흔들어놓았다.

시계가 숨을 쉬는 소리였다.

시계바늘이 멎었던 자리를 떠나 한눈금 두눈금 움직여갔다.

장군님께서는 팔목을 드시고 자신의 시계를 들여다보시며 벽시계의 바늘을 맞추시었다. 그동안 지체한 걸음을 다시 이어주고 보충해주기라도 하려는듯 시계바늘을 단번에 여러 눈금 뺄 돌려놓으시었다.

오정녀는 시계를 상으로 타온 날 영식이가 싱글병글 웃으며 《어머니, 우리도 이제부터는 시간생활을 하자요. 아침 다섯시에는 방송에서<애국가>가 울리는데 그때엔 나도 발로 나가겠어요.》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였다.

그때 오정녀는 《애국가》란 무엇인가고 물었다.

아들은 벽에다 시계를 걸어놓으며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지 않았다.

《그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래예요. 날마다 방송에서 그 노래를 맨먼저 부르는건 공화국이 새날을 맞이하여 민주건설을 시작한다는걸 온 세상에 알리는거구요. 그러니 우리도 남들과 발을 맞추어 새 조국 건설에 나서야지요.》

영식이는 그후 어김없이 새벽 다섯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를 부르며 발로 나가군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시계바늘을 다 맞추어놓으시고 선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시었다. 시계는 장군님의 시계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갔다.

하고싶으신 모든 말씀을 시계를 살려주는것으로 대신한 그이의 깊고 뜨거운 심정에 오정녀는 목이 짹 메여왔다. 오정녀는 숫구치는 격정을 참지 못하여 장군님의 앞으로 한걸음 나섰었다.

《장군님, 제 다시는 시계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오정녀를 미덥게 바라보며 친근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아주머니, 생각을 잘했습니다. 시계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아파할것이 아니라 농사를 잘 지어나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애쓴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힘을 내야 합니다.》

《장군님, 제 앞으로는 혼자 있을 때에도 약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오정녀의 심정은 정녕 그랬다. 벗어나는 안되는 시계바늘처럼, 그이께서 살려주신 시계바늘처럼 앞으로만 굳세게 걸어 나갈 마음이였다.

《웁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영식동무를 비롯하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 전사들의 위훈을 이 땅위에 꽃피우는

걸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다심한 눈길로 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밖으로 나오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영식이의 우편대호를 물어보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영식동무가 어떻게 싸웠는지 내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집쪽으로 돌아서시여 잠시 서계시다가 차에 오르신었다.

오정너는 머리를 깊이 숙이여 떠나시는 그이께 인사를 드리었다.

3

평양행렬차는 폭탄구덩이들이 우묵우묵하게 패운 보폭을 옆에 끼고 기운차게 달리었다. 불탄 마을과 파괴된 공장들이 차창밖으로 휙휙 지나갔다. 포연이 가셔진 논과 밭에서는 한창 익어가는 벼와 강냉이가 바다처럼 펼쳐져 바람에 설레이고 있었다.

오정너는 난생처음 기차를 타보았다. 하지만 희한한 생각도 신비한 생각도 들지 않았다.

민족보위성에서 무엇때문에 불렸는지 궁금하기만 하였다. 혹시 영식이의 소식을 알려주려는건 아닌지? 다른 일로야 무엇때문에 이 촌녀자를 평양으로 불렀겠는가?

어느덧 열차는 평양역에 와닿았다.

오정너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싸여 역사밖으로 나왔다. 옆사람에게 민족보위성으로 가는 길을 물으려는데 어깨에 중성세알이 박힌 건장을 단 젊은 군관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오정너어머님이 아니신지요?》

《예.》

오정너는 얼결에 대답했다.

군관은 안길듯이 다가서며 오정너의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제 영식동무의 부대장입니다.》

오래동안 떨어졌던 친어머니라도 맞는듯한 반가움이 군관의 얼굴에 진하게 어려있었다. 솟구치는 반가움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앞에 나서는 피로움도 그 아들을 잃게 한 부대장으로서의 죄송함도 다 누르는것 같았다. 그 어떤 큰 감동에 흥분하고있는듯한 상기된 얼굴이기도 하였다.

《제가 뭐라구 이렇게...》

큰 별을 단 군관이 마중나와준것이 황송하여 오정너는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를 친아들이거니 하십

시오.》

군관은 오정너의 팔을 다정히 부축하고 승용차 있는데로 안내하였다.

풍을 친 군용승용차는 폭격에 가지가 잘린 버드나무들이 드문드문 서있는 역전거리를 지나 시내로 달리었다. 무너진 벽체와 형클어진 전선줄이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갔다. 어디나 폭탄구덩이이고 무덕무덕 쌓인 재더미였다.

오정너는 생각했던것보다 더 흑심하게 파괴된 평양을 제눈으로 보게 되자 가슴이 아렸다. 마을에 오시여 폭격맞은 초가집들을 보며 가슴아파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평양이 이 지경이 되고 온 나라가 처참하게 파괴되었으니 장군님께서 얼마나 피로우실고...)

《어머니!》

결에 앉은 부대장 전민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정너는 차창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전민철에게로 돌리었다. 마주보는 전민철의 얼굴에서 흥분의 빛이 물결쳤다.

《어머니, 장군님께서 며칠전에 저를 불러 영식동무에 대하여 자세히 물으시었습니다.》

오정너는 가슴이 울렁거리었다.

(장군님께서 이 촌녀자와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제발 영식이가 잘 싸웠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면...)

오정너는 아들이 결코 어머니의 망신을 시키지 않았으리라고 믿으면서도 사람의 일이라는게 뜻대로 되는것이 아니어서 좀처럼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영식이가 잘 싸우지 못하였다면 장군님의 가슴이 얼마나 허전하시겠는가?

오정너는 가빠지는 숨결을 애써 짓누르며 해변이 물을 빨아들이듯 전민철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었다.

...전민철이 어버이장군님의 집무실로 들어선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전민철을 반갑게 맞이하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히시었다.

그이께서는 전민철에게 부대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시간이 없는듯 화제를 돌리시었다.

《최영식이라고 알고있습니까?》

전민철은 얼굴을 숙이며 자기 잘못이라도 사죄하듯 폭 꺼진 어조로 말씀드렸다.

《영식동무는 정전되기 며칠전 385고지에서 적땅크 두대를 까고 희생되었습니다.》

전민철은 새벽이 가까와온다는 생각에 가슴을 조이며 될수록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애썼다.

장군님께서는 아무말씀없이 자리에서 일어 서시었다. 낮빛이 몹시 어두웠다. 참기 피로운 아픔에 가슴이 저리신듯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일때문에 가까스로 내신 시간

이었지만 이 순간 흘러가는 시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시는듯하였다.

책상앞에서 울리던 발자국소리는 창문가로 옮겨갔다. 발자국소리는 거기서 툭 멎었다. 그이께서는 두손을 올리시어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었다. 시내 곳곳에서 땀겨리는 용접광이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그이의 시선은 용접불빛보다 더 멀리 385고지 쪽으로 비쳐갔다.

《그날 영식동무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한 전사가 목숨으로 이룩한 위훈을 한마디의 말로 스쳐버려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시었다.

뜨거웁속에서도 전민철은 벽시계를 쳐다보며 조용히 속으로 한숨을 쉬고 뒤를 이었다.

...적땅크들이 참호앞까지 다가오자 전사들은 가슴이 바작바작 타들었다. 적땅크들이 참호로 들어서기만 하면 고지를 내주는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때 최영식이 수류탄뭉음을 안고 전호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폭탄구멍이에 은폐해있다가 적 선두땅크가 가까이 다가오자 몸을 벌떡 솟구며 수류탄뭉음을 던졌다.

굉장한 폭발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치솟아오르고 이어 적땅크가 시꺼먼 연기와 불길속에 휘감기였다.

영식은 되돌아서지 않고 곧장 두번째땅크를 향해 기여갔다. 그리고는 또다시 적땅크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허리를 채 펴기도전에 앞으로 툭 꼬꾸라졌다. 적탄에 옆구리를 맞았던 것이다. 그는 피흐르는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한치두치 기여나갔다.

적땅크가 깔아뭉갠듯이 덮쳐들었으나 영식은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류탄뭉음을 꼭 끌어안은채 주저없이 적땅크무한케도밀로 기여들어갔다. 더는 영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존재를 알려주듯 요란한 폭발소리가 고지를 진감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전쟁 3년간에 이런 사실을 수없이 보고받으셨겠으나 처음 듣기라도 하는듯 감동을 금치 못하시였다.

하긴 어느 아버지가 만아들이 이미 위훈을 세웠다고 해서 둘째아들, 셋째아들이 세운 위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랴.

장군님께서는 우렁우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평범한것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청춘시절에 스스로 목숨을 바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

오하고 혁명에 나선 사람이라고 하여 모두 필요한때 목숨을 내놓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식동무는 꽃나이청춘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나는 앞으로 한평생 영식동무를 잊지 못할것 같습니다.》

전민철은 지금까지 영식이의 희생성과 용감성에 감동을 금치 못해했지만 오늘처럼 그가 돋보인적은 없었다.

《영식동무에게 무슨 표창을 주었습니까?》

《영식동무는 이미 땅크 한대를 깬 공로도 있고 또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적후에 들어갔다가 사형장으로 끌려나온 10여명의 애국자들을 구원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내신했습니다. 어제 민족보위성에 알아보았는데 료해확인사업이 끝났으므로 인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 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장군님의 얼굴에 밝은 빛이 어리였다.

영식이 잘 싸우기를 못내 바라신 절절한 마음이 크나큰 기쁨으로 만면에 밝게 피어난듯하였다.

《내 영식동무가 그렇게 싸웠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의 은덕을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평시에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적과의 싸움에서도 용감한 법입니다. 영식동무는 자기의 목숨보다 조국의 한치땅을 더 귀중히 여기였습니다. 이런 동무에게 영웅칭호를 주는것은 웅당합니다.》

벽시계가 네점을 쳤다.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왔다.

《간밤은 정말 새운보람이 있습니다. 파괴된 공장 하나를 일떠세웠다는 보고를 받은 때보다 더 기쁩니다.》...

결에서 흑-하고 흐느끼는 소리에 전민철은 이 야기를 멈추었다.

오정녀가 손수건으로 눈굽을 누른채 어깨를 떨고있었다.

《우리 애가 영웅이 되다니? 일밖에 모르던 그 순박한 애가...》

《영식동무는 늘 해방된 조국에서 사람답게 살게하여주고 기름진 땅과 집까지 안겨주신 아버이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잊을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영식이가 장군님을 위하여 잘 싸웠다니 이 어미는 정말 기쁩니다. 인젠 시름이 놓입니다.》

대동교를 지난 승용차는 속도를 내어 동평양으로 달리였다.

《그날 아버이장군님께서는 어머님에게 빨리 영식동무가 영웅이 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여 방안을 거닐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들이 영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어머

니의 가슴에 쌓인 슬픔과 아픔이 다 가셔지지 않을것입니다. 영웅이 된 아들을 보고싶은 마음이 더욱 절절할것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창문가에 서시여 밝아오는 새벽빛에 우렛이 드러난 정원수들을 아픔이 배인 눈길로 내다보시였다. 한순간 밝게 개였던 얼굴에 다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나는 이번에 지방에 나가 아들과 남편을 잃은 녀인들을 여러명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 용감하게 싸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뗏뗏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랑과 함께 슬픔도 깔려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나라가 폐허로 된것보다 더 크고 가슴 아픈것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생긴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무참히 파괴된 조국을 두고 걱정하며 피로와하는 때였다.

그런 피로움은 장군님의 가슴에도 그대로 쌓여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치지 않으시였다.

당이 있고 령토가 있고 인민이 있으면 전쟁의 피해를 가시는 일도 나라를 부강하게 일떠세우는 일도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장군님이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언제나 대원들에게 인민이 있고 유격대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해방할것이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전민철의 귀전에 쟁쟁하게 울려왔다.

장군님께서서는 정세가 아무리 불리할 때에도, 혁명이 시련에 처할 때에도 얼굴에 어두운 빛을 보이지 않으시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기나긴 세월 전민철이 그이의 얼굴에서 피로운 빛을 본것은 오직 전사들을 잃었을 때뿐이였다.

장군님의 음성은 점점 저력있게 울리였다.

《우리가 혁명을 한지도 어느덧 서른해를 가까이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동무들을 잃었습니까. 그들중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전사한 동무들에게는 표창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도 가슴에 훈장하나달지 못하고 낯설은 이역땅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우리는 나라를 세우자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전사들에게 훈장도주고 영웅칭호도 주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웅들과 수훈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까?》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창문가에서 물려서며 방안을 거니시였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보다 더 많은 전사들을 잃었습니다.

당과 군대의 큰 간부들로부터 전선의 평범한 전사들, 후방의 애국적인 로동자들과 농민들…그중에는 신천과 덕지강가의 나 어린 소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에게 영웅메달을 열개 달아준다 해도 영웅메달보다 더 큰것을 안겨준다 해도 무거운 마음이 풀릴것 같지 않습니다.》

아픔과 피로움을 누르려고 그이께서는 그냥 방안을 거니시였다.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가족들의 가슴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전쟁으로 몹시 바쁜 때이지만 나는 지방에 나갈적마다 유가족들을 만나주었고 이번에도 유가족들이 살고있다는 말만 들으면 파괴된 공장을 돌아보아야 할 일정도 미루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산간마을을 외딴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에 널려있는 유가족들을 다 만날수는 없었습니다.》

전민철의 눈앞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전사들을 잃을 때마다 우등불앞에서 밤을 새우시며 손수 추도사를 쓰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승엄하게 떠올랐다.

백만왜군도 전를케 하는 서슬푸른 기상과 산악같은 담력을 지니신 장군님이시였지만 쓰러진 전사들앞에서는 비통한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싸움터로 나가시다가도 부근마을에 희생된 전사의 가족이 살고있다는것을 아시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찾아가시였다.

유가족들은 희생된 전사에 대하여 낯아키운 친부모보다 더 가슴아파하시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에 목이 메여 떠나간 남편과 아들처럼 영원히 장군님을 받들어모시고 충성다해 싸우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한사람이 비어있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섰다.

정녕 우리의 혁명대오는 인민들과 전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의하여 나날이 확대되고 장성하여 오늘과 같은 대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불과 몇 사람으로 혁명을 시작하시던 시기나 조금도 다름이없으셨다.

《전쟁에서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상처를 가셔주는 일은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는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민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는 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고 파괴된 나라도 성과적으로 일떠세울수 없습니다. 또 인민들의 가슴속에 아픈 상처를 남겨두고 공장과 발전소를 지어서는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희생된 전사들의 정치적생명을 길이 빛내주고 그들이 자기의 부모와 안해와 자식들에게 한평생 줄수 있는것보다 더 많은것을 안겨줌으로써 그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이 살아있을 때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살아있는 혈육을 느끼게 해야합니다.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의 가슴에서 슬픔이 완전히 가서질것입니다.》

(장군님!) 전민철은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리 영웅들의 위훈을 빛내주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세운 위훈을 계속 빛내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전투영웅대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전민철의 가슴은 복채에라도 맞은듯 쿵! 하고 세차게 울리었다. 나라가 온통 재더미로 된 형편에서 아직 재더미속에서 벽돌도 채 추어내지 못한때에 온 나라 전투영웅들과 그 가족들을 다 부르시여 대회를 하려는 장군님의 깊고 숭고한 뜻이 가슴가득 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장군님의 음성은 절절하였다.

《전쟁이 끝난지 한달도 안되다보니 전호속에서 눈비를 맞으며 싸운 영웅들에게 폭신한 잠자리 하나 보장해줄수 없고 대회를 할만한 장소도 변변한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를 위해 용감히 싸운 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 그 가족들을 만나보지 않고서는 일이 손에 잡힐것 같지 않습니다.》

해방후에도 나라를 찾았지만 떠나간 전사들에 대한 생각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며 국내와 이역의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유자녀들을 찾아오고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사업부터 시작하신 장군님이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민철을 마주보시며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파괴된 나라를 일떠세우는데서 앞장서야 할 사람들도 그들이고 우리 혁명대오의 핵심이 될 사람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혁명을 시작한 초기부터 그랬듯이 오늘도 래일도 그들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두산에서 시작한 우리 혁명이 영원히 살며 승리합니다.》

전민철의 눈에는 끝내 뜨거운것이 펴고이고야 말았다. ...

승용차는 속소가 자리잡고있는 송신쪽으로 달리었다.

오정너는 아까부터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장군님! 장군님!)

두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연방 씻어내리며 오정너는 그냥 목메여 속으로 장군님을 불렀다.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같은신분은 없어. 우리 장군님같은신분은...)

4

8월 17일, 포성이 멎은지 스무하루만에 평양에서는 전국전투영웅대회가 성대히 열리었다.

장군님께서 불러주신 공화국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 그들의 가족들이 대회장으로 달려왔다.

장군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을 대회장으로 내주시었다.

오정너가 도착했을 때 회의장안팎은 가슴에 훈장과 메달을 가득단 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 그들의 가족들로 흥성거리었다.

전민철은 오정너를 데리고 회의장으로 들어가 맨 앞줄에 앉히었다. 대회는 격동된 분위기속에서 이틀동안 계속되였다.

사흘째되는 날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대회장에 나오시었다. 대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만세소리로 떠나갈듯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손을 높이 들어 답례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오정너는 두손을 머리우로 흔들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장군님께서서는 영웅들과 가족들에게 앉으라고 손을 저으시었다. 그럴수록 장내에는 박수소리와 흐느낌소리, 만세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장군님의 눈빛도 어딘가 모르게 젖어있는듯하였다. 장군님께서 몇번이고 손을 저으시여서야 장내는 정돈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영웅들과 가족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나는 전쟁기간 일군들로부터 수많은 보고를 받았지만 영웅이 났다는 보고를 받을 때처럼 기뻐하지 않았습시다. 영웅이 났다고 할 때마다 그들을 보고싶었고 열렬히 축하해주고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한창 가렬한 때이지만 나는 1951년 6월 영웅들과 모범전투원들을 최고사령부로 불렀습시다. 그때 그들과 같이 밤나무밑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노래도 듣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만만동무들은 여섯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보니 이날을 위해 용감히 싸운 영웅들을 모두 만나고싶은 마음을 더욱 금할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들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두손을 책상우에 얹으시고 앞줄에 앉아있는 전사한 영웅가족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영웅들을 보고싶어 불렀지만 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동무들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들의 어머니와 안해들만 와있습니다.》

흐느낌소리가 더 높아졌다. 오정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강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였다. 숨얼하게 흐르던 장내의 공기는 뜨거운 물기에 화락하니 젖어버렸다.

흐느낌의 파도우로 장군님의 음성이 우렁우렁 울리었다.

《전사한 영웅들은 우리를 믿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이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돌봐주어야 할 귀중한 몸을 서슴없이 바쳤고 그들의 가족들은 우리를 믿고 슬픔을 누르며 굳세게 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가족들과 자리를 같이하겠습니다. 희생된 영웅들의 가족들은 주석단으로 나와주십시오.》

폭풍같은 박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영웅들의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오정녀는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했으나 눈물이 앞을 가리워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그는 전민철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주석단으로 올라왔다.

장군님께서서는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는 오정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자신의 곁에 놓인 의자로 이끄시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장군님!》

오정녀는 참으로 말씀드리고싶은것이 많았다.

아들을 영웅으로 내세워주신데 대해서도 자기를 영웅대회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몸가짜이 앉혀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그러나 뜨거운것이 자꾸만 목에 고여몰라 아무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박수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장내를 향하여 손을 저으시고 은정어린 목소리로 오정녀를 소개하시었다.

《동무들, 최영식동무의 어머니입니다. 최영식동무는 제한몸을 바쳐 달려드는 적땅크중대를 저지시키고 조국의 고지를 지켜내는데 크게 기여한 용감한 영웅입니다.》

영웅의 위훈을 찬양하는 박수소리가 높이 울리었다.

장군님께서도 오정녀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박수를 치시었다.

오정녀는 허리를 굽혀 장군님께 몇번이고 감사

의 인사를 올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석단으로 나온 가족들이 다 앉은 다음에야 연단으로 나가시었다. 대회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연단에 오르신 장군님께서서는 《공화국영웅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운 불멸의 위훈을 계속 빛내어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영웅들은 장군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전후 조국보위와 복구건설에서 새로운 위훈을 세우겠다고 굳게 결의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영웅들이 토론할 때마다 먼저 박수를 치시며 잘 싸웠다고 치하해주시고 그들의 위훈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본인들이 말하지 않은 자그마한 위훈에 대해서도 그들이 살아온 지난날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계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영웅들은 자기들이 전선에서 싸우는동안 장군님께서 늘 다정히 품어안으시고 친자식처럼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세심히 보살펴주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는가를 알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정녕 그이의 품은 이나라 전사들 모두가 영원히 안겨사는 행복의 요람이였다.

오정녀는 대회장이 친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이 다 모인 한가정처럼 단란하게 느껴졌다. 그럴수록 오정녀는 온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한가정이라는 생각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영웅의 어머니와 안해들도 연단으로 나갔다.

여러명의 영웅들과 가족들이 토론을 하고났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오정녀에게 말씀하시었다.

《용감한 아들을 두었는데 한마디 하십시오. 모두 듣고싶어할겁니다.》

오정녀는 몹시 당황해졌다. 그러나 당황한 한순간이 지나가자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다잡으며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장소에서 어떻게 토론을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웬일인지 두렵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 가득 고여있어 쏟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정녀는 연단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숨을 길게 들이긋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그 누구와 나눌수도 없고 그 어떤 위로로도 가실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퍼내주어도

내 가슴속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정녀는 목소리가 떨려 이야기를 멈추었다.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하였다.

《아들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나보다 더 슬프고 가슴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고 하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보다 더 피로워하시고 가슴아파하시고 만나보고싶어하시며 그들이 영원히 빛나게 살도록 하려고 마음을 쓰시는분이 계신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이십니다.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인민들과 전사들의 친아버이이시며 희생된 영웅들과 전사들은 모두 장군님의 자식들입니다. 전쟁에서 저는 한자식을 잃었지만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에 나서신 수십년동안 수많은 자식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과 안해들의 슬픔과 피로움을 장군님께서서는 혼자서 다 안고계십니다.》

오정녀는 입안이며 목구멍이 확확 달아올라 입술을 꼭 다물었다. 흐느낌소리가 숙연한 침묵이 드리운 장내의 공기를 흔들었다.

오정녀는 장군님께서 자기 집을 찾아주셨던 일이며 영식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정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여러분, 저는 영식이를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식이는 지금 영웅으로 살고있습니다.》

저는 전선에 나간 아들과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슬퍼하고있는 녀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는 눈물을 보이지 맙시다. 더는 슬퍼하지 맙시다. 자식들과 남편들이 어버이장군님의 파사로운 품에 안겨 빛나게 살고있는데 무엇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겠습니까.》

박수소리가 우렁차게 터졌다. 장내에서는 흐느낌소리가 멎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연단에서 돌아온 오정녀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고맙습니다. 나도 인젠 피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와 남편, 자기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피로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강한 마음에 힘이 솟습니다.》

《장군님!》

오정녀는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몸을 맡기였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방금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군님, 제 슬퍼서가 아니라 장군님의 은정에 목이 매여 그렇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우리 전사들에게 변변히 해준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에서는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운 전사들을 길이 빛내주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곧 평양에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영웅들의 사진도 붙이고 유물도 전시하여 온 나라 인민들이 그들을 따라 배우게 하자는겁니다. 거기에는 영식동무의 표창장도 진렬합시다. 그리고 영식동무의 사진도 찾아 걸어놓읍시다. 동무들과 집체사진을 찍은것도 있을것이고 그의 독사진을 전사해둔 동무들도 있을겁니다.》

《장군님, 저는 요즘 날마다 제결에서 웃고있는 영식이를 봅니다. 그 애는 장군님의 은덕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은 조국땅에 영원히 살아빛날것입니다. 앞으로 해방산기슭에다 그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주기 위하여 기념탑을 크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 기념비는 이 나라 영웅들이 영생하는 모습으로 높이 솟아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과 공장, 학교들에 영웅들의 이름을 달아주고 그들의 동상도 세우려고 합니다.》

장군님의 음성은 장내를 우렁우렁 울리면서 영웅들과 가족들의 심장을 뜨겁게 흔들었다. 회의 참가자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불렀다.

오정녀는 장군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꿰뚫다.

(장군님, 온 나라 인민들과 전사들은 장군님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것입니다. 죽어서도 장군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빛나게 살수 있는데야 무엇때문에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정녕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 인민을 살리고 우리 전사들이 영생하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만세소리는 장내를 흔들며 멀리멀리 울려갔다.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 외 1 편

(총련) 남시우

펼 펼 뛰는 이 힘이

어데서 솟느냐고 묻지를 말게

밤을 새우며 춤을 추었네

새벽길을 노래로 누비며 왔네

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

재일동포대표들이 나서게 되었으니

나라의 의젓한 주인으로서

평생에 이 명절을 맞이하였으니

어찌 타국에 떠도는 신세이겠는가

아니네, 룡십을 넘은 이 가슴에도

푸르른 청춘을 다시 되찾고

넓으신 그이 품안에서 살고있네

조국의 해발아래 활개를 펴고

행복과 영광속에 생을 누리니

세월이 그대로 꽃피는 노래라네

세월이 갈수록 새힘이 약동하네

여기였네, 갈데올데 없던 그때

정처없는 발길, 이 강변에 멈추고

스미다가와 소리없는 물결우에 눈물뿌리며

망국노의 설움으로 가슴을 후비였네

조국을 잃고 끌려다닐 때

원썩들의 채찍밑에 몸부림치던

쓰거운 눈물자욱 스민 이 땅에

오각별 우리 기발 파도처럼 설레이네

이 노래 주신 이 누구이신가

이 춤을 주신 이 누구이신가

하많은 이국땅 풍상속에서도

이 행복을 주신 이 누구이신가!

북소리 뚱뚱 강산을 울리었네

환호소리, 만세소리 천지를 진동하네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자랑

천년만년 무궁토록 끝이 없다네!

길가던 일본사람 발을 멈추고

노래의 물결에 그도 취하였네

김일성대원수님! 위대한 조선!

그들도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네

진정 세상이 쳐다보는

우리 조국이라네!

세상사람들이 우러러 받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네!

그렇다네 이 뛰는 힘으로

한걸음에 뛰어달리고싶네

그리운 남녘 고향땅을 밟고서

수령님 모시고 이 춤을 출테네!

아, 기쁨의 노래

감격의 환호성!

목이 메어 격해지는

만세 만세소리!

우리 불타는 심장이라네!

평생을 다해도 모자라는

아버이수령, 그이에 대한

끓어넘치는 충성의 맹세라네!

위대한신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 부름따라 일편단심 나아가는

뜨거운 뜨거운 마음이라네!

시에 대한 생각

시를 읽어내리다가
행을 따라 소리도 내어
절로 흥이 나서 운률도 잡으며

가슴 뭉클해질 때
도로 책장을 넘기며
표제 밑에 이름을 찾을 때 있더라

아마 이럴 때
원고지에 붓을 놓고
시인은 무릎도 크게 쳤으리

속삭임과도 같은
그 시줄에 끌리어
첫줄부터 다시 읽어내리면

어딘가
인상에 파고드는 그 얼굴
유심히 그려볼 때 있더라

그래서
내 서가의 시집들은
책장마다 보풀이 일고

두툼한 책, 차례에는
이제 친숙해져 오래인
이름도 많더라!

시를 읽으면서도
다시 새로워지는
뜨거운 생각

시인의 안목 띄워주시고
창조의 사색 나래돋게 하여준
그 원천은 무엇?

힘있는 운률 날게 해주시고
매력있는 시인의 탄생
그 모든 비결은 무엇?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 젖줄기로 하여
아, 주체조선은
혁명시가의 조국으로 된게 아니냐!

건설의 진군에는
충성의 호소가 되게 하였더라
원췌와의 결전장에는
격멸의 나팔이 되게 하였더라!

가슴을 울리는
한편의 시를 놓고도
우리의 생각은 간절해지누나

주체예술의 대전성기 마련하시고
혁명문학의 상상봉 펼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를 가까이 모시고
주체의 가수로 노래하는
아, 그지없는 이 자랑이여!

향도의 빛발

랄라이나리보 노엘 하르베이

향도의 빛발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쳐

온갖 낡은 사상잔재 쓸어버리어라

향도의 빛발

위대한 힘으로

반역의 무리 어둠의 장막을 밀어버리고

빛나는 승리 이룩하여라

향도의 빛발

사람들에게 힘과 예지를 주어

어떤 불리한 자연조건도 이겨내게 하여라

향도의 빛발

이는 주체사상의 빛발

투철한 인생관을 밝혀주는 새로운 원리

향도의 빛발

영원토록 비쳐가리

인류의 앞길 밝히며

축원하노라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필자는 마다가스카르 창작가임)

가사

노을아 내 마음아

신지락

노을아 노을아 붉게 타는 새벽노을아

이 아침 당중앙 창가에 먼저 피여다오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께

첫인사 드려다오 곱게 곱게 피여다오

아 노을아 내 마음아

노을아 노을아 붉게 타는 새벽노을아

간밤도 지새워가시며 새날을 맞으신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려다오 아름답게 피여다오

아 노을아 내 마음아

노을아 노을아 붉게 타는 새벽노을아

그이를 따르는 순결한 우리 마음 담아

푸르른 내 나라의 저 하늘 끝까지

찬란히 비껴다오 붉게 붉게 피여다오

아 노을아 내 마음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의 절절한 념원이며 최대의 희망이다》

김정일

위대한 업적

원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이라 하시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불멸의 력사》 창작과 함께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이 과제를 우리 작가들에게 맡겨주시었다.

매우 영예롭고도 무거운 창작과제를 받아안은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창작 완성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옮긴 혁명영화 《피바다》에 기초하여 필요한 자료작업을 하고 혁명소설 《피바다》 창작에 들어섰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영화와 가극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었기때문에 원작의 주제사상과 내용은 명백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긴것이 없다보니 본보기로 할만한 작품이 없었다.

작가들은 원작이 담고있는 심오한 주제와 혁명적내용을 어떻게 하면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장편소설로 옮기겠는가, 어떻게 하면 소설문학에서 원작이 가지고있는 완벽한 사상예술성을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많았다.

여기서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에 옮기는데서 원작에 충실하며 옮겨지는 문학예술형식의 특성에 맞게 할데 대하여 제시하신 창작원칙을 지침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초고를 끝내어 그것을 초판으로 찍어내었다.

그러나 작가들의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그것은 소설이 원작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도 어설픈것이 많다고 느껴졌기때문이었다.

작가들은 장편소설 《피바다》 초판을 놓고 모색에 모색을 거듭하며 수정대안을 토론했고 그에 따라 다시 고쳐나갔다.

그리하여 얼마후에는 초판을 완성하였다.

초판에 대한 의견은 여러가지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소설을 완성하기 위한 실통한 대안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72년 12월 15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분

망하신 가운데서도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 초판을 친히 읽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어려운 일인데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옮겨 파악하고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장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형상하고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지도자동지께서는 원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에 옮기는데서 작가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소설초판에서 발로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가시며 그 수정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먼저 일부 장면들을 좀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전 장면들이 소설에서도 감동을 주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토벌》을 당한 다음 별제마을을 찾아갈 때 내가에서 원남이가 갑순이에게 아버지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나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올 때 발구를 타고 오는 장면, 갑순이가 죽은 을남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 같은데서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나 가극에서는 노래를 비롯한 여러가지 효과를 통하여 관중의 심금을 강하게 자극하지만 소설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으므로 소설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만 하여도 가극에서는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와 같은 노래가 심금을 울려주니 감동이 크지만 소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더우기 이런 장면들이 이미 대중에게 강한 인상으로 고착되었기때문에 소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감동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묘사되지 않으면 다 아는

이야기이기때문에 독자들이 지루감을 느낄 수 있다고 깨우쳐주시었다.

작가들의 눈앞을 환히 띄워주는 현명한 가르치심이었다.

사실 작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준 장면들을 소설에서도 감동을 줄수 있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뒤생활을 잘 파야 한다고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에 작가들은 모두 탄성을 올렸다. 그들이 놓치고있던것이 바로 그것이었었던것이다.

뒤생활을 무한히 팔수 있고 끝없이 전개해나갈수 있는 여기에 소설의 특성이 있는것이며 사실 사건을 립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는 바로 여기에 소설의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작가들은 이것을 놓치고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받았던 화폭들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머물러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의 특성에 맞게 더 전개할데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시며 설명하시었다.

그러시고는 2편 첫머리에 시대적변천과 항일무장투쟁의 발전을 개괄해주든지 어머니의 생활과 사상감정의 변화같은것을 그려주든지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소설로서 새롭게 읽을 맛이 있고 감동을 줄수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뒤생활을 깊이있게 그럴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새길수록 작가들은 뉘우침과 부끄러움으로 하여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것은 작가들이 소설을 창작하는데서 창작가로서의 기본 자세와 립장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지적의 가르치심이나 다름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소설에서 생활과 밀착되지 않은 부분을 고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일제의 《토벌》을 맞고 별제마을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감을 준다고 하시면서 생활속에서 우리나라오지 않거나 생활과 밀착되지 않는 심리, 감정, 주정은 아무리 잘 그렸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었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창작태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심의본에는 왜놈들의 손에 남편을 잃고 별제마을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리세계가 생활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실하게 그려지지 못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범벅을 먹는 원남과 갑순의 성격, 습관상 차이를 강조해 주려던 나머지 작가가 자기 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

시였다.

그이께서는 범벅을 먹는 남매의 모습, 행동 그리고 그때의 어머니의 체험세계 같은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학작품이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생활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죽음과 같은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생활과 밀착되지 못한 형상은 죽음과 같은것이라고 선언하실 때 작가들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시공간적제한을 받는 영화나 가극과 달리 소설에서는 깊이 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활을 감정조직과 밀착되지 않게 주관적욕망을 앞세워 추상적으로 묘사한 대목들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밖에도 소설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럴데 대한 문제, 어머니의 형상을 깊이 파고들데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지어 정확하지 못한 표현과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까지 따듯이 깨우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상동지구공작이 전반적조선혁명수행에서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쉽게 느낄수 있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무리 상동지구공작의 의의가 크다 하여도 《전반적조선혁명수행에서 하나의 시금석》으로까지는 될수 없다고 지적하시었다.

그리고 소설에서 온성집머느리 이름을 꽃분이라고 하였는데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 주인공의 이름이 꽃분이인것만큼 여기에서는 다르게 불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시려는 그이의 높은 뜻과 로고가 헤아려져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작가들의 가슴은 새로운 흥분과 격동, 창작적 열정으로 설레었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한장면한장면 소설을 고쳐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순박하면서도 강의한 어머니의 성격과 사상적 성장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데 성공하였으며 소설의 특성에 맞게 모든 장면들을 빛나게 형상할수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3년 2월 17일 새롭게 수정한 장편소설 《피바다》를 보시고 소설을 잘 고쳤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사랑속에 장편소설 《피바다》가 성과적으로 창작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자기의 력사적뿌리를 똑바로 찾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킬수 있게 되었으며 주체문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게 되었다.

빛나는 나날

장건식

밤이 깊어간다
당중앙 집무실
덧쌓인 문진들을 번져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시더니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신다

현지지도의 한낫을 이어
지새우시는 밤
새벽을 몰아오는 청신한 바람에
그 모진 피곤을 날려보내시려는듯
밤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신다

어제도 이맘때 서계시던 창가
그제도 이렇게 바라보신 그 하늘
이밤도 근엄한 그 눈길 머무른곳은
은하수 기울어져가는 그 한끝-
눈보라 울부짖는 그날의 백두밀림

그이께선 바라보신다
만년설우에
소리없이 내리는 눈발을 타고
밤마다 새어흐르던
사령부 피창가의 그 불빛을

그이께선 듣고계신다
밤마다
총소리 울려오던 산발너머
끓기며 이어지던 《적기가》의 선물을
준엄한 격전끝에 밝아오던 그 썰녘
뜨거운 총신을 닮으며 부르시던
그리운 어머니의 그 《사향가》의 노래를

흰눈우에

붉은 피 뿌리며 쓰러진 투사들,
숨 지면서도 눈 못감던 그 소원을
한가슴에 받아 외우시는듯
그이의 엄숙한 눈길은
묵묵히 남녘하늘을 바라보신다

아, 간고한 그 걸음걸음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조선혁명은
또 앞으로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먼 하늘가에서 눈길을 떼시고
불밝은 탁상등아래
붓을 가다듬으시는 지도자동지
그이의 눈앞엔
사령부 피창가의 불빛이 타고
그이의 가슴에선
백두밀림의 눈보라가 인다

한장한장
번지시는 종이우에
붉은 화살표가 뻗어간다
창조와 위훈의 대기념비들로
온 누리를 놀래우며
또 하루 조선의 진군길이 열린다

아, 향도의 태양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낫을 이어 지새우시는 이런 밤이 있어
백두산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은
어느 한 순간도 드림없이 이어지는구나
급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단합된 인민의 위력을 펼치며
조선의 낮과 밤은 빛나게 이어져가는구나!

전승의 년대기우에 빛나는 땅 외 2편

리동후

솔바람 서늘러운 가을밤
후미진 골안에 락엽이 지는 룡포땅
정갈한 뜨락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더라

산 넘어 둔중한 포소리
실개천 여울소리 간간이 들려오는데
장군님 계신 창문가에
밤새도록 등불은 꺼질줄 몰랐더라
검소한 책상을 마주하신채

그 불빛아래서
작전도우에 그으신 화살표따라
불타는 고지, 백병전의 격전장엔
돌격의 함성 높아지고
해안포는 적함을 향해 명중포화를 들썩웠어라

장하다고
놈들의 상륙기도를 짓부신 해안포병들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간 용사들
몸가짜이 부르시여
친히 전투담도 들어주시고

다시 화선천리
전투장으로 떠나는 전사들에게

철철 넘치게 축배잔도 부어주실제
아버이 그 은정에 목메며
그들의 가슴은 격동으로 끓어번졌거니

아, 그토록 아끼시고 보살피신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
그대로 불사신의 나래가 되어
피로써 고지를 수호한 영웅전사들
그 얼마이라

포화 울부짖던 그 나날
장군님의 령활한 지략으로
놈들의 《추기공세》야망 짓부신 작전도우에
그밤의 불빛은 어려있어
언제나 못잊는 성스러운 전적지여

오, 룡포땅-너는
위대한 영상
최고사령관동지의 불멸의 위업 새겨안고
오늘도 그날의 모습그대로
전승의 년대기우에 빛나고있어라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맑은 샘

포연에 끄슬린 군복깃 날리며
산발을 타고넘던 전사
문득 걸음 멈췄네
어인 일인가, 해맑은 이 가을날
덤불밑에 가랑잎 축축히 젖어있음은

전사는 다급히 두손으로 파헤쳤네
세월의 락엽이 덧쌓여
아무도 찾을길 없었던
산정의 정갈한 샘
드디어 전사앞에 제 모습 헤쳐놓았네

대자연의 정기어려
약수이면 이보다 귀하라
불연기 타래치던 격전장에서

갈증에 목이 타던 전사
무릎 꿇고 꿀꺽-꿀꺽-

순간 전사는 생각했네
어린시절 마셔온 박우물
그 줄기 여기에 이어졌는가
마셔도 마셔도
고향의 물맛그대로인 샘물

아, 마시는 샘물은 그대로
원쭉치는 섬멸의 물이 되려니
조국의 푸른 하늘이 비껴있는 샘물은
전사의 가슴속에 고이고고여져
흔들리지 않았네 흐려지지 않았네

출전의 시각을 앞에 두고

어느덧 마당가에 어스름이 깃들무렵
떠날 차비 서두르며
군복차림 단정히 군화끈 조이는데
누구인가 등뒤에서
드바뻬 찾는 감격어린 목소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지금 야전식당앞에서 기다리고계시오!

순간 가슴이 찢르르...
너무도 꿈만같은
반가운 소식앞에
장군님 계신곳을 우러르며
병사들은 눈시울 뜨거이 적시여라

전투장에 나가는 동무들과
헤여지기 못내 서운하다고
그리고 반가이 품안아주시는 아버지

고뿌에 철철 넘치게
친히 축배잔도 부어주시제

흐읍- 어깨를 들먹이는 병사들
얼마나 영광의 시각을 받아안은것인가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신
이런 축복 한생에 다시 있으라

출전의 시각을 앞에 두고
장군님 안겨주신 그 은정
마를줄 모르는 삶의 젖줄기로
병사들 가슴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어
무적의 용맹 솟구쳐올랐거니

보여주었다, 병사들은
고지를 수호한 승리자의 기상을,
전승의 력사에 불멸의 위훈 아로새긴
영웅전사들의 참모습을!

참된 삶의 길로

진창우

어떻게 일하면
우리 수령님 더잘 모실가
어떻게 살면
우리 당을 더잘 받들가

오로지 한생각
조용히 눈감으면
내앞에 걸어가는 빛나는 모습
정춘실영웅의 미더운 그 모습

이 길로 가자고
이렇게 걸자고
부르며 손잡아 이끌어주며
우리앞에 뜨겁게 찍어가는
효성의 자욱

아, 내 마음의 발자욱 덧놓아보노라
바람 세찬 등판에 새 땅 일쿠어
비단산을 가꾸어가던
그 땀젖은 자욱우에

이 심장을 엿어보노라
풍성한 원료기지 펼치여놓고
집집의 창가에 더 높아질

그 웃음소리 귀기울여 들어보던
사래긴 이랑이랑에

두메산촌의 호주가 되어
《우리 가정수첩》을 가슴에 품고
눈비를 맞으며 걷고걸은 그 길우에
나를 세워주는 영웅의 모습이어

인민을 위한 불타는 마음 안고
인민의 축복이 되어
반생을 빛나게 찍어간
그 헌신의 자욱자욱이
땀을 찾아
아버지 오시는 길이 되었나니

아, 온 나라가 따라배우는
이 시대의 선구자 정춘실영웅이어
그대는 우리모두를
아버이수령님품에
은혜론 당의 품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 안길
참된 삶의 길로
천만을 불러 이끌어주고있구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근본사명이다.》

김정일

명제해설

일반적으로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은 인간생활을 그리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한다.

비록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사람들의 세계관형성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생활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주지 못하며 고상한 룬리와 아름다운 정서를 안겨주지 못하면 문학으로서의 사명을 한다고 볼수 없다.

우리 문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복무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문학이 주체혁명위업에 이바지한다는것은 결국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학예술은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문학예술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우리 인민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복무하는 문학예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진하고있다.

문학은 응당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발양되는 영웅적위훈과 아름다운 소행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사람은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의 근본사명을 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문학분야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전형창조를 사회주의문학의 기본과제로 보고 이것을 푸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왔다. 그러나 사회주의문학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창조하는것만으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사회주의문학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있는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를 잘 그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혁명소설들은 수령의 혁명활동을 깊이있고 폭넓은 사회력사적화폭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본질과 그 승리의 합법적과정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사람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

명가로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의 근본사명을 옳바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상교양적기능, 생활인식적기능, 문화정서교양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것은 사상교양의 기능이다.

문학의 사상교양적기능을 높여야 그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문학은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의 장엄한 현실과 현시대가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작품에 진실하게 묘사하자고 해도 주체사상과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

문학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힘차게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발전과정과 약동하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여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자면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을 옳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문학이 사람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하게 나선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사상과 우수한 전통,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존엄있는 민족이라는것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특히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사상이 울려나오도록 해야 한다.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의 근본사명을 옳바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생활인식적기능을 높여야 한다.

문학은 인간생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일제놈들이 왜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으며 혁명이란 무엇이고 왜 혁명을 하여야 하는가조차 모르던 어머니가 남편과 아들딸의 영향밑에 점차 혁명을 인식하고 투쟁에로 나가게 되는 생활과정에 대한 폭넓은 묘

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모순과 악으로 가득찬 당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준다.

이처럼 문학이 생활인식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자면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문학예술이 자기의 근본사명을 옹바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문화정서교양적기능도 높여야 한다.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옹바른 세계관을 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서적으로 키우는데도 있다.

우리의 문화정서교양은 자주시대의 미감에 맞는 혁명적생활감정과 민족적정서를 키우는 사업이다.

문학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주며 그들의 문화성과 인간성을 높여주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문학예술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술어나 구호같은것을 라렬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여야 한다.

병사휴양소

박창민

예가 정말 천하절경이로구나
풍치 아름다운 호수가휴양소!
예가 바로 나를 기다려
문을 활짝 열어제낀
병사휴양소로구나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듯
두팔을 벌리고 마주보는
휴양각의 부드러운 저 모습
사랑의 휴양소로 나를 불러주신
자애로운 그이품인가

창가에 흘러드는 저 햇빛
조국땅 그 어디에 있어도
따사로이 빛발쳐오는
향도의 해발인가

소년단시절엔 작은 이 손에
야영권을 쥐여주시고
병사시절엔 아무런 군공도 없는
상등병의 이 손에
휴양권을 쥐여주신
친근하신 그이를
예서 한번 뵈웠으면!

찌는듯 무더운 오늘도
건설장에서 하루해를 보내시는
그리운 그이께서
다문 한나절이라도
여기 오시여
병사들과 함께 휴식을 하셨으면!

가렬한 전화의 그날
화선휴양소를 세우시여
전사들을 불러주시던
수령님의 그 사랑을 이어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병사휴양소를 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 휴양의 날을 기다려
기쁜 마음 안고 달려왔건만
선뜻 들어설수 없구나
그이께서 지금도 그 어느 건설장에 계시려니...

어서 오라 반겨주는
사랑의 집이여
세계에 너 하나뿐인
오, 병사휴양소여!

전승의 그날처럼 덩굴고싶소

문동식

김일성 광장 높은 연단우에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을 높이 모신 오늘
거리와 거리에 넘치는 환호
대하같이 굽이치는 감격의 파도...

인민군창건 60돐경축
경사로운 력사의 이날에
락동강 불비속을 함께 헤쳐온
그대와 나 50년대 로병들이
여기 열병연도에서 또다시 만났으니

아, 전우여
나의 옛 벗이여
내 눈엔 방불히 보여오는구려
전승의 소식에
그대와 나 얼싸안고 덩굴던
1211고지 격전의 그 언덕이
식지 않은 파편과 탄피들이 깔렸건만
그래도 우리는 그우에 덩굴었지

한포기 풀도 없는 타버린 흙이여도
포근한 요람인듯 마음껏 덩굴며
우리는 그날 목메여 불렀댔지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전우여
나의 옛 벗이여

어쩐지 오늘도 덩굴고싶소
우리의 젊으신 강철의 령장
사열의 높은 단상우에서
3천리강토에 해빛을 뿌리시니

내 몸은 벌써 남해가에 닿은듯
오랜 세월 눈비속에 메고온 배낭도
단단히 조여맨 군화도 벗어놓고
그대와 함께 덩굴고싶소
땀젖은 가슴을 시원히 식히며

정녕 덩굴고싶소
하늘땅에 넘치는 통일의 열풍에
남해가의 백사장이 달대로 달아올라
흰모래 알알이 불이 된대도
그 불에 이 몸 녹아 물이 된대도
그래도 나는 그우에 덩굴겠소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주신
겨레의 소원과 갈망을 풀어주신
그이께 드리는 감사에 사무쳐
그이의 전사된 흠모에 불타서

아, 나는 그날 오면
그대와 함께 덩굴며
전승의 그날처럼
감격에 북받쳐 목메여 부를테요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를

가사

더 높이 들자 혁명의 군기

정성환

백두산의 설한풍 스민 우리의 군기는
그이 모신 영광에 넘쳐 펄펄 날린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더 높이 들자 혁명의 군기

전선천리 포연이 서린 우리의 군기는
그이 명령 받드는 길에 높이 날린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더 높이 들자 혁명의 군기

자랑 많고 위훈도 많은 우리의 군기는
그이 뜻을 빛내여가며 앞에 날린다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더 높이 들자 혁명의 군기

보금자리

-이 글을 남편과 함께 한생을 조국보위에 바쳐가는 군관의 아내들에게 드린다-

박춘섭

령감의 하늘소발통같은 웅고집때문에 봉녀는 요즘 이래저래 속을 태우고있었다. 30년 비행사 복무를 마치고 군복을 벗은 령감이 한동안 죽지 부러진새처럼 어깨가 처져다니더니 어디 가서 들쭈서있는지 또다시 비행기를 탄다는것이였다.

《여보, 당신 정신나가지 않았소? 예순다섯에 어떻게 또 비행기를 탄다구 그래요?》

《왜 못탄다구 그래, 이래두 아직 항공체육단의 비행기쯤은 눈감구두 탈수 있어.》

《어이구, 좀 고집부리지 마시우. 아들을 넷이나 하늘에 띄워놓았으면 뻗지 뭐가 부족해서 맨날 하늘, 하늘...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하늘에다 집을 짓구려.》

《지으라면 못질줄 알구. 기둥을 못세워서 그러지. 여보 로친네, 내가 하늘을 떠나서 못산다는걸 잘 알면서두 그러우?》

《그렇지만서두 이젠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어쩔다구 자꾸 나이타령이야. 이보라구, 인생은 마라손과두 같은거야. 마감속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요. 알겠소?》

애초에 령감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했던 봉녀가 잘못이였다.

령감은 정말 청춘을 되찾은듯싶었다.

봉녀는 억지로라도 그 기분을 맞춰주는수밖에 없었다. 이제 기껏해서 일이년, 그때가서는 아마 령감이 스스로 날개를 접을것이다.

그런데 며칠동안 출근해보면 령감이 신중한 어조로 어쩐지 몹시 갑자르면서 말하는것이였다.

《여보 로친네, 아무리 생각해두 안되겠어.》

봉녀는 바짝 긴장해졌다.

《뭘가 안된다는거예요?》

《암만해두 비행장걸로 이사를 가야 될것 같아.》

《뭘요? 이사를요?》

《아침에도 그래 저녁에도 그래 들락날락했더니 손님으로 된것 같아서 틀렸거든.》

봉녀는 미처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불시에 노여움이 콧구멍으로 오르며 목구멍이 알알해온다. 이제와서 세간살이를 쫓겨가지고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령감이 야속했다.

령감은 말없이 담배 한대를 다 태우더니 변명 비슷하게 웅얼거렸다.

《그저 잠깐 타보고 내릴 사람처럼 시내에 집을 두고 왔다갔다하자니 남보기 미안해서 안됐더라단 말이요.》

그 말에 봉녀는 그만 약이 올랐다.

잠간 타고 내릴 사람이 아니면 한생을 비행기 우에서 마치겠다는 말인가.

그건 그렇고 가정생각은 꼬물만치도 하지 않는 령감이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대학공부를 해야 할 막내는 어떻게 하며 낫설은 새고장에 가서 령감이 하늘에 뜨고나면 늙은게 혼자 멍그렇게 앉아서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인가.

령감은 잠시 덤덤히 있더니 더 말없이 옷방으로 올라갔다. 그것으로 이야기는 끝났다.

그런데 그다음날부터 령감은 더 일찍 출근했고 밤에도 더 늦어서야 돌아오기 시작했다. 때로는 며칠씩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군하였다.

그런 날이 한주일 두주일 계속되자 봉녀는 저도모르게 안정을 잃고말았다. 무언가 죄스러운 감정이 갈마들면서 일손이 잡히지 않았고 까닭없이 불안스러워지기도 했다. 어차피 이사를 해야 할것같은 예감에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대로 조금씩 꾸리다가는 또 손맥이 풀려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기게 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다른것은 다 잊혀놓는다고 해도 막내의 일은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

막내이만은 슬하에 끼고있으면서 마음껏 공부도 시키며 락을 보고싶은것이 봉녀의 심정이였다. 네아들은 끝끝한 비행사가 되었으니 더 바랄게없었고 막내만 공부시켜 한살림 잡아주고나면 그까짓 이사를 백번 한대도 아쉬울것이 없을상싶었다.

이래저래 바재이며 오늘도 봉녀는 빈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생각을 다잡고 이사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인젠 세칸짜리 아래옷방에 빼곡이 들어찬 세간살이들에 아픔이 벌어 어느것부터 손댔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다.

문득 봉녀의 눈길은 아래방구석에 놓여있는 헌대식가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께짝에 머물렀다. 저 께짝우에 새살림의 첫기쁨과 행복이 없혀지던 때가 언제였던가? ...

령감의 말마따나 인생이라는 긴긴 《마라손》의 첫걸음부터 지금껏 따라온 께짝이다.

이젠 벌써 오래전에 아무런 쓸모도 없이 되어 버렸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구들의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아마도 그 께짝이 봉녀의 한생과 이어져있기때문일것이다. 그 께짝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장으로 옮겨가고 또 떠났던가.

퀘짝과 함께 자리잡았던 보금자리가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데인들 없었으랴! 미처 정불일 사이없이 훌 떠나버린 그 수많은 고장들을 기억할 수도 없었지만 그 어디 가나 반가이 달려나와 저 퀘짝을 맞들어주던 정다운 이웃들만은 기억에 생생하였다.

퀘짝을 보고있노라니 문득 그때에도 내가 남편 따라나서며 지금처럼 바재였던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두드리며 스며든다.

벌써 40여년도 더 지나간 멀고먼 시절, 첫살림의 나날... 허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서지 않고 추억의 이끼를 헤집으며 어린시절이 흘러간 심심산골 부엌끝마침내 거슬러 가닿았다.

아마도 남편과 잇닿은 봉녀의 《인생마라손》이 저기서부터 시작되어서인지...

×

부엌끝마침내 솟가마에서는 참나무장작이 활활 타번지고있었다. 가마굴뚝이 미어지게 쏟아져나오는 재빛연기가 개울수면위에 낮추 떠서 꿈틀꿈틀 기여간다.

가마아궁앞에서 봉녀가 가느다란 종다리에 흠을 묻히며 부어놓은 진흙을 밟고있다.

《애야, 채우 다그쳐라. 이젠 거의 익었다.》

길다란 불갈구리를 가지고 가마안을 쭈시던 할아버지가 매운 연기에 짓눌려 짹 쉬어버린 목소리로 봉녀를 재촉한다.

《다 됐어요.》

온통 검댕이와 진흙에 게발리고 더위에 익은 두사람은 얼핏보면 태고적의 원시인들 같았다.

《애야, 됐다.》

할아버지가 쥐고있던 불갈구리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봉녀는 얼른 새초를 섞어서 큼직큼직하게 빚어놓은 진흙덩어리를 안아다가 아궁에 철썩 던졌다. 할아버지는 연방 봉녀를 재촉하며 날라온 진흙덩이를 연신 아궁앞에 쌓는다. 열기가 빠지지 않게 순식간에 아궁을 막아야 하는것이다.

《이번엔 한 여라문섬 잘 건질것 같구나.》

아궁을 다 막자 할아버지는 뼈가 앙상한 가슴을 헐썩거리며 말한다.

숲속 어디선가 삐죽새가 한가하게 울고있다. 그제사 봉녀는 서느러운 숲속에 메아리치는 온갖 새소리며 주절대며 흐르는 개울물소리를 들었다.

이런 나날이 몇달이었던지 혹은 몇년이었던지 봉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마지막 솟구이를 하던 일만이 또렷이 떠오를뿐이다...

할아버지는 이 가마까지만 구워내고는 솟구이를 그만두고 썸터집이랑 있는 끝짜기아래에 내려가 살자고 했다.

솟가마에서 한 10리가량 내려가면 두집이 살고 있었다.

썸터집엔 봉녀보다 두살 우인 첫째네가 동생 셋을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고 작년에 들어와 보짐을 풀어놓은 전라도 집엔 두 내외가 첫 먹이애기를 데리고 산다.

첫째네 아버지는 두해전에 어데론가 떠나갔는데 말로는 돈을 벌러 갔다고 하지만 실상은 왜놈 치러 유격대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것은 첫째가 봉녀에게만 가만히 귀띔해주었는데 죽어도 비밀에 붙이기로 손가락을 백번도 더 걸은것은 물론이었다.

봉녀는 짬만 있으면 첫째네 집에 놀러가곤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다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봉녀를 끔찍이도 사랑해주었다. 그 인정에 끌리어 늘 제집처럼 무릅없이 찾아가곤했다.

이제 이 솟만 꺼내서 팔고나면 모두 모여 한곳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봉녀의 도두룩한 입술은 저도 모르게 방긋 벌어진다.

《벌써 다 됐었나요?》

불쑥 등뒤에서 말소리가 울린다. 봉녀가 와들놀라며 뒤돌아보니 찌리로 엮은 솟섬을 끝박아지게에 진 첫째가 서있다.

《첫째가 왔나?》

할아버지는 입귀에서 대통을 뿜으며 반가와한다.

《예, 남은 솟도 마저 저내갈끔 빨리 온다는것이 늦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대통에 담배를 담더니 문득 봉녀에게 말했다.

《애야, 첫째하구 같이 썸터집에 먼저 내려가거라.》

《거긴... 왜요?》

《오늘이 첫째네 막내가 첫돌이라는구나.》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는요?》

《난 꼴도 좀 따구 웅노도 돌아보고 천천히 내려가겠다.》

첫째가 어서 가자는듯 앞서 걷는다.

봉녀는 부엌에 들어가 좁쌀 두어되를 궁저가지고 나와 첫째를 따라섰다.

《먼저 앞서가.》

《왜?》

《가라는데두.》

봉녀는 개울물에 내려가 얼굴을 씻기 시작하였다. 한동안 휘적휘적 걸어내려간 첫째는 우뚝 멈춰서서 봉녀를 기다린다. 봉녀가 가까이 오자 첫째는 지게작시미로 풀숲을 한번 후려치고는 말했다.

《이젠 좋지?》

《왜?》

《이사내려오게 됐으니 말이야... 이제 이사오면

우리 집 옆에 집을 지어 응? 우리 엄마가 벌써 집자릴 봐줬어.》

《그래?》

《참, 우리 집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어.》

《정말?》

《정말 아니문, 벌써 새끼가 가나왔는데 뭘.》

《야, 그것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가?》

《글세말이야, 이제 봉녀네가 이사오면 명년에는 거기다두 둥지를거야.》

《그렇가?》

동기와를 넣은 첫째네 집 처마밑엔 정말 제비 둥지가 있었다. 갓 까나온 제비새끼들이 새노란 테두리가 달린 주둥이를 짹짹 벌리며 대가리를 내젓는것이 여간 귀엽지 않다.

그날저녁, 첫째네 집은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전라도집에서는 국수분들까지 메고와 농마국수를 늘렸고 할아버지가 웅노에서 벗겨온 토끼 두마리까지 튀어서 뜯김 서린 부엌엔 제법 구수한 냄새까지 풍겼다.

각박한 세상에서도 이런 인정이 있어 고달픈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가는것이 아닌지...

저녁상을 물린 할아버지는 대통을 빼금빼금 빨며 토방에 앉아 흥부네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자 음침하고 광막한 겨울의 세계를 밀어내고 살며시 찾아든 제비에게 저마다 제 나름의 은근한 기대와 막연한 희망을 담아보았다.

《금년엔 샘터집에서 감자말이나 파고심었으니 그럭저럭 살림이 께이게 됐수다. 애들두 이젠 다 컸겠다 땅마지기두 일켰겠다. 아마 저놈의 제비두 그걸 알구 여기다 보금자리를 정한게 아니겠쥬까.》

《글쎄요.》

첫째네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어렸다. 오래간만에 보는 첫째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왜 그리도 어린 가슴에 아름답게 새겨졌는지...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봉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숲구이막으로 올라왔다.

자리에 누워서도 봉녀는 이사가서 함께 모여살 그날을 그리보며 뒤척이다가 늦게야 잠이 들었다.

새벽무렵, 갑자기 골짜기에 메아리치는 총소리에 놀라 봉녀는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총소리냐?》

할아버지가 헤덤비며 문을 열어젖혔다. 밖에 나선 봉녀는 기겁하여 소리를 질렀다.

《할아버지, 저기 샘터집골쪽에서 불이 붙어요.》

《뭐라구?》

베적삼을 걸치며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넌 여기 있거라.》

《싫어요.》

봉녀는 무작정 할아버지를 따라나섰다.

총소리가 몇방 더 나더니 조용해졌다. 세차게 타번지는 불길에 골짜기의 우중충한 살벼랑이 거꾸로 드러난다.

돌뿌리를 걷어차며 샘터집에 거의 이르니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봉녀는 무서운 예감에 사로잡혀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마지막 벼랑굽이를 도는 순간 봉녀는 그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샘터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불길이 어룡 거리는 마당가에서 터져나오는 애끓는 울음소리가 봉녀의 가슴을 섬찟하게 찌른다. 마당 한복판에서 첫째네가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다. 샘터집어머니는 이미 숨져있었다. 안고있는 애기까지도.

봉녀는 너무나 참혹하여 그자리에 폴짝 주저앉아버렸다.

할아버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우들우들 떨며 그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첫째네 3형제는 마당가에 서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와락 매달린다. 점점 더 커만가는 첫째네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우중충한 숲속으로 메아리친다.

그들의 토막말에서 왜놈들이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았느냐고 따지고들더니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죽였다는것을 겨우 알수 있었다.

날이 밝기 시작했다. 뜨는 해마저 얼굴을 가리워버린 음산하고 침울한 아침이었다.

할아버지는 설움에 녹아붙은 첫째네를 가까스로 떼어내고 샘터집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일어섰다.

《그만 하거라. 눈도 못감은 네 어미를 편히 눕혀야 하지 않겠느냐. 눈물은 흘리는게 아니라 삼키는거다.》

봉녀네 집에 와서 사흘밤 사흘낮을 꼬박 새운 첫째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떠나겠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줄 알구 찾아간단말이야?》

《알구있어요.》

첫째가 짹 잡겨버린 목소리를 가까스로 짜낸다.

《며칠전밤에... 아버지가 왔댔어요. 나하구 어머니밖엔 몰라요. 가을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놈들이... 그래 그 먼델 갈수 있겠니?》

《가겠어요.》

첫째의 눈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 며칠사이에 무섭게 변해버린 첫째였다.

봉녀와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돌아보고 내려가던 첫째는 불타버린 집터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비에 씻겨내린 집터엔 타다남은 서까래만 앙상하게 남아있을뿐 추억에 남을것이란 아무것도 없

었다. 마당가의 미루나무도 한절반 그슬렸는데 그가지 한끝에서 털이 까시시해진 어미제비 두마리가 재가루 날리는 집자리를 내려다보며 구슬프게 울고있었다.

꿀짜기를 빠지고 산굼이를 두개나 돌 때까지 그냥 따라서는 봉녀를 첫째는 우격다짐으로 때놓았다. 동생들이 멀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첫째는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어 봉녀의 손에 쥐여주었다.

《이걸… 봉녀가 건사해줘.》

샘터집어머니가 낭자에 꽃고 다니던 돗비너다. 봉녀는 선뜻 받을수 없어 망설였다.

《동생들이 보면 어머니 생각할까봐… 봉녀, 내 쪽 다시 올테니 기다려.》

멀어져가는 첫째네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봉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

설움많고 수난많은 고된 세월의 매돌은 돌고돌아 어느덧 5년세월이 흘렀다. 그 모진 세월의 우박속에서 봉녀는 할아버지까지 잃고 홀로 남았다. 그때는 이미 마을이 십여호나 되었다.

정불을 일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고장이였지만 뜨지 않았다. 설사 뜨고싶어도 갈데가 없었다. 봉녀는 묵은 등지에 홀로 남은 어린 새나 다름없었다. 기다려달라던 첫째의 말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첫째가 떠난 다음해에도 제비는 왔었다. 그 기간 해마다 찾아왔다. 그러나 첫째에게서는 소식이 울줄을 몰랐다.

《그애가 뭐 찾아오겠나? 살불이도 없는 여기에…》 하고 전라도집에서는 말했으나 봉녀는 기다렸다. 첫째가 마치 제비처럼 불쑥 나타날것 같았다.

해방이 되었다. 작은 마을도 환희로 들끓었고 기쁨이 많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매일매일이 첫째의 소식을 날라다줄것만 같은 나날이었다. 그러나 소식은 없었다. 정말 첫째는 영영 가버린 것일까? 저 제비도 지난해의 그 제비가 아닐지 모른다. 사람의 눈에 같은 제비로 보일뿐이지. 하루 또 하루… 새라새로운것을 안겨주는 나날이 흘렀다. 봉녀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가고있었다.

한해가 지나갔다.

첫째네가 일켰던 감자밭에서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나는무렵, 전라도집이 봉녀가 김을 매고있는 등성으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봉녀야!》

김을 매고있던 봉녀는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 머리에 썼던 수건을 활 벗고 귀를 기울였다.

《첫째가- 왔다-!》

《누구라구요?!》

봉녀는 쥐고있던 호미를 땅에 떨어뜨렸다. 불시에 가슴이 후두둑 뛰며 눈물이 앞을 가린다.

종아리를 휘감는 억새풀을 걷어차며 집으로 뛰어가니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던 첫째가 이쪽으로 돌아섰다.

《봉녀!》

《…》

봉녀는 그만 그자리에 폴짝 주저앉으며 두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어.》

봄벌처럼 따스한 첫째의 정겨운 목소리가 봉녀의 가슴을 두드린다. 엉키고 쌓였던 설음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듯 봉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건잡을수 없이 새어나왔다.

《그래도…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봉넬 데리러 왔어.》

《예?》

봉녀는 어리둥절해서 첫째를 바라보았다.

썩 벌어진 어깨 미끈하게 흘러내린 땀방울을 꼭 잡아준 군관혁피며 장화, 머리에 얹은 등글모자에 달려있는 반짝거리는 모표…

《어데루요?》

《어데긴? 내가 있는데지.》

《거긴 왜요?》

첫째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다.

《왜라니? 거야 저… 그…》

봉녀는 그의 붉어진 얼굴을 보자 숨이 콕 막히는것 같았다. 가슴이 활랑거리고 아무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첫째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깨달았던것이다. 봉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말았다. 그때 머리우에서 파리를 부는듯 울리던 제비소리…

그날밤 마을에서는 그들의 소박한 성례를 치러 주었다.

《봉녀, 난 5년세월 어느 하루도 재무지만 남은 집터를 잊은적이 없었소.》

그날밤이 깊었을 때 첫째는 봉녀에게 말했었다.

《해방이 되자 선참으로 군복을 입었소.》

《저, 그건 뭐나요? 모자에.》

봉녀는 벽에 걸려있는 첫째의 등글모 언저리에 있는 표식을 보며 물었다.

《비행사라는 표식이요.》

《비행기를 타나요?》

《그렇소. 옛날 감자바우 첫째가 비행사가 됐소. 장군님께서 다시 찾은 내 나라를 잘 지키라고 비행기를 태워주셨단 말이요.》

첫째는 하늘을 그리안울듯 두팔을 힘껏 내뻗었다. 그 옛날 눈물을 씻으며 멀어져가던 첫째는 어디로 가고 이렇듯 열정적이고 의젓한 사람이 불쑥나타났는가? 애정과 선망이 가득 실린 얼굴로 첫째를 바라보는 봉녀의 눈에서도 또 눈물이 솟구친다. 아마도 눈물만이 봉녀의 가슴에 깃들어있는 사랑과 믿음, 희망 그 모든것을 대신해주

는 유일한 수단인듯싶었다.

《또 우오?》

《난 여전히 울보예요.》

《그럼 난?》

《거기선... 제비.》

《제비라 웁소. 난 제비요. 자, 그럼 봉녀. 제비 따라 강남으로 가보기오.》

이튿날 봉녀는 세간살이 전부를 전라도집에 넘겨주고 토기장사기 하나만 보자기에 싸다. 가난한 살림에도 하루 세끼 빼놓지 않고 밥상우에 땡그랗게 올라앉던 장사기다.

백년천년 행복하게 살라는 축원을 받으며 봉녀는 떠났다.

새생활의 보금자리가 봉녀를 기다리고있었다.

×

갑자기 불어난 새살림때문에 부대에서는 비형 장옆에다가 림시로 바라크집을 지었다. 길다란 집한동에 여덟세대가 동시에 들었다. 봉녀네는 세번째집이 차례졌다. 이사집이라야 부대에서 일식으로 만들어준 이불한채에 가마 둘, 사발 몇개가 전부였다.

저녁에 남편이 상자를 하나 메고들어왔다. 무슨 수자와 알지 못할 글자들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자를 보고 봉녀는 물었다.

《그건 뭐예요?》

《농작이요.》

《농작이요?》

《농작이라는데 별거요?》

남편은 껌작을 구석에 놓고 그우에 이불을 얹어놓았다.

《여기에 봉여자물쇠만 척 걸어놓으면 농작이지!》하고 그는 두손을 마주비비며 껄껄 웃어댔다. 봉녀도 따라웃었다.

《어에서 가져왔어요?》

《가져오다니? 내가 만들었소. 빈 탄약상자를 붙여서, 어떻소?》

봉녀는 못대가리들이 별처럼 반짝거리는 껌작을 가만히 보다가 생긋 웃었다.

《좋아요. 정말...》

이것이 그들의 가정에 생긴 첫가구였다.

이튿날 봉녀는 백로지를 얻어다가 껌작에 곱게 발랐다. 꽃종이까지. 가운데 오려붙이니 남편의 말처럼 자개 박은 농작 부럽지 않았다. 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한지붕아래 첫 살림을 시작한 여덟집모두가 봉녀네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곳곳에서 봉녀처럼 《제비따라 강남까지 온》 새색시들은 며칠동안 문밖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만 열고 나서면 병영마당이고 올라리없는 뒤쪽은 드넓은 비행장과 잇닿아있었다.

잠시도 그칠새없는 군인들의 래왕에 새색시들은 부끄러워 빨래도 집안에서 하였다.

바라크집의 조그마한 띄창문을 저마끔 제식으로 가리워놓고 낮이면 그 한귀통이를 조심히 비집고는 바깥세상을 구경하곤했다. 그러나 남편들이 비행기를 타고 대지를 구르며 우람차게 하늘을 날아오르면 새색시들은 부끄러움도 다 잊고 띄창을 활열어젖힌채 정신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이것을 본 익살꾸러기 총각비행사들이 리룩할때 들꽃묵음을 몰래 좌실에 감추고 올랐다가 비행장을 선회하면서 바라크집 상공에 뿌렸다. 하늘에서 들국화꽃송이가 쏟아져내렸다. 새색시들은 저마다 환성을 올렸다. 병영마당에서, 활주로우에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때에야 새색시들은 자기들을 바라보고 서있는 술한 군인들을 보았다.

모두 가벼운 비명을 지르며 조그마한 띄창문을 황급히 닫는다.

《아! 생활이란 얼마나 억세고 아름다운것인가!

봉녀는 두군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당에 떨어진 들국화 꽃 하나를 주어다 병에 꽂았다. 부엌끝막바지에도 한벌 깔리던 들국화였건만 봉녀는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흰구름이 등실 뜬 파아란 하늘 한끝에서 은빛날개가 해빛에 반짝인다. 저렇게 높이 날아오르면 어디까지 보일까?

(여보, 부엌끝이 보여요?)

(보이오. 부엌끝두 보이구 당신도 보이고 다 보이오!) 남편의 대답소리가 아득한 하늘가에서 울려오는듯싶었다.

그날저녁, 봉녀는 새로 담근 토장에 햇감자를 썰어넣고 끓인 장사기를 상에 놓았다. 밥상에 마주앉은남편은 보골보골 끓고있는 장사기를 보자 환성을 질렀다.

《이거 우리고장 특산물이구만. 이 좋은걸 나 혼자 먹을수야 없지.》

남편은 벽쪽으로 다가가 판자벽을 푹푹 두드렸다.

인차 응답이 왔다.

《왜 그러나?》

《여 김동무, 좀 오라구. 우리 집에 특식이 생겼네.》

《특식? 그러면 가야지!》

김동무라는 사람은 또 자기의 이웃에 통방을 했다. 그다음집은 또 그다음집에...

그러다보니 잠시후에는 여덟집 세대주가 한자리에 모여앉게 되었다.

《무얼 해놓구 청하는지요.》

《어이쿠, 구수한 냄새가 나는군.》

바빠난것은 봉녀였다. 토장장사기 하나를 놓고 엄청난 일을 벌려놓은 남편이 야속했다. 봉녀는 미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이때 부엌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1호집(동네에서는 부르기 간편하도록 매 집에 번호를 붙여놓았다.) 새색시가 치마폭에 싸안고 온것을 꺼내놓고는 나갔다.

뒤이어 4호집, 5호집... 결국 일곱집들에서 저마다 뭔가 들고와서 제법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누군가가 뒤꽂무니에 찌르고온 《목이 긴놈》도있어 비좁은 바라크안엔 웃음과 즐거운 룡담이 짙었다.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웃음소리도 저렇게 시원스런운가!

부엌에서 동자질에 바쁜 새색시들도 옷방의 윤패한 분위기에 휩쓸려 얼굴마다엔 행복스런 미소가 잔줄거린다.

남편이 뜻밖에도 오늘저녁의 《성대한 연회》가 새집들이 연회라고 선포하는바람에 봉녀가 붙잡혀올라왔다.

노래를 부르라는것이였다.

너무도 부끄러워 파리처럼 빨갛게 익은 얼굴을 쪽 숙인 봉녀는 웃고름만 매만졌다.

그가 언제 노래를 불러본적 있었던가. 그의 마음을 짐작한 남편이 먼저 노래를 시작하며 따라부르라고 눈을 꾹쥘했다.

정이월 다 가고 삼월이라네

어린시절에 부르던 노래였다.

봉녀는 화끈 달아오르는 얼굴을 가까스로 쳐들고 따라불렀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며는

...

락엽을 동동 띄우고 고요히 흐르던 산골짜 깊은곳의 시내물 그우에 비졌던 솟검댕이로 얼룩졌던 자기의 얼굴... 기다림속에 흘러갔던 5년세월, 제비가 올 때마다 희망을 안고 바라보다가도 제비가 날아갈 때면 함께 가지 못하는것이 한스러워 눈물로 적시던 나날... 그 나날에 이 노래를 불렀던가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며는... 돌아오며는...

봉녀는 언제부터 자기가 노래를 부를대신 울고있었는지 몰랐다.

그 시절 그런 눈물을 모를 사람이 누구였으랴. 남편의 전우들이 그가 못다한 노래를 이어불렀다.

이 땅에 또다시 봄이 온다네
온다네-

참으로 이 땅에는 봄이, 봉녀의 생활에는 봄이 온것이였다! ...

그런밤, 그런날들이 있어 바라크집의 새색시들

은 인차 군대생활에 습관되었고 네것내것이 따로 없는 한식술처럼 살았다. 서로 판자벽을 두드리는데 《통방》신호도 성차지 않아 누군가 쥐꼬리톱으로 벽구석을 도려내고 거기에 조그마한 피창문을 달아놓았다. 여덟집이 모두가 그렇게 했다. 그 구멍으로 책, 음식그릇, 다리미 등 별의별것이 다 오갔다. 하물며 낫말은 새가 들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가정비밀이야 감춰진것이 무엇이 있었으랴!

구래여 감추고 살것이 없고 감추고싶지 않은 생활이였다.

그 이듬해 봄 그들은 비행장과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아담하게 지은 새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지어는 아쉬워하기까지 하였다. 첫 살림의 보금자리를 뒀던 바라크집은 허물어버리고 그자리에 배구장을 닦았다.

새집들이와 함께 봉녀는 첫 애기를 낳았다. 고추달린 사내애가 태어났다고 남편의 친구들이 저마끔 한가지씩 들고 찾아왔다. 세발자전거, 장난감권총, 쌍안경... 누군가는 여벌로 가지고있던 비행모를 가져다가 애기의 머리말에 놓았다.

봉녀는 돌아앉아 조용히 웃고름으로 눈물을 씻었다.

새집에 이사와서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드물어졌다. 기다리는 밤 남편없이 지내는 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로할수 있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밤이 하루이틀 아니게 계속되니 야속함과 노여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무리 바쁘다한들 집에 들어올 사이도 없을가?

기다릴 땐 그렇게 노여움이 들다가도 정작 들어오면 그 모든 생각이 언제 있었던가싶다.

오래간만에 들어온 남편은 그사이 또 몰라보게 자란 아들을 번쩍 안아 쳐들고 한바퀴 빙그르르 돌았다.

《이녀석, 어디 보자, 어이쿠, 벌써 이발이 나왔군. 응?》

《이발이 나온지 언제예요. 애가 이제 아버지얼굴 잊어버리지 않나 보라요.》

《영남아, 엄마가 아버지를 비판하는구나 응? 어떻게 한다?》

봉녀는 웃고말았다.

《여보, 우리 집에 제비가 등지를 틀었어요.》

《그래? 고것들이 기와두 채 올리지 못했는데 등지틀었나?》

《당신은 언제부터 넣는다는 기와를 마당에 쌓아놓구두... 제비보다두 못해요.》

《그때때문에 오늘저녁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소?》

그들부부는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지붕에 기와를 얹었다. 그날저녁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던

가. 그런데 기와를 다 없자 남편은 손을 씻더니 다시 군복을 입는것이였다.

《아니? 어데 또 나가세요?》

봉녀의 물음에 남편은 빙그레 웃었다.

《요즘 정세가 매우 긴장해졌소. 그래서 나가봐야 하오.》

《그 말을 왜 이제사 하나요? 편히 쉬시다 나가요 모르겠는데.》

봉녀는 뽀로통해졌다. 그것을 보고 남편은 도리어 껄껄 웃었다.

《이게 휴식이지... 래일저녁엔 꼭 들어오겠소.》

그러나 봉녀는 다음날 들어오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을수 없었다. 정세가 긴장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다음날 뜻밖에도 저녁이 되기전에 남편이 들어왔다.

《아니? 오늘은 어떻게?...》

《내가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남편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나서 처마밑을 올라다보았다.

《제비둥지가 다 뚫구만.》

《벌써 알을 낳을것 같아요.》

봉녀가 말을 이었다.

《그럴테지.》 그러던 남편은 웬일인지 새삼스러운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더니 전혀 뜻밖의 말을 했다.

《여보, 짐을 꾸려야겠소.》

봉녀는 웬일인지 몰라 눈을 크게 떴다.

《짐을 꾸리다니요?》

《이사를 가야겠소.》

《이사를요? 어디루요?》

봉녀는 눈물부터 앞섰다. 얼마나 품들여 꾸려놓은 집이라구 이사를 간단말인가.

봉녀는 한참 지나서야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정말 가야 하나요?》

남편은 봉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군관의 아내가 아니요? 군관의 안해는 군인이나 같소. 어떤 명령이나 <알았습니다> 한마디밖엔 몰라야 하오. 한달에 서른한번 이사를 가라고 해도 명령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하오.》

그때부터 시작되였다. 한달에 서른한번은 몰라도 때로는 일년에 5~6번 이사집을 꾸려야 하는 생활이... 오죽하면 다섯아이의 출생지가 모두 다르고 봉녀의 공민증에는 《거주, 퇴거 등록장》이 모자라 딱한 처지에 빠지군했으랴... 그러나 그렇다고 불만스러웠던적은 없었다. 웅당한것으로 여기고 습관되어갔으며 지어는 자랑과 긍지까지 느꼈다.

언젠가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오른다. 몇번째 이사였는지 그때 새로 이사해서 살림을 펴놓았을 때는 한창 봄철이였었다.

그곳에 가서도 남편과의 오붓한 생활은 많지 못했다. 노상 부대에 나가 사는 남편은 집보다 하늘에 더 정을 붙이는것 같았다.

집안살림은 전적으로 봉녀의 손끝에 달려있었다. 남편은 집안일에 영 무관심하였다. 그럴수록 봉녀는 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터밭도 일꾸고 돼지우리도 짓고, 될수록이면 남편의 손이 덜 미치게 하려고 살림살이를 이악하게 했다.

봉녀는 터밭에 심고 남은 콩종자를 그냥 없애기 아까와 비행장근처의 공지를 두지고 심어놓았다. 남편이 그토록 좋아하는 토장을 래년에는 듬뿍 담가놓고 이웃에도 나누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니 성수가 났다. 워낙 땅이 걸어서 그런지 심기가 바쁘게 썩이 움터나왔다. 실하게 솟구쳐오르는 콩포기를 보는 봉녀의 마음도 기뻐다. 남편 모르게 흘리는 땀방울이 자랑스러워 마음이 흐뭇했다.

어느날 밤 늦게 돌아온 남편은 밥사발을 절반도 축내지 못하고 상을 밀어놓았다. 어쩐지 여느때보다 기분이 좋지 않은것 같아 봉녀는 은근히 마음을 조였다. 봉녀가 설것이를 끝내자 남편이 찾았다.

《여보, 당신이 저 비행장옆에 콩을 심었소?》

《네.》

《당신 정신있소?》

뜻밖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뭇가 부족해서 거기에다까지 콩을 심는가말이요, 웅?》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갔다. 토방에 세워놓았던 삽을 들고는 콩밭으로 씨엉씨엉 걸었다. 그리고는 한창 잎이 돌아나는 콩포기를 결단내기 시작하는것이였다.

《여보!》

남편은 계속 파란 콩포기들을 따라가며 두쳐놓기만 할뿐이다. 봉녀는 더 참을수가 없어 남편의 손에서 삽자루를 빼앗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은 모르겠소?》

《...》

남편은 삽을 빼앗으려고 했다.

《제가 하겠어요. 내가 심었으니까요!》

눈물이 삽자루를 쥔 손에 련이어 떨어졌다. 남편이 좋아하는 토장을 실컷 담고어보려고 아깝게 묵어나는 땅에 콩을 심은것이 잘못이었던 말인가. 마지막 그루까지 뒤집어엿자 봉녀는 그만에야 발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흐느껴울었다. 아속했다. 분했다.

문득 남편의 손이 봉녀의 등에 와닿는다.

《그만하오. 당신한테 차근차근 일깨워주지 못한 내가 잘못이었소.》

《...》

《그러나 당신도 알고있어야 하오. 비행장 주변에는 그 어떤 곡식도 못심게 되어있소. 콩을 심으면 썩이나 비둘기가 날아오고 날짐승들이 많으면 비행기가 날 때 부딪칠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 그러면 비행기는 파손되고 말거요.》

《예?》

봉녀는 미처 그런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럼 그것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번했는가. 남편과 그의 전우들을 생각한다는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서운 피해를 끼칠번하지 않았는가.

《그걸... 그걸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요?》

《됐소. 이제라도 알면 되는거지.》

《아니, 아니예요.》

봉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알면 되는것이 아니다. 미리 알고있어야 했다. 군인의 안해는 군인다와야 한다. 군인이여야 한다. 이것이 장군님을 모시고사는 조선인민군 군관의 안해로서 지녀야 할 품성이다.

그밤 봉녀는 터밭의 콩포기까지 모두 없애버렸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던 새소리가 그의 주위에서는 울리지 않기를 바랐다. 자기집을 비롯하여 비행사들의 집주변에는 제비도 깃들지 않기를 바랐다.

그 일이 있는 다음부터 봉녀는 남편을 대하기가 어쩔지 어려워졌다. 범상하게 대할수 없는 생활이 가정 하나에만 파문혀 살수 없는 사명감이 점차 선명하게 안겨오면서 주위환경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남편이 왜 집에도 미처 들어올 사이없이 바빠 살아야 하는것인지 이해되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이 래일이라도 당장일어날수 있다는것을 안 봉녀는 몸을 떨었다.

×

전쟁은 불시에 터졌다.

모든 생활이 총포탄과 불길속에 휘말려버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부대에서는 하루사이에 이미 마련해두었던듯싶은 고장으로 가족들을 이사시켰다. 비행장과 수십리 떨어진 산골이었다. 남편이 이사집을 자동차에 실어주었다. 그때에는 이미 가장집물이 퍼그나 늘었었다. 또 몇집이 한차에 싣다보니 집을 다 싣자면 자리가 모자랐다. 봉녀가 그 흰종이를 바른 껌을 들고나왔을 때 남편은 말했다.

《그걸 가져가선 뭘하겠소? 내버리고말지.》 사실 그것은 벌써 가구들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낡은 보잘것이 없는것이였다.

다만 첫생활의 웃음이 어렸던 그 껌짝이 마치 그들의 생활의 호신부처럼 느껴들뿐이였다. 껌짝의 한쪽모서리에는 절반 박아서 구부러진 못이

그대로 드러나있었다.

널판이 떨어진것을 봉녀가 박다가 그렇게 만들어놓은것이였다. 그것을 박으면서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던가... 그러나 이때는 그것이 한없이 귀중하게 여겨졌다. 봉녀는 이불장을 내리우고 그 껌짝을 싣었다. 남편도 그의 마음을 짐작한듯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만 말했다.

《내 걱정은 마오. 하늘에서 우리 비행기가 날면 내가 무사한줄 알구 소식을 기다리지 마오.》

남편은 멀어져가는 자동차에 대고 웃으며 손을 저어주었다. 그 웃음이 봉녀의 가슴을 가책과 불안으로 아프게 했었다. 남편을 더 잘 도와주었다라면 자그마한 집걱정도 하지 않게 해주지 못한것이 더욱 가슴아팠다. 헤어질 때에야 생활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것이 사람인지...

남편은 1년이 넘도록, 준엄한 전쟁의 첫해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여름이 올 때까지도 집으로 오지 못했다. 그러는 남편을 두고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운 밤은 그 얼마였던지 모른다. 남편에게서 때때로 날아오는 편지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편지는 매번 짧았고 건강한 몸으로 잘 싸우고있다는 말뿐이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헤어질 때에 하던 말 《하늘에 우리 비행기만 날면 무사히 잘 싸우고있는줄 아오.》라고 쓰곤했다. 봉녀는 남편의 편지를 굳게 믿었다. 그리고는 모든 시름과 걱정을 전선원호의 드바쁜 일감속에 묻어버렸다.

《영남이 엄마, 저기 영남이 아버지가 또 날아가요!》

아낙네들은 비행기만 보면 봉녀를 찾았다.

《영남아, 저것봐. 아버지다.》

세살잡이 영남이는 이마우에 고사리같은 손채양을 울리고 하늘을 쳐다본다.

《영남이 엄마, 하늘에서 뭐라구 해요?》

《우리 영남이가 수대 컷대요.》

《애개개, 색시 보구싶다는 소리는 안하구요?》

입심드센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져가는 비행기의 동음에 실려 하늘가 저 멀리로 날아간다.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날 뜻밖에도 집에는 남편이 나타났다. 그것은 남편에게서 편지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 날이였다. 남편은 편지에 언제나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 잘 싸우고있다고, 하늘에 우리 비행기가 날을 때면 난줄 알라고 써보내었던 것이였다.

봉녀는 승리의 축포가 오르기전에는 남편을 볼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운 정은 가슴에 소용돌이쳤다. 그날도 봉녀는 원호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끝내고 저녁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거의 다달았을 때 봉녀는 무춤 서버렸다. 난데없이 불이 켜있었던것이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모르고 마당에 들어섰다.

방문을 와락 쫓기고보니 남편이 와있었다.

《여보!》

눈앞이 삽시에 뿌옇게 흐려났다.

남편은 말없이 오래도록 봉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마음을 진정하고 봉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생한 흔적이 력력히 어려있어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영남이가 보고싶어서... 그러구 당신두.》

남편은 품에 안은 영남에게서 봉녀에게로 눈길을 들었다. 그러더니 무슨 말부터 물었으면 좋을지 몰라하는 봉녀에게 말했다.

《여보, 배가 고프구만.》

《아이, 내 정신봐. 잠깐 기다리세요.》

봉녀는 급히 부엌으로 나갔다. 손이 떨려 그릇이 잘 잡히지 않았다. 방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궁에 불을 지피고 가마를 가시면서도 정신은 방안에만 가있었다. 그런데 방안은 이상스레 조용했다. 남편이 지켜잡든것이나 아닌가 하고 사이문을 열던 봉녀는 그대로 서버렸다. 남편은 잠든 영남이앞에 돌부처처럼앉아 꼼짝 않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빈구석에 놓인 껌작을 굳어진듯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하얀 껌작우에서 봉녀의 어설픈 못질이 다분히 박힌 못대거리주변을 더듬는듯했다. 봉녀는 도로 부엌에 내려섰다. 남편이 인차 떠나가버릴것만 같았다. 그렇다. 남편은 곧 떠날것이다. 평화시גיע도 집에 들어오는 때가 드물었지만 들어왔다가도 인차 다시 나가군하는것이 레상사였던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때가 아닌가.

급하게 서두르는바람에 사발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빠져나갔다. 사발은 쟁가당소리를 내며 깨어졌다.

방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천천히 하오. 바쁠진 없으니.》

《예?》

봉녀는 사이문으로 들여다보았다.

《언제 떠나요?》

《머칠 있겠소.》

《...》

그 대답이 인차 떠나겠다는 말보다 더 가슴을 찢렁하게 했다.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것일까? 평화시기도 아닌 지금 머칠씩 집에 있다는것은 생각도 못해본 일이었다.

드디어 봉녀는 밥상을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그냥 그 자세로 앉아있었다.

《여보! 식사하세요.》

《응? 응 먹어야지.》

밥상앞에 나앉은 남편은 뜻밖에도 술을 찾았다.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못하는 사람이여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봉녀는 옆집에 가서 한병을 얻어왔다.

사발뚜껑으로 몰마시듯 단숨에 마셔버린 남편은 얼마 못가서 그자리에 쓰러졌다.

봉녀는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펴고 물먹은 솜처럼 나른해진 남편의 등을 받쳐 일켜세웠다. 봉녀는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헤쳤다.

《아니?!...》

너무도 끔찍한 상처자리가 여기저기에 나있었다.

어떤 상처자리에는 아직 그냥 봉대가 감겨있었다.

《여보!》

이틀전까지도 건강한 몸으로 잘 싸우고있다는 편지를 보낸 남편이 아니였던가.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되었을가, 상처는 벌써 오래전에 입은것이였다. 그런데 편지에는 계속 건강하다고만 해온것이다. 옷자락을 헤치며 더듬어보는 봉녀의 손에 두툼한 편지몽치가 쥐어졌다.

자기가 그동안 보낸 편지들이였다.

그 편지몽치의 맨우에 남편이 자기에게 보내려고했던모양 하루전에 쓴 편지도 나왔다.

봉녀는 편지를 펼쳐들었다.

《...나는 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잘 싸우고있음, 내 걱정은 조금도 마오.》

《아-》

봉녀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생사의 고비에서 헤매면서도 안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소식을 숨긴 남편, 좋은 소식만을 보내준 남편... 그런데 자기는 남편을 걱정시킬 소식만 써보내며 그저 기뻐하기만 하지 않았던가. 남편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도 모르고있는 자기가 무슨 군관의 안해란 말인가... 눈물은 흐르고 또 흘렀다. 가슴은 칼로 에이는듯 아팠다. ... 눈물로 그 모든 상처를 말끔히 가져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싶었다. 허나 그것을 바랄수 없었다.

군관의 안해에게 필요한것은 눈물이 아니였다.

그러면 무엇이...

새벽녘에야 정신을 차린 남편은 머리맡에 앉아있는 봉녀를 보자 억지로 웃어보였다.

봉녀는 남편을 어린애처럼 조심히 안아일으켰다.

《여보, 어찌면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그리고도 소식 한마디...》

봉녀는 목이 메여 더 말을 못했다. 남편은 벽에 등을 기대고는 띠엎띠엎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 편대는 세배나 되는 적기와 조우했었소. 적기를 두대 격추했는데 그만 내 비행기가 적탄을 맞았소. 난 불붙는 비행기와 함께 적후에 떨어져내렸소. 마지막 순간에 다행히도 락하산을

펼칠수 있었소. 정신을 차리고보니... 내가 살

아있더군. 하지만 움직일수가 있어야지. 몇번이고 안간힘을 써보다가 나는 단념하고 말았소... 차라리 죽자고도 결심했더랬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쳐다보느라니 문득 그 하늘가에 당신이 나타나더군.

그다음 영남이가 두팔벌리고 달려오고... 우리가 살던 그 집이 눈앞에 생생했소. 장군님품에 안겨 우리가 행복을 알았던 그 집이 말이요. 그다음엔 꼬박 두주일을 기고 덩굴며 왔소. 적후부대의 사단병원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됐소.》

봉녀는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남편이 그렇게 먼길을 기여올 때 나는 뭘하고 있었던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상처자욱을 어루쓰는 봉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하였다.

《울지 마오. 그거야 이젠 다 지나간 일인데 뭐라고. 난 그것보다두 더 가슴아픈건...》

남편은 불쑥 말을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봉녀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하여 급히 다우쳐물었다.

《난 그만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거요.》

《예?》

《비행기에서 내렸단 말이요. 부대에서는 당분간 휴식을 주더군. 휴가나 끝난 다음에 비행기에서 오는 문제를 다시 보자고 하면서말이요.》

남편은 몸을 우둘우둘 떨고있었다.

봉녀는 그를 눕히려고 손을 내밀었다.

《어찌겠나요. 그 몸으로야 비행기를 어떻게 타내겠나요.》

그러자 남편은 그의 손을 밀어던졌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오? 내가 정말 비행기를 탈수 없단 말이요?》

《여보, 진정하세요.》

《난 그레두 당신만은 내 마음을 알아줄줄 알았소.》

남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피창문을 활 열어제겼다.

어디선가 고사포소리가 줄기차게 울리며 찬장을 즈름즈름 흔들었다.

그날부터 남편은 입을 봉하고말았다. 조롱에 갇힌 새처럼 해종일 하늘만 쳐다볼뿐 영남이와도 별로 흥심없이 놀았다. 입맛을 젖혀버린 남편은 끼때도 밥술을 들었다가도 몇술 뜨지 않고 놓곤했다. 점점 더 수척해만지는 남편을 보다못해 봉녀는 마침내 설분을 터뜨렸다.

《당신은 정말 너무해요. 이렇게 하시자구 그 몸으로 두주일이나 적후를 기여서 헤쳐왔어요? 예? 대답해보세요.》

한동안 말없이 담배를 태우던 남편이 움쭉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봉녀도 따라나갔다.

《여보!》

남편은 돌아섰다. 그리고는 며칠만에 처음으로 빙그레 웃었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은 한결 생기를 띄었다.

그 이튿날도 남편은 못뽑이와 망치를 찾아들고 그 낡은 궤짝이 있는곳으로 갔다. 봉녀의 서투른 못질에 흉하게 구부러진 못대가리를 다시 박으려는것이 틀림없었다.

그때 멀리에서 쿵쿵 지척을 울리는 고사포소리와 적비행기의 앙칼진 급강하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손에서 망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두볼의 안면근육이 푸들거렸다. 그러더니 잠시후 떨어진 망치를 다시 잡았다.

봉녀는 한달음에 달려가 남편의 손에서 망치를 빼앗았다.

《이런 일을 누가 당신더러 하겠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미안하오. 이런 일까지 당신손이 가게 해서.》

《그만두세요. 당신은 저에게 늘 말씀하셨지요.

군관의 안해는 군인다와야 한대구요. 그 망치질이 제 가슴에 못박는것이라는걸 왜 모르세요?》

봉녀는 궤짝을 제자리에 도로 갖다놓았다.

《이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나 고칠려면 고쳐주세요.》

순간 남편은 영남이를 번쩍 안아들고 일어났다.

《영남아, 너의 엄마가 제일이구나. 제일이다!》

이튿날, 봉녀가 전선원호 달구지를 끌고 갔다오니 남편은 집에 없고 영남이가 혼자서 울고있었다.

《영남아, 아버지 어데 가셨니?》

《저기...》

영남이는 울면서 앞산을 가리켰다.

남편이 갑자기 산에는 왜 갔을가!

봉녀는 부리나게 산으로 달려갔다.

산자드락에 이르니 누군가 굵은 통나무한대를 힘겹게 끌어오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남편이었다.

성글게 다듬은 아지가 땅을 파제끼며 양탈을 쓰는데 남편은 비척거리며 억척스럽게 끌고있었다.

때로는 나무에 붙잡아맨 바줄에서 벗어나려고 버둥질치는것 같아보였다.

봉녀는 달려가 남편의 어깨에 깊숙이 파고들어난 바줄을 와락 벗겨내었다.

《여보, 이긴 빛에 쓰자구 그래요?》

봉녀는 안타까와 눈물이 글썽해졌다.

남편은 봉녀의 손에서 다시 바줄을 빼앗아냈다.

《당신이 나를 진실로 도와주려면 내가 쓰러지더라도 혼자서 끌게 내버려두오. 나는 힘을 키워서 기어이 비행기를 다시 타야겠소.》

《그럼 당신은 그 몸으로 정말 비행기를 다시 탈수 있다고 믿으세요?》

《당신은 내가 왜 일어서지 못할것 같소? 미국놈들이 우리 하늘에서 날치며 이 땅을 재더미로 만들고있는데 당신은 내가 땅바닥에서 주먹질하기만 바라오?》

남편의 눈에 불이 켜져 일어났다.

《그 원수놈들이 어제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근처에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하오. 당신은 그걸 알거나 하오!》

땅에 박혀있던 통나무가 보습처럼 땅을 파헤치며 우썹 끌리워나간다.

봉녀는 남편을 따를수 없었다.

남편이 저 멀리에서 봉녀쪽을 돌아보고 통나무 위에 걸터앉는다.

《여보, 이리 좀 오오.》

봉녀가 옆에 앉자 남편은 담배를 붙여물었다.

《여보, 당신의 마음을 내 모르는건 아니요. 하지만 내 두번다시 죽더라도 이 하늘을 지켜야 할 사람이요. 당신은 부엌골의 불타버린 집을 잊지 못할거요.》

《제가 왜 그것을 잊겠나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난 처마에 틀었던 제비둥지가 생각나오. 집이 불타니 제비둥지도 불타버렸소. 우리가 제비라면 제비둥지는 우리 집이고 조국은 제비가 둥지를 틀 큰집이요. 그런데 그 미국놈들이 우리의 큰집을 불태우고있소. 그러니 우리가 이 조국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소?》

봉녀의 눈앞에는 그날의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불타버린 집, 어머니의 시신앞에서 목놓아 울던 첫째네의 울음소리...

봉녀는 머리를 떨구었다.

다음날 아침 봉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새벽달리기를 하는 길을 돌아보려고 앞산으로 갔다. 봉녀는 오직 하늘과만 잇닿은 남편의 건강을 추세우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든 일도 다할 결심이었다.

그 정성과 노력때문인지 남편은 두달만에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남편이 떠나간 다음 봉녀는 림시로 지은 반토굴집에서 이사짐을 끄집어내었다.

《영남이네는 어찌자구 그래요?》

《내 집에 가 살자구요.》

《아니 집이요? 폭격이 심한데 조금 더 있다가 전쟁이나 끝난 다음에...》

봉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불타면 다시 지을지 언정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려보았다던 그 집으로 돌아가고싶었다.

남편에게서 그 집은 생활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잊을수 없는 집, 조국의 한부분일것이다. 그 조국의 한부분을 봉녀는 지켜서있어야 했다. 보금자리...

리... 이 나라 영웅들의 보금자리...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다 자란 아들들이 푸른 하늘을 날고있고 남편과 봉녀의 머리우에는 흰서리가 내렸다.

퀘짝에는 벌써 수십번이나 새 종이가 발라졌다.

그러나 그 종이장밋의 갈피속에는 남편의 손뼉을 끝내 입지 못한 구부러진 못들이 그냥 있다.

그 못 하나하나에는 돌이켜볼수록 가슴을 파고드는 추억이 있었다.

아름다웠던 시절로부터 가장 준엄했던 시절,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에 이르기까지의 추억들이 스며있다. 허나 더 바랄것 없다고 생각했던 나날의 추억만은 없다. 그 추억은 어디에 깃들었는가.

봉녀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찾아볼수 없다.

방안의 그 어느 물건이나 긴장하게 살아온 나날의 추억만이 깃들어있다.

봉녀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았다.

흰서리가 앉은 희끗희끗한 머리,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주름살이 간 눈... 그는 흐뭇했다.

더 바랄것 없다는 생각을 그 얼굴에서만은 찾아볼수 있었다. 방안에서 그 생각을 읽을수 있게 하는것은 그 얼굴뿐이었다... 문득 벽에 걸린 고성기에서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 피뢰도당은 군사분계선 중부지역에서 또다시 우리를 반대하는 엄중한 전쟁연습을 벌였습니다. 이 미친듯한 전쟁소동에 동원된 적비행기는 만 500여대에 달합니다...》

《아-》

봉녀는 저도모르게 퀘짝에 몸을 실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원수들은 변함없이 우리 조국을 노리고 시시각각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날뛰고있다.

달라진것은 봉녀 자기뿐이었다.

군관의 안해로 참다운 생활의 발걸음을 시작한 그가 아니었던가.

전화의 그날 폭격속에서도 서슴없이 남편을 따라가던 그 퀘짝은 근 40년이 지나간 오늘까지 그냥 있었으나 그날의 봉녀만은 없어진것이였다.

얼마나 많은고장을 다녔고 얼마나 자주 저 퀘짝을 들어올렸는가!

그때는 평생을 군관의 안해답게 살리라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지금은 저 퀘짝을 선뜻 가볍게 들지 못하는가? 재산이 많아져서? 아니면 이젠 늙었으니 힘이 모자라서?

혹시 내가 그 옛날 부엌골 집터자리를 잊고사는것이 아닌가!

봉녀는 소스라쳤다.

내가 그걸 잊다니! 집이 든든해야 처마밑의 동지도 든든하다는 그 피의 교훈을 어찌 잊을수 있던 말인가...

저녁에 들어온 령감은 꾸러놓은 이사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보 로친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제비따라 강남에 가야지요.》

령감은 아무말없이 그자리에 서있었다.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 부엌팍 막바지에서 자
기의 손을 뜨겁게 잡고있던 첫째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처럼 떠올라 봉너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
고말았다.

그때로부터 그와 함께 걸어온 길은 참으로 멀
었다. 이제는 종착점에 이른줄로 알았다.

그러나 남편은 또 큰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있
다.

강남으로 떠나는 제비처럼.

강남갔던 제비는 봄이면 또다시 동지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군관의 안해는 제비처럼 남편이 돌아오
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마지막끝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따라
가는 남편의 걸음을 따라가고 가야 한다.

왜냐 하면 군관의 안해역시 《군인》이기때문이
다.

영웅이 되리

김정철

나이기도 좋은 때에
기쁨도 새로운 오늘에
총을 잡고 나섰노라
나라의 방선을 지켜
나는 영웅이 되리

마음속 조용히 우러르면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내 깊은 심중을 헤아려
장하다고 어깨도 두드려주시는듯
한없이 자애로운 그 모습

눈덮인 전호의 긴긴 밤에도
그이께서 내곁에 함께 계시고
훈련의 칼벼랑을 오를 때에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손길
용기는 백배로 더해져
무적의 힘은 온몸에 넘쳐

그이를 모시여 내 지녔노라
병사의 참된 신념도
일당백의 전법도
현대전의 위력한 무기를 틀어쥔
백전백승하는 그 투지도

내 입고있는 군복조차
그이의 은정어린 사랑의 갑옷
불뽕는 화점인들 주저하랴
전진하는 사단과 군단들 앞에
이 한몸 육탄이 되여
승리의 돌격로를 열어가리

오, 우리의 **김정일**장군

그 이름만 들어도 원썩들 전멸하고
그 구령 한번 울려가도
산천초목이 총검으로 일어서는
나는 천하명장의 전사

나와 같은 평범한 전사들이
영웅이 되었노라 그이의 품에서
하늘과 땅, 바다
조국의 초소를 지키며
갑문도 세우고 언제도 쌓으며

위대한 령도의 영재
탁월한 군사의 거장을
우리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셨기에
전투의 영웅도 우리
건설의 영웅도 우리

진정 명장의 슬하엔
위훈없는 전사가 없노니
영웅이 되리
만나는 전사들 마주보는 얼굴마다
그 각오 그 결심 그 기개가 어려있는
불패의 대오 영웅적조선인민군

아,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을 따라
사회주의조국은 철벽으로 다져지고
통일의 새 아침은 밝아오리니
하나로 된 내 나라 먼 섬초소에서
나는 영웅이 되여 보고하리라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조국의 마지막 초소는 이상 없습니다!

조국이며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방금속

어린 시절의 추억

1

한해도 저무는 설달 보름날
아기는 알몸뚱이로
움막같은 초가집
부엌에 깔아놓은 조짚우에서
첫울음을 터치였다

《으앙, 나다, 엄마야 나!》
빨간 주먹 부르짖고
지푸레기우에서 발버둥치며
아기는 자기 생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그 작은 몸을 가리워
찬바람 막아줄
천 한조각 못가진
산촌의 젊은 어머니

서리 불린 토벽과
얼어붙은 부엌문 째므로
스며드는 한기를 막아주려고
녀인은 떨리는 손으로
허름한 자기의 토스레치마자락을 더듬어
아기의 몸을 가리워주었다

산골 부대밭을 일쿠며
허기진
엄마의 빈젖을 빨고 빨다
아기는 지친듯 잠잠했으나

기약키 어려운
딸애의 운명이 서러워
어머니처럼 《팔자》사나울
그 앞날이 두려워

피덩어리 생명을 품에 안고
산모가 서럽게 울며
따뜻한 품을 그리워 찾을 때
아,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조국이며!

2

그 아기
나는 다섯살 잡히자
마가울의 찬비가 휘뿌리는
나루배에 앉아

두만강을 건너갔다

강변 여기저기
돌을 세워 술을 건 배웃입은 녀인들이
삭정이를 지피여 죽 끓이는
어설픈 저녁 푸른 연기

갓 쓴 로인들과 꼬부랑할머니
짚신 신은 아이들이
모래톱에 앉아 비를 맞으며
나루배를 기다리는 처량한 모습

조국의 모습으로
내 어린 마음에도
애끓은 매운재를 뿌리며
가슴 쓰리게 하는데

피나리 보짐지고 배전에
돌처럼 굳어진듯 서있는 아버지
허름한 삼베보자기에
바가지짜 싸인 어머니

등에서 젖달라 칭얼대는
동생을 달래는 어머니 눈에는
금시 한소나기 쏟을듯
비구름이 질게 덮여있었다

오랜 세월 리별만을 실어나른
늙은 사공은
강기슭을 떠나자 배따라기를 부르며
수라수라 시름없이 노저어
푸른 물결 헤가르는데

문득 나루배우에서
그 어떤 절망의 나락에 빠진듯
애간장을 끓는 울음소리...
풀숲에서 놀란 물새가
푸드득 날아올랐다

나도 놀라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머니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비탄과 탄식의
애끓는 흐느낌소리였다

쏟아지는 눈물을
웃고름으로 씻으며

멀어져가는 조국산천 하염없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어두운 눈빛

그 눈빛의 어둠은
내 어린 마음에도 비구름을 몰아와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리며
나도 울음을 터치였다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배우의 사람들도 울고
비내리는 강가의 풀잎들도
글썽글썽 눈물을 머금었었다

내 작은 가슴은 의혹으로 가득찼다
기울어져도 정답기만 하던
고향집
엄마는 울면서 왜 가나?

왜 가나?
노대도 빼격이며
내 말을 받아뇌였다
울면서 왜 가노?
왜 가노?

오호, 두만강
이름만 들어도 설음이 북받치던
눈물의 강
리별의 강이여!

너를 한번 건너갔다
돌아온 이 누구며
다시 올 날 기약하고 하직한 이
그 뉘더나

그래도 너를 건너야만 했으니
이 나라 백성들
낮선 이국땅에
한목숨 묻히울 운명 지녔던탓이더나

살아서 못오면
죽어서라도 오리라던 조국땅에
돌아오든 못돌아오든
고향 떠나는이들 하얗게 강을 덮었으니
물어보자 이 땅 한기슭에
네가 있기때문이더나

두만강, 오호 두만강!
쫓기여 류랑걸식하는 나그네와
람루를 걸친 아이들을 어루만지며
목놓아 울던 조국의 강이여!

바람도 한숨 쉬며 지나가고
여울도 신음하는 강변에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다시 고향땅 밟아보나

피타게 피타게 부르짖어도
그 울음소리는
허공중에 흩어져
산산이 사라지고

강물은 해마다
살길 찾아 떠나는
이 나라 아들딸들 리별의 눈물로
불어만 갈 때, 그때
조국이여!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3

지치고 고달픈 나그네의
땀내와
썩레기 막담배 연기로 숨막히는
삼등열차 대합실-

촉수낫은 전등이
반디불처럼 희미하게 비쳐오는
어두운 구식에서
나는 어머니와 작별했다

어느 한 돈많은 부자가
《자선》사업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는
그 《자비심》 많은 《귀인》이
정말로 운명의 맑은 길을 열어줄가 해서

앞날이 촉망되는
소녀들을 《모집》 왔다는
그 안경쟁이 신사의 손길을 거쳐
어디선가 고학의 길이라도 찾을가 해서

몇번이고 몇번이고
《월사금》에 쫓기여 돌아오면
이집저집 어머니가 꺾다주는 은전 세잎들고
수업시간 늦을세라 달려가던
그 간이학교 마당에도 더는 들어설수 없을 때

아, 돈없는 가난으로 하여
배움의 길이 막힌 억울함에
부모를 잘못 만난 운명을 탓하며
못나게 울던 어리석은 눈물이여!

그처럼 거칠은 난알과
오막살이집 한간 마련하기 위해
손에 피장알이 박히도록
성실한 로동에 한생을 바친
부모님들 앞에 내 무슨 말로 사죄하라

그러나 그때
세월의 부조리를 알리 없는 나는
부모를 탓하며
그 어디든 날아가 지식의 탑을 쌓아
인생의 자리를 차지하고싶었다

친척들은 만류했다 가지 말라고
부자놈들 《자선》의 속보파리엔
언제나 검은 공공이가 있으니
따라갈 생각일랑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배움의 공상에 취한 나는
오히려 나의 포부와 꿈을 짓밟는
그들이 야속하다 속으로 나무라며 떠나갔다

이미 밀약으로
내 운명을 틀어친
그 공장주의
검은 손아귀속으로

어린 삶을
사정없이 후려칠
세월의 가시몽둥이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배움의 길이라면
너의 앞날 어찌 막으려고
모진 마음으로 떠나보내던 어머니도
작별을 앞둔 시각

자식하나 공부 못시키는
가난의 설움에 복받쳐
베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우시였다
《애야, 그럼... 인차 편지를...》

옥노에 걸린 어린 짐승처럼
사슬에 매여끄는 모략의 손을
《은인》의 손길로 잡고 따라나선
열세살 어린 소녀

토스레치마에 짚신 신은 맨발이
웅색하여
3등차칸 한구석에
어줍게 몸을 웅송그리고 앉아

가슴에서 일어나는
의혹과 질문을
끊임없이 머리속에 제기하며
닥쳐올 앞날을 불안속에 더듬어볼 때

아 그때
끝내
울음을 자아내게 하던

밤렬차의 기적소리

가슴을 허비며 기어이 기어이 우는
그 밤차의 기적소리
무서운 운명의 나락으로 나를 실어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조국여!

4

번쩍거리는 유리창문이
마을의 초가집들을 굽어보는
2층 양옥집
상록수 설레이는 정원으로
안경쟁이를 따라 내가 들어섰을 때

정원의 인공폭포앞에 놓여있는
가죽 장의자에 앉아
하얀 손으로 상아물부리를 만지작거리던
배퐁퐁이 신사

두볼이 처져 어깨우에 놓여있는
흰와이샤쓰바람의 그 신사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고 앉아
들어서는 나를 아래에서 위로
우에서 아래로 훑어보며 눈길을 떼지 않았다

로획물을 보는 사냥개처럼
탐욕으로 번뜩이는 눈빛
안경쟁이가 던지시 던지는
이상야릇한 눈짓

순간 칼날처럼 선뜩한것이
내 등허리에 와닿자
나는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오한과 구토감을 느끼였다

함정에 빠졌음을 의식하며
신경을 도사리고
그들의 일거일동
긴장속에 내가 주시하던 그날밤

술상을 벌린 건너방
미달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두사람의
허쵸부라진 말소리

《그래 마에다상
좋은 계집애를 데려왔는데
고작 요거요?
이거야 어디 섭섭해서...》

《아, 아...긴상
계집애의 몸값을 더 올리라는거지
좋아, 좋아 계집애는 내맘에 드니

자, 그럼 지폐 한장 더...》

《핫 핫 핫》

《훗 훗 훗》

금시 덮칠듯한 마수의 손길을
등뒤에 느끼며
나는 언제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맨발로 어느 한 초가집 프락에 뛰어들며
쓰러졌다

마을로 싸다니며 사람찾는 소동이 뜸해지자
딸처럼 안아 나를 숨겨준
어진 늙은 농민내외가
로자를 얻어주어 돌아왔다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치떨던 어머니

《원, 하늘도 무심하지
벼락은 두었다 어디 쓰자고
그놈의 대갈통을
바사놓지 못하니》

한생을 운명에 맡없이 순종하던
그 어진 성품에 거슬려
불의의 세상에 저주의 소나기를 퍼부으며
어머니가 잠 못 이루던 그밤

나는 처음으로
나라없는 민족의 불우한 운명이
아버지와 어머니
내 작은 어깨에도 칭칭
철쇄로 감겨져있음을 느끼며 몸부림쳤다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삼십대의 젊은 나이에
활동처럼 굵어든 아버지의 등이며
분같이 희던 어머니 얼굴에
버섯같은 고된 로동의 검은 자욱들을

북간도 어느 황야 오두막에 보짐을 풀고
제힘으로 일꾼 대륙의 땅도
다 익은 난알과 함께
지주놈에게 억울히 빼앗겼을 때
온밤 독한 술로 화풀이하던
아버지 가슴속 피멍도
나는 내 눈으로 보았고

샷팔래감을 얻으려
큰집 대문안에 들어설 때
《요보 센징》으로
가난뱅이로 하대하고 멸시하는
민족수모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어머니가 흘리는 피눈물도
나는 내 눈으로 보았다

그때 어린 내 잠재의식의 쪽문을 열고
머리속에 가물가물 떠올랐다
왜놈들의 군화와 계다작 소리로 어지러운
고향의 항구...

날마다 실어가도
부두에 줄어들줄 모르고
쌍이기만 하던
쌀가마니며

부두창고에 난가리처럼
가려놓고 실어내던
크고작은 상자속의
우리의 피땀도
나는 새로운 눈으로 투시해보았거니

일제침략의 칼에 맞아
선혈로 물드는
력사의 갈피갈피를
어린 두뇌의 한계점에서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오, 어린 시절의 철없던 공상이여!
너는 인생의 고된 길을
세월의 가시에 찢리며 해매이다
피투성이로 돌아온 그날에야
공허와 허탈로 쓰러진 나에게 귀땀 해주었구나

조국이 없이는 희망도 부질없음을
재능도 포부도 꿈도...
아니, 조국 그 하나가 없기에
인생의 전체를 잃었음을
나라없는 백성은 정말 상가집 개의 신세임울!

5

어느날 밤
오두막 어두운 관술불 아래서
빌려온 중학교 강의록을 읽던 나는
술곳이 뜻잠이 들었었다

저녁녘
언감자를 찢던 뜬김도
오두막 토벽짚에
서리로 하얗게 얼어붙은 밤

빈 창자를 유혹하던
옛장사의 가위소리도
강건너 마을
눈오는 골목길에 잤아든
깊은 밤

나는 잠결에 들었었다
마실온 이웃집

황지주네 머슴인 삼돌이 아버지가
귀엣개 없는 개털모자를 쓴채
그 어떤 은밀한 목소리로
아버지와 주고받는 이야기...

손바닥만한 피창을
하불로 가리운
오두막의 어두운 관솔불이
토벽우에 커다란 두 그림자를 그려놓은
좁은 방안

식어가는 화로우에 서로 손을 얹고
마주앉은 두사람이
바시락 소리에도 귀를 강구며
긴장과 흥분 속에
소곤소곤 귀속말로 나누는 이야기

오! 여름밤의 못별처럼
찬란하던 순간이여!
무겁던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소리던가

후두둑 뛰는 가슴속으로
흘러들던
그지없이 아름답고
그지없이 황홀하던 빛발이여!

《우리 군사를 이끄는 장수의 어깨에는...
날개가... 백두산에서 멀지 않아 큰 부대를...
조선독립대장인 그분이...》

토막토막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며
하늘가 아득히 멀고 먼
그 어떤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듯
신비롭게 승엄하게 내 귀에 흘러들던
그 낱말들

옥반우에 굴리는 구슬처럼
쟁쟁히 마음속에 구울려들어
온통 내 넋을 흔들어놓던
그 낱말들

동화속의 선녀처럼
그지없이 상냥하고 인자한
너인의 모습으로
내앞에 나타났다

금빛 찬란한 비녀를 꽂고
무지개빛의 긴 날개옷을 입은
너인은
조용히 방안에 들어서더니
내 토스레치마를 어루만지며
촉은한 눈길로 나를 굽어보는것이였다

《한창 배울 나이구나...
얘야, 이제 너는 맘껏 배우게 될게다
아담한 학교에서
좋지? 기쁘지?》

그리고는 나를 안아
날개 돋힌 롱마우에 앉히더니
《자, 한껏 날아보아라》 속삭이며
내 손에 채찍을 쥐여주는데

그 채찍에서도
너인의 옷에서도
온통 오색령롱한 광채가
빛을 내뿜고있었다

너무도 감격한 나는
너인에게 머리숙여 인사하려고
소스라쳐 일어났다
그리고 몽롱한 의식속에
두리를 살펴보았다

순간 너인의 모습은 간데없고
내앞에는 전예없이
두눈에 광채를 담은 아버지가
관솔불 아래서 새끼를 꼬며
그 어떤 생각을 끝없이 좇고있었다

마음의 의지가 무너지는듯
허전해진 나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마당에 소복이 내린 흰눈우에도
숲속으로 통하는 한가닥 오솔길에도
너인의 발자국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무서운 꿈을 꾸게로구나
다 큰 제집애가
못나게스리 쫓쫓...》

허를 차며 아버지는
나를 데려다 자리에 눕히고
피창을 막았던 하불을 벗겨
덮어주었으나

가슴에 파뚫이 땀도는
달콤한 그 낱말들을 안고
잠들수 없던
그밤

사라진 너인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다시 찾아주기를
안타까이 안타까이 기다리던
아! 그밤과 밤들이 열마였더냐 조국이여!

조국과의 담화

나

말해다오 오, 말해다오
어린 시절
세월의 풍랑앞에
어린 내 운명이 초볼처럼 깜박이던 그때

들에서 맨발로 메를 캐어먹고
송기를 벗기는 삶의 최하층에서
따뜻이 안아줄 품이 그리워
눈물로 찾아헤매일 때
그대는 어디에 있었느냐 조국이어!

조국

나는 그때...
그 황야의 어두운 오두막에서
네가 나를 피타게 부르던 그밤
원쑤의 포대우에 작탄을 던지던
적기관총 화구를 가슴으로 막던
그 열혈투사들의 가슴속에 있었다

국경의 살벌한 경비진을 뚫는
떼목우에도 나는 있었다
보천보 황철나무 아래에서
한방 신호총소리로 어둠을 찢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품속에 안겨
나는 재생의 숨결을 가다듬고있었다
이름만 들어도
섬오랑캐 사무라이들이 떠는
백두산의 호랑이
우리의 청년장군

광야의 지동치는 눈바람에 군복자락 날리시며
두손에 드시고 적진을 노려보시는
그 쌍안경으로
네가 걸어갈 밝은 길을
나는 내다보았고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심장도 살아있다
높이 올리신 그 웨침속에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나의 존엄이 메아리쳤기에

내 또한 그이 품에 운명을 맡기고
그이 걸으시는 길을 따라
영광찬 그 행군로를 따라

나는 걸어왔다 자랑차게 땀뻑하게
피덩어리 너를 안고
너의 어머니가 울던 그밤
너의 어머니보다 네 운명 더 걱정하시며
그이께서 힘있게 그으시던 붉은 화살이
네 운명의 문을 연
광명한 새 세계 오늘의 락원으로
나는 왔다 생겨 처음
환희와 기쁨의 날개를 펴고왔다

나

조국이어! 그날에는
알수도 없었던 모든것
그 모든것을
나는 알았노라

그대의 그 찬란한 력사의
갈피갈피를 더듬으며
그이의 그 빛나는 자욱자욱
가슴에 새겨안으며 깨달았노라

나를 위하여
아직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그처럼 훌륭한 아들딸들을
황야에 묻고
교수대로 보내는
살결이 찢기는 아픔도 그대는 참아가며

피의 천만리-
인간의 의지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준엄한 시련의 고비고비도
강철의 의지로 헤치며

세상이 모르는 험한 령을
그대는 넘어왔고
세상 더없이 차가운 눈비를
그대는 맞았으며
세상 류례없는 철화속을
그대는 걸어왔나니

그 영광찬란한 행군로정에서
삶이 꽃피난
이 나라 근로하는 인민의
천만 딸들중 나는 한사람

조국

그렇구나 좋은 세월을 만난
인민의 딸아
나는 때때로 너의 모습을 눈여겨본다

층높은 살림집 창가에서
탁상등을 마주하고
노래의 가락을 고르고
운을 다듬는 너의 모습 바라볼 때면

눈물로 배움의 길 찾아헤매던
너의 어린 모습이
오늘의 너와 엇갈려와서
나는 너의 집 불밝은 창가에서
차마 선듯 걸음을 뗄수 없구나

이제는 세월이 퍼그나 흘러
너의 머리에도 흰서리 내리고
무릎우에서는 손주들이 즐겁게 뛰놀거니
어린 시절의 그 피눈물
너 오늘은 잊지 않았는지
한갓 옛일로 흘러버리지는 않는지...

나

아니여라, 조국이어!
잊지 않노라
잊을수 없어
꿈결에도 생각하노라

어제날 가난뱅이 아이
《촌뜨기》인 내가
대리석 층계도 높은줄 모르고
웃으며 오르내린
그 밝은 대학 창문을 누가 열어주었는가를

그 어두운 오두막에서
인생의 넓은 대로에 나와
당당히 누리는 이 삶의 권리가
누구의 품에서 비롯했는가를

그것을 못잊기에
죽어서도 못잊겠기에

미제침략의 불길이 이 땅에 타오르던
그 준엄한 시절

나는 눈물의 토스레치마를
다시는 입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짚신을 끌고
삶의 나락을 헤매이지 않기 위해
열아홉살 단발머리 처녀로
손에 총잡고 전선으로 달려갔노라

재더미우에서는
락원의 창을 열어주는 그대와 함께
목고채도
기쁘게 메였고

허리띠를 조여매도
부족한것 많아도
그대 품에서는 삶이 즐거워
노래속에 《따찌까》를 밀어
오늘어로 오는 길에 포석을 깔았노라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계시는
그대와 함께라면
불타는 강도 넘기가 수월하고
그대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면
진필길 만리라도 두렵없나니

영원히 그대와 하나의 운명속에
한길을 가리라
우리 리념의 위대한 기치
붉은 기폭에 새긴 불타는 맹세

목숨걸고 내 피로 새긴
그 맹세
어떤 광풍속에서도 흔들림 없음을
굳게 믿어다오 믿어다오

우리 운명의 영원한 수호자
희망도 포부도 긍지도 자부도
다 안겨있는 소중한 그 품
오, 조국이어
내 삶의 영원한 요람이어

룽마바위, 장검바위

정일봉밀의 아늑한 수림속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의 고향집이있고 그앞으로 맑고 정갈한 소백수가 감돌아흐른다.

농임새와 생김새가 기묘하고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일봉에 오르면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손을들면 닿을듯한 동남쪽의 룽마바위와 장검바위이다.

룽마바위는 흰눈갈기를 날리며 구름속을 날아가는 룽마와 같고 장검바위는 날카롭고 긴 바위벼랑이 장검과도 같다. 자연의 그 절묘한 절경을 부감할수록 천군만마를 거느린 령장이 룽마를 타고 장검을 번뜩이며 산악을 밀치고 바다를 메우며 질풍같이 달려오는듯한 모습이 떠오른다.

참으로 사람들을 신비경에 사로잡히게 하는 여기엔 깃들어있는 전설도 많다.

보검을 찬 백두산대장수가 날개달린 룽마를 타고 왜놈들을 죽친다는 소문이 온 삼천리강산에 짜하게 돌던 그무렵에 있는 일이다.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나 백두산에 또 새 룽마간 내렸다는 말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날개가 돌힌듯 파다하게 퍼져갔다.

그러더니 정말 얼마후 백두산쪽에서 룽마의 울음소리가 찌렁찌렁 산발을 타고 련 사흘동안이나 들려왔다.

《오호흥!- 오호흥!-》

요란하게 울리는 룽마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법석 떠들기 시작했다.

《저건 백두산에 내린 룽마가 주인을 찾는 소리가 분명할세.》

《예전에도 룽마울음소리가 울리더니 백두산대장수가 내리지 않았나!》

사람들은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놀라와하였다.

룽마의 울음소리는 그후에도 계속 들려왔다.

《룽마 탈 주인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닐까?》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다면야 왜저렇게 울어대겠나.》

그러자 젊은이들은 버쩍 호기심이 동해났다.

(한번 찾아가볼까?)

이런 생각은 그들을 자꾸만 백두산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룽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는데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더 욕심을 부려 그 룽마를 타보려고 엉뚱한 마음을 먹은 축들도 적지 않았다.

어느날 매꿀에 사는 숫구이총각들이 마음을 든

든히 먹고 여럿이 작당을 하여 룽마를 찾아 백두산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들이 룽마를 찾아 떠난지 석달이 되었으나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고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해하였으나 숫구이총각들의 행처를 도저히 알수 없었다. 그후 여섯달이 넘어서야 그들은 초췌한 꼴이 되어 돌아왔는데 룽마는 보지도 못하였다.

얼마후 이번엔 절골에 사는 총각들이 룽마를 찾는다면서 백두산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석달후에 그들도 룽마를 보지도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아무리 백두산의 깊고 높은 골짜기와 산봉우리들을 살살이 뒤졌으나 그 어디에서도 룽마는커녕 그 그림자도 찾아볼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룽마의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를 따라가보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있던 마을로인은 《아무렴, 룽마가 어떤 말이라구 보통 상사람들의 눈에 보이겠나? 룽마는 하늘의 신선나라에서 백두산과같은 령산에만 내리는 신령스러운 말이니 입자들이 보지 못한것은 크게 이상할게 없네.》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자 모여섰던 다른 로인들도 긴 수염을 슬슬 내리쫓며

《아무렴, 그렇구말구. 룽마를 함부로 찾아간다는게 어디 될법한 일인가?》 하고 젊은이들을 되려 나무람하는것이였다.

그런데 이번엔 또 범골에 사는 포수총각들이 룽마를 기어이 찾는다면서 백두산으로 들어갔다.

포수총각들은 백두산골짜기와 산봉우리들을 메주밟듯하며 석달이나 헤매다가 어느 한 봉우리에서 크고 날씬한 날개돌린 룽마를 만나게 되였다.

《야!-》

포수총각들은 룽마를 보자 너무도 희한하여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온몸에서 눈부신 광채를 내뿜는 룽마가 앞발로 땅을 쿵쿵 구르자 산발이 드릉드릉 울리였다.

포수총각들은 룽마를 향해 산봉우리로 달려올라갔다.

그들이 산마루에 올라서자 룽마는 간데온데없이 사라지고말았다.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룽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이상해서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어디선가 《오호흥!-》 하는 말울음소리가 들렸다.

말울음소리가 나는쪽을 바라보니 저 멀리 건너편산꼭대기에 룡마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그들은 그 산꼭대기로 달려올라갔다. 산꼭대기에 올라서니 또 룡마는 간곳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얼마후 또 다른 산에서 말울음소리가 나서 그 산마루로 달려올라갔으나 룡마는 어느새 다른 산봉우리에 가있는것이였다.

이러기를 열번인지 스무번인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나니 포수총각들은 기진해져서는 룡마를 따라다닐수가 없었다.

포수총각들은 할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맥이 빠져 축 늘어져서 마을로 돌아온 그들을 보고 늙은이들은 또 지칭구를 했다.

《그러기 내 떠날 때 뭐라던가? 아예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했다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 괜한 고생만 했지.》

《고생해서 짜지. 룡마가 어떤 말이라구. 임자들 같은 속인들이 그 모습을 본것만 해도 천행일세.》

그후부터 룡마를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더는 없었다.

웬일인지 백두산쪽에서 매일 울리던 룡마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마 룡마가 주인을 찾지 못해 다시 올라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여러해가 지났다. 그사이 조무래기들은 썩썩한 젊음으로 자랐고 젊은이들은 장년으로 되였다.

어느날 백두산쪽에서 여러해만에 또 룡마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오호흥!- 오호흥!-》

그러자 그동안 잠잠했던 룡마에 대한 소문이 다시 돌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 룡마가 났다!》

《백두산에 룡마가 내려다.》

삼시에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방방곡곡으로 퍼져갔다.

어제날에 조무래기였던 쇠돌이를 비롯한 범골의 포수젊은이들은 기름에 불이 당긴듯 버쩍 호기심이 생겨 저저마다 백두산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그전날에 룡마를 찾아 백두산으로 갔다온 포수총각들, 오늘은 장년이 된 그들은 욕욕하는 젊은이들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쇠돌아! 그만뒀라. 뭐 우린 너희들만 못해서 그냥 헛걸음을 친줄 아느냐? 룡마는 보통사람에

겐 걸을 주지 않는단다. 너희들 눈엔 아마 룡마가 보이지도 않을게다.》

이 말은 쇠돌이와 젊은이들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 오히려 불은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더욱 그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겼다.

쇠돌이네 젊은 포수패들은 룡마를 찾아 백두산으로 떠나갔다.

때는 6월, 여름이 갓 시작된 계절이였으나 백두산의 골짜기와 봉우리마다에는 녹지 않은 눈과 얼음이 랭기를 풍기고있었다.

젊은이들은 천신만고하여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와 봉우리들을 살살이 찾아 헤맸다.

워낙 험준한 천고의 밀림인데다가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에 처음 들어와보는 그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분간할수가 없었다.

룡마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여 귀를 기울였으나 바람에 밀림이 설레이는 소리만 쉼-쉼-하고 들릴뿐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지칠대로 지친 그들은 떠나올 때 자기들에게 하던 마을사람들의 말이 떠올랐다.

정말 괜한 고생을 하는게 아닐가? 이런 동요가 호기심에 뒀던 그들의 마음을 점차 가라앉히고 종당에는 주저하게까지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은 아늑한 바위밑에 모여 앉아 앞일을 의논하였다.

별로 신통한 수를 생각해내지 못한 쇠돌이네는 날이 저물자 그자리에서 잠들어 버렸다.

잠에 푹아떨어진 그들은 다음날아침 해살이 눈을 간지럽힐 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바로 자기들이 잠을 잔 그산봉우리에서 《푸르르》 하는 룡마의 투레질소리가 울리였던것이다.

지척에서 울리는 룡마의 투레질소리를 듣고 그들은 환희에 차서 산봉우리를 올라다보았다. 룡마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번엔 골안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젊은이들은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바람 한점 없는 골안은 온통 꽃으로 뒤덮였는데 그 꽃송이마다에선 한껏 진한 향기가 풍겨오고있었다.

그리고 난데없이 백두산 장군봉과 자기들이 서있는 봉우리사이에 쌍무지개가 비끼였다.

그들이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쌍무지개를 따라 다른 한끝에 눈길을 돌리니 바로 거기엔 아담한 집이 한채 보였다. 그 집은 어찌보면 귀틀집으로 보였고 또 어찌보면 으리으리한 궁전처럼 생각되였다.

지붕우에 해님을 이고있는 그 집우엔 오색령통한 채운이 서리였고 광채로운 빛발이 하늘높이 뻗치였다. 온 골안에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였다.

이윽고 그 집에서는 한 어린 장수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는 날개라도 돌린듯 가볍게 산봉우리로 오르는것이였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룡마가 네굽을 안고 어린 장수를 향해 마주 달려내려갔다. 룡마는 어린 장수앞에 이르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추었다.

룡마에 올라탄 어린 장수는 산봉우리에 꽂혀있는 서슬푸른 장검을 뽑아들고 그것을 휘두르며 백두산을 향해 말을 몰아갔다.

룡마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높이 썰 날아올랐다.

《히야!-》

너무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쇠돌이와 젊은이들은 얼이 빠져 룡마가 날아간 백두산을 바라보며 그냥 서있었다.

조금 있더니 《오호흥! -》 하는 말울음소리가 울리고 룡마를 탄 어린 장수가 다시 날아와 건너편장수봉(오늘의 정일봉)마루에 내렸다.

이렇게 하기를 그 몇번, 어린 장수는 백두산봉우리들을 넘나들면서 무술을 익히고 천지물을 마시면서 힘을 키우는것이였다.

쇠돌이네들은 넋을 잃고 어린 장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해가 지자 어린 장수는 룡마에서 내리더니 장검을 산봉우리에 척 꽂아놓고 총총히 귀틀집으로 나는듯이 달려갔다.

귀틀집 지붕우에선 둥근달이 환한 빛을 뿌리고 별들이 열린 추녀에선 보석처럼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었다.

룡마는 날개를 접고 그자리에서 그린듯이 꿈쩍 않고 서있었다.

그들은 숨소리가 들릴 거리만치 가까이 다가갔다.

《영?》

쇠돌이와 젊은이들은 모두 놀라 주춤하고 서버렸다.

방금까지 같기를 날리고 발을 텅텅 구르며 서있던 룡마가 바위로 굳어져있는것이 아닌가.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룡마는 틀림없는 바위였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옆에 꽂아놓은 장검도 바위로 변한것이였다.

바위로 변한 룡마결로로 다가간 쇠돌이는 말잔등을 쏘어보았다. 아직도 어린 장수가 올라왔었던 말잔등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쇠돌이는 번개같이 날쌔게 말잔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쩌-》 하며 발로 박차를 갔다. 바위로 변한 룡마는 꿈쩍하지 않았다.

쇠돌이는 먼동이 흰히 틀 때까지 룡마를 몰아댔으나 여전히 바위가 된 룡마는 움직일줄 몰랐다.

아침해가 떠오를무렵, 첫 해살이 높이 솟은 바

위에 비치자 귀틀집문이 다시 열리더니 어린 장수가 달려올라왔다.

쇠돌이네들은 모두 숲속에 몸을 숨기고 어린 장수의 거동만 지켜보았다.

어린 장수는 바위로 변한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러자 어느새 바위는 장검으로 되어 해빛에 번쩍 푸른 섬광을 뿌리었다.

어린 장수는 룡마에 올라탔다. 바위로 변했던 룡마는 푸르르 투레질을 하고 앞발로 땅을 텅텅 구르더니 어린 장수가 박차를 차자 금빛날개를 펼치고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쇠돌이네는 어린 장수가 무술을 익히고 힘을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린 장수가 고삐도 잡지 않고 말잔등우에 우뚝일어서서 장검을 휘두르자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천둥이 울면서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쏟아졌다.

숲속에 몸을 숨긴 젊은이들은 그 비를 흠뻑 맞았다.

그들은 물에 빠진 수탉처럼 되었으나 조금도 개의치 않고 룡마가 나는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얼마후 어린 장수는 또 웅- 소리가 나게 장검을 휘둘러댔다. 그러자 비는 똑 그치고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말짱 개였다.

룡마는 푸른 하늘로 썰 날아올라갔다.

얼마나 까맣게 높이 올라갔던지 자그마한 점이 되어 가물거리더니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그런데 이때 《푸르르》 하는 투레질소리가 나기에 소리나는쪽을 돌아보니 어느새 벌써 룡마는 날개를 접고 장수봉마루에 내려 머리를 주억거리고있었다.

어린 장수는 말에서 내려 자그마한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들더니 사자봉쪽을 향해 가볍게 던졌다. 그러자 그 나무가지는 수천수만개의 화살이 되어 비발치듯 날아갔다.

이번엔 술방울 하나를 따서 던지니 그것은 수천수만개의 수류탄으로 변해 어디론가 멀리 날아갔다.

조금 있더니 팡! 하는 폭음이 하늘땅을 들었다 놓았다. 수천개의 수류탄이 한꺼번에 터진 모양이였다.

그들은 꿈을 꾸는것만 같아 서로 얼굴을 뻔히 쳐다보았다.

어린 장수의 무술은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신비롭고 희한하고 황홀하기만 하여 조금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구경만 하고있을수는 없었다. 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만 알고있을수도 없었다.

쇠돌이네 젊은 포수패들은 마을로 급히 되돌아

왔다.

쇠돌이네들의 말을 듣고 범골은 법석 끊었다.

범골만이 아니라 절골, 매골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만나기만 하면 어린 장수와 룡마이야기만하였다.

그러나 범골의 좌상로인은 쇠돌이네들을 마당에 꿰어앉히고 준엄한 표정으로 꾸짖었다.

《너희들의 행동이 참으로 무엄하고 불손하다.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사람의 짓에야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야 하고 어벌도 정도에 맞아야 하는 법이니라.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백두산속에 숨어살기는 하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거늘 너희들은 어찌 그리도 무엄하냐? 룡마가 나면 성인이 내린다 하였으니 그 어린 장수는 성인이심에 틀림이 없을진대 너희들의 생각이 왜 그리도 짧고 어리석으냐?》

나라와 백성을 구원할 성인이 타시는 신성한 룡마에 감히 속인의 몸을 엮는단말이나? 무지막지한 이녀석들을 어찌면 좋을까...》

로인의 불은 푸들푸들 떨렸다. 하더니 가슴을 치며 한탄하였다.

《내 네녀석들이 백두산으로 간다는걸 알았더라면 기어이 막았을텐데 잠깐 마을을 떠난 사이가 버렸으니...》

쇠돌이와 젊은 포수들은 모두 좌상할아버지앞에 무릎을 꿇고앉아 잘못했으니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날밤 하늘에는 경사를 알리는 별이 비치고 단이슬이 흠뻑 내렸다.

좌상로인은 마을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백두산 장군봉에 장군별이 떠서 왜놈들이 가는곳마다에서 녹아났다는 소문이 돌더니 이번에는 백두산 장수봉에 내린 새 룡마가 성인을 만나서 새별이 하나 더 솟았으니 이젠 분명히 나라에 대통운이 틀 조짐이로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룡마가 내린 소백수골근방에는 얼씬하지 않았다.

좌상로인이 말하기를 백두산의 동남쪽 소백산에서 시작되어 동지설달 엄동설한에도 얼지 않고 흘러내리는 소백수물은 예로부터 백두산에 내릴 장수가 마시게 될 샘물이라고 하면서 그 백리 근처에는 누구도 발길을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다음부터 범골사람들은 룡마를 탄 어린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신이 나서 전하면서 조국광복의 그날을 눈앞에 그리며 살았다.

김우경 정리

당원의 량심

최정용

사람들은 말하더라
인간을 두고 그 량심을
량심을 두고 그 인간을
그래서 황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소중한것
인간의 량심이라더라

눈으로 볼수 없는것이
량심이라 해도
당원의 량심은
인만이 보더라
조국이 보더라

그러하더라
깊고깊은 산중초소에서
한생토록 지켜온 그 철탑이
긴긴세월 풀거름 묻어 걸구어온 그 땅이
한마음 우리 당을 받들어산
그 당원의 량심을 보여주더라

진정 량심을 떠난
당원의 삶이 있든가
아무도 보지 않는곳에선
량심이 눈이 되어 지켜보더라
량심이 손이 되어 가리키더라

가는 길이 멀고
시련이 겹칠수록
흔들림없이 지켜야 하고
더럽힐세라 빛내야 하는 당원의 량심
조국의 운명과 함께 있고
혁명이라는 말과 나란히 울리더라

그 보석같은 마음들이
그 불같은 마음들이
천이 모여 하나되고
만이 모여 하나되어
따르고 받들기에
아, 위대하여라 조선로동당은

누리에 울려퍼지는 최고사령관 찬가

장용남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원수로 우리 혁명무력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으로 하여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뿔어넘치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으며 더 큰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사변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어찌 그러지 않으랴.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영웅, 창조와 건설의 영재, 강철의 령장 **김정일** 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원수로 모신 획기적인 사변 그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백두광명성을 맞이한 때로부터 가슴속깊이 소중히 품어온 소망이 실현된 사변이며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이 필승의 신념과 의지, 신심과 용기, 주체의 존엄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 민족의 존엄과 위엄 떨친 사변이다. 그래서 온 나라의 감격과 환희는 그칠줄 모른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이 영광스럽고도 감격적인 사변에 접한 시인들은 주체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찬가를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우리의 혁명적시인들이 창작한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칭송하는 시작품들은 자주시대의 지심을 뒤흔들며 위도와 경도를 넘어 온 세상에 메아리쳐간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를 칭송하는 시들에 일관하게 관통하고있는 사상적특징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충성의 열정이 짙은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초기공산주의자들의 함모와 충성심은 그들스스로가 생활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간직한 신념이었으며 의리였다.

항일의 그날처럼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를 칭송하는 시인들의 노래는 시인들자신이 생활체험을 통하여 간직한 친애하는 그이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의 분출이며 혁명적의리의 분출이다.

서정시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김철, 《문학신문》 1992년 1호)에서 시인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오랜 역사적기간 형성되고 뿌리내려진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려는 소망이 실현된것이 너무도 감격하여 서두를 이렇게 떼였다.

오, 그이시다
전민, 전군이 우러러바드는
그이가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가 우리의 **김정일** 동지!

시인은 시의 첫행을 달리 시작할수도 있었을것이다. 허나 오랜 기간 체험으로부터 마음속으로 우러르던 소망이 실현되여 천만마디 말을 다 그만두고 너무도 감격하여 《오, 그이시다》라고 충성과 함모의 감정을 터쳤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뜻깊은 정서가 배여있는가, 얼마나 많은 뜻을 담고있는가, 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는것이 얼마나 오래동안 심장속에 간직해온 소원이라는것이 알리는가. 이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백두광명성을 바라보며 우리 혁명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려던 혁명선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빛나게 성취된 여기에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더없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일찌기 백두산에서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혁명의 원로들도 그때의 그 영광을 오늘 다시 받아안게 된것으로 하여 격동적인 심정을 금치못하고있다.

전군, 전민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는 순간 우리의 최고사령관은 백두광명성 바로 그이시다라고 뿌리깊이 간직하고있던 우리 민족의 역사적소원이 성취된 감격에 복받쳐 만세를 불렀다.

서정시에서 전민, 전군의 심정 《오, 그이시다》라는 격동적인 웨침을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거창한 역사적화폭속에 담아 정론적인 서정을 박력있게 노래하였다.

일찌기 반세기전 2월의 아침에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의 성산이
정일봉마루에 받들어올린 아들
항일의 전장에서 담력을 키우시고
50년대 전화의 그 나날에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령장의 지락을 터득하신분

그이시여라
탁월한 군사사상 주체의 전법으로
하늘 땅 바다를 철벽으로 다지시고
전민이 자위충검 굳게 잡게 하신분

보는바와 같이 시의 정서는 매우 장중하고 거창하게 울린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는 시의 정서는 친근하면서도 장중해야 하며 생활정서적이어야 한다. 이 시가 이러한 미학적요구를 달성하게 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소원과 신념을 시대력사적 화폭의 정서속에 담으면서도 《오, 그이시여라》, 《그이시여라》, 《사열을 받으시라 령장이시여!》, 《경례를 받으시라 령수이시여!》라는 함축된 생활정서속에 담았기때문이다.

시의 전반에 흐르는 장중한 시대력사적사상감정은 이와 같은 구체적생활정서의 조화롭게 어울리기때문에 숭엄하고 위대하고 거창한 정서로 장중히 울린다.

이 울림은 사람들에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령장의 품모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보게 하며 충성의 마음으로 가슴불타게 한다.

시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사색하게 하는가.

반세기전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여 충포성이 울부짖는 항일전장에서 령장의 담력을 키우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한세대미, 일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는 두차례의 전화의 나날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리론, 주체적인 전법과 령군술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주체의 혁명무력건설과 그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혁명군대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을 혁명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전도, 인민의 자유독립과 관련한 문제로 여기시고 언제나 군사를 중시하고 군건설위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시대와 혁명의 근본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전군 주체사상화구호를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무력건설의 기본로선이 명시되었으며 이 구호를 관철하는 행정에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 주체의 군사 사상과 리론, 전법이 철저히 구현되어 인민군대가 주체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신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리론, 전법들은 군사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와 변천되는 환경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

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으로 되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 사회주의위업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탁월한 군사사상과 세련된 령군술을 지닌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예 대하여, 인민군인들의 모든 영예와 끝없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 령도자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신념으로 체득하였기에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며 영원히 높이 받들어나갈 열망에 불타고있다.

시인이 오래동안 간직하여온 소원을 노래하려는 사색의 세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념원으로 신념으로
친애하는 그이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통솔자
최고사령관으로 받들었나니

그이 아닌 그 누가
조국 생사존망의 이 중하를 떠메랴
그이 아닌 그 누가
력사의 절박한 이 요구를 받아안을수 있으랴

진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다. 이 위대한 철의 진리를 체험하였기에 시인은 정론적인 정서적박력을 가하여 우리의 존엄에 대하여 우리의 맹세에 대하여 그 리도 힘있게 노래할수 있었다.

서정시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마음속에 력사적으로 뿌리내린 충성심의 표현이라는 서정을 거창하고 장중하며 격동적인 생활정서로 노래하였다면 같은 사상감정을 서정시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 계시여》(황명성, 《문학신문》1992년 8호)에서는 구체적인 생활기기를 통하여 가슴뭉클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정서를 노래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이 시는 서정이 풍부한 성과작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특히 재치있는것은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오래전에 벌써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심장속에 최고사령관으로 계시었다는것을 마음속에 살아숨쉬는 충성의 감정으로 정깊게 노래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부름도 칭송도 따름도 마음속에 먼저 있고 흠모도 받들도 마음속에 있다. 심장속에 간직된 충성심은 신념과 량심,

의리와 도덕으로 간직되고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에서 표현된다.

서정시 《우리의 최고사령관, 그이 계시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
령관으로 모신 영광의 시간 그이를 최고사령관으
로 모시려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움트고 신념으로
가득차오르던 력사의 나날들을 감명깊게 노래하
고있다. 전사가 최고사령관을 모신 영광과 행복,
그 영광과 행복을 지니고싶었던 오랜 세월의 우
러름은 참으로 충성의 서정을 깊이 자아내고있
다.

...

따르는 전사의 행복
받드는 전사의 영광
그 언제부터 봄삭처럼 움텠는지
그 언제부터 꽃송이처럼 피었는지
총과 함께 끝없이 속삭이고싶나니

흰 준마의 고삐를 거머쥐시고
눈보라 세찬 장군봉에 오르시여
백두의 천만산악 굽어보시는 그이를
경모의 눈빛으로 우러르던 그날부터였던가

서리발총창을 비껴안으시고
령군봉의 천연바위우에 서시여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
그이 격조높이 울리시던 맹세의 시구절
내 엄숙히 심장에 새기던 그날부터였던가

물음대명사를 활용하여 만민의 심장에 호소하
이 수사학적시련들은 무한한 사색을 불러일으키
고있다.

반세기전 백두광명성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친
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는 마음이 움터 최고
사령관으로 모신 오늘의 영광을 지니게 된 장구
한 세월 흠모의 감정이 그처럼 뜨겁게 안겨오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금후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를 칭송하는 시창작에 시사해주는 좋은 측면으로
된다.

지난 시기 최고사령관을 노래하는 시작품들에
서 령장의 풍모를 칭송하는 표현의 무게만을 생
각하면서 생활정서적바탕이 없는 수식만을 열거
하여 웨치던 결함을 극복하고 서정시 《우리의 최
고사령관, 그이 계시여》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
지의 위대성에 접한 구체적인 생활감정속에 발을
붙이고 정서를 펼치었기때문에 충성의 서정이 풍
만하게 나래친다.

흰눈덮인 설령의 전호가에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영광을 총과 끝없이
속삭이는 전사, 전사는 자신이 최고사령관 그이
를 우러러온 나날들을 뜨겁게 회고한다.

백두광야에 계시던 그이를, 백두의 행군길 이
어가시는 위대한 지도자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펼치시는 그이의 탁월한 령도를.

전사-서정적주인공이 따르고 받드는 마음은 여
기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더욱
뜨겁다. 조국의 이름없는 산봉우리 하나, 초소의
위장품 하나를 보시고도 천리혜안의 군사적안목
으로 빛내여주시는 강철의 령장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급변하는 정세의 정황앞에서도 언제나 태
연자약하신 모습으로 적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역
경을 순경으로 바꾸어놓으시는 그이. 전사-서정
적주인공은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슬기앞에 탄복
했고 그이의 대담한 지략앞에서 환호를 올렸다.

이러한 생활체험의 정서를 거쳐 시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내 소리높이 말하고싶노라
주체혁명위업의 태양이시고
일심단결의 구성이시고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신 그이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따르던 그날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속에
그이는 최고사령관으로 계시었음을!

시인의 노래가 참으로 옳다. 우리 인민과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따르고있으며 백두광명성으로 칭송하던 그때부터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심장속에 그이는 최고사령
관으로 이미 계시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충성으로 뜨거운가,
진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는 충성의 감
정, 그이께 운명을 맡긴 그대부터 심장속에 최고
사령관으로 계시었음은 시대의 주도적감정으로서
시에서 현재와 과거, 미래에로 나래치고있으며
신념과 의리, 량심과 도덕, 사색과 생활로 거세차
게 굽이치면서 온통 충성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모신 감격과 영광을 노래한 시들에서
또 하나의 주목되는 점은 친애하는 그이를 최고
사령관으로 모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
병들이 지닌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존엄에 대
한 자부심이다.

서정시 《나는 보통전사가 아니다》(리소영 《문
학신문》 1992년 4호)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지니게 된 존엄
을 기발한 착상으로 노래하였다.

시의 서정적주인공-전사는 빨간 령장빛이 물들
어 두볼이 노상 앵두알처럼 붉게 타는 나어린 전
사이다. 그는 본대의 마지막 보충수이고 군가높
이부르며 큰거리를 행군해갈 때 유치원 조무래기
들이 달려들어 웃으며 총가목 잡아보고 달아나는
맨 마지막자리에 서는 전사이다. 더우기 재미나
는것은 사관장의 점검에 총알같이 야무진 전사의
대답소리만 끝나면 《쉬엿》 구령이 내려지는 중대
의 마지막 전사이다.

이처럼 시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다감한 생활정

서를 펼쳐주면서 귀염성스러우면서도 당돌한 전사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려보게 하며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신 전사의 끝없는 영예와 존엄으로 승화되어 노래되고있다.

...

하나 내가 선 전사의 위치
어찌 마지막자리로만 될수 있으랴
나는 보통전사가 아니다
내 가슴 가득 채우는 해빛같은 그 영상
온 세상 만민이 우러르는 **김정일**동지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복무의 나날을 이어가는 행복한 전사

오, 나는 보통전사가 아니다
온 세상 사람들 우러러 칭송하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동지의 전사다

전사의 이 존엄 얼마나 위엄있고 자랑차고 대견한가. 비록 나이는 어려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전사이다. 이것은 애어린 전사의 존엄이자 우리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의 존엄이다. 전사의 존엄이 이렇게 위엄있을진대 그가 서있는 혁명무력의 존엄이 또한 얼마나 위엄있으랴. 전사가 위엄떨치는 **《김정일동지의 전사다》**라는 존엄앞에서 원수들은 전율한다.

실로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이 숭고한 존엄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원수로 모심으로써 받아안은 영광의 존엄이고 승리의 신심에 넘치는 존엄이다.

이 인민군전사들의 존엄은 위대한 령장 **김정일**동지의 위엄있는 존엄을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하나로 이어 높이 구가한것이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의 존엄, 조국과 인민의 존엄은 곧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의 위엄있는 존엄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우리혁명무력을 령도하시기에 조국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혁명무력의 존엄이 있으며 매 개인의 존엄이 있다.

하기에 시들마다에서 이 존엄문제를 특별히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다.

흉악한 침략자들 도발자들이
얼마나 악을 쓰며 소란을 피웠던가
하나 그 언제 한번이나
그이의 철추를 면할수 있었던가
어느때 한번이나 그이 높이 추켜드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할수 있었던가

(서정시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중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존엄을 칭송하면서 그이의 위엄있는 존엄이 빛나기에 원수들이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지 못함을 노래하였다.

서정시 **《영광이 있으라 혁명무력이여!》**(변홍영 **《문학신문》** 1992년 2호)에서는 친애하는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이 원수들에게 폭탄처럼 던지는 우리의 선언, 조국의 선언이라고 위엄떨쳤으며 서정시 **《력사의 선언》**(김일규 **《문학신문》** 1991년 52호)에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상에 더욱 힘있게 과시되게 되었음을 노래하였다.

참으로 최고사령관동지의 존엄은 조국의 존엄이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 모두의 존엄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감격과 영광을 노래한 시들에서 강렬한것은 그이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고 영원히 따를 불같은 맹세이다.

오-

방패가 되어 성새가 되어 웅위할 령수
그이 명령하신다면
물이 되어 가리라
폭풍 되어 가리라
그이 가리키신곳 어디든 그 어디든
승리의 만세소리 울리게 하리라

(서정시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중에서)

이 시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받아안은 영광에서, 승리의 신심에서 터져나온 맹세이다.

친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한생을 충성의 한길에서 살며 싸워나가며 자기의 령도자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려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시에서 친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불이 되고 폭풍이 되려는 우리 인민군대와 우리 인민들의 맹세, 청춘도 생명이 다 바쳐 그이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하여 승리의 만세소리, 지축을 울리게 하겠다는 맹세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투철한 신념을 노래한 대합창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노래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영예로운 과업이다.

위인을 모신 인민은 위인의 노래를 짓게 마련이고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부르게 된다.

시인들이여, 우리 민족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천년력사만에 처음 모셨을 때 한별의 노래를 지은 혁명시인 김혁동지처럼 심장을 불태우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령도자로,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과 기쁨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이를 칭송하는 시가창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시대의 창공에 최고사령관 찬가를 높이 올리자!

인간사랑의 대답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무력침범자들은 현대기술로 무장한 육해공군과 추종국가 병력까지 동원하였지만 자기들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막대한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입고 패배하고말았습니다.》

여기에 흰기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대의 드세찬 반공격에 여지없이 참패를 당한 미제침략군대가 우리측에 정전담판을 구걸하며 들고왔던 흰기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몇번 안되는 세계대전사에 패한 나라도 몇몇 있었다. 그러나 그 몇몇 안되는 전패국들중 미국도 들어있다.

그렇다, 미제는 졌다. 대아메리카합중국이 조그마한 조선전선에서 두손을 들었다. 백수십여차의 침략전쟁과 수천차례가 넘는 군사적간섭으로 자기의 명토를 엄청나게 팽창시킨 미제가 22만평방키로메터 남짓한 조선을 삼키지 못했다. 2억이 넘는 인구도 모자라 《련합군》의 추종국가 병력까지 쟁그리 긁어모아 조선전선에 들이밀었으나 끝내는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의 군수산업에서 흘러나온 어마어마한 신행무기들, 구조학적으로 최신행이며 형태학적으로 전률감을 자아내는 비행기, 탱크, 포... 이 모든 살인무기들이 채래식무기에 얻어맞아 무용지물로, 산만한 잔해로 변하였다.

한생 전쟁에서 늙어온 《무적》의 《무죄장군》들이 아직 변성기도 채 넘기지 못한 열여덟살 조선인민군 전사의 군화밑에 짓밟혀 혁혁-멸망의 신음소리를 질렀다. 침략전쟁마다 황금의 날가리우에 걸터앉아 호언장담과 위세를 돌구던 거만한 미제가 패전석에 앉아 머리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아마도 참혹한 조선전선에서 그 목대라도 상했는가, 세계적판도에서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남의 나라땅을 메주밭듯 확보하던 구척장신들이 불과 몇평방 안되는 정전담판장에 장시간 무릎걸음으로 기여나왔다. 침략전쟁의 전승때마다 어깨우에 납덩이보다 더 무거운 별을 올려놓던 미제침략군의 《오성장군》들이 그 별보다 더 무겁고 쓰고 짙은 패망의 눈물을 흘리었다.

이것으로써 미제는 패전을 모른다던 100여년의 침략사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도덕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패전국의 하나로 굴러떨어졌다.

하다면 미제, 너희들은 응당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의 심각한 교훈을 찾고 제 소굴로 기여들

최경로

어갸어야 했을 것이었다. 네놈들은 조선전쟁은 잘못 선택한 대상에 대한 잘못 선택한 시간에 잘못된 전쟁이었다라고 인정한 놈들이 아닌가.

조선전선에서 미제는 심히 오산하였다. 그 어떤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힘이 있어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격파했는가. 여기에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는 최고사령부의 교환대가 하많은 사연을 안은채 그대로 전해주고있다.

전선의 밤은 그 누구의 재촉을 받은것처럼 무정하게도 깊어가고있었다.

쿵, 쿵-전선 가까운 어디선가 포소리가 분별없이 울려온다. 까닥까닥 조을던 하늘의 새벽별이 깜짝 놀라 초롱초롱 눈을 뜬다. 씩씩하고 매캐한 질은 조연을 조용히 밀어버리며 습습하고 비릿한 새벽바람이 물려드는 최고사령부의 교환대.

여기로 아직 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전략과 전술이 전선 고지로, 후방으로 흘러가는 력사의 지점 교환대, 밤은 얼마나 깊었는지... 별안간 《따르릉!...》 전화종소리 울린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교환대를 찾으시는것이다.

순간 교환수의 눈앞엔 펼쳐졌다. 이제 전 전선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전사들이 미제를 무찌르며 남으로 진격하는 모습!...

드디어 교환수는 울렁이는 가슴을 다잡고 경건히 송수화기를 받쳐들었다. 그러자 전선을 타고 흘러드는 자애에 넘치신 음성.

《줄리지...

인젠 눈을 좀 불이오!》

교환수는 순간 입술을 옥물었다. 이 위대하고 친근한 아버지의 사랑앞에 울음터질것 같아서!...

한 전사를 생각하시기엔 장군님의 어깨우에 앉혀진 중하가 너무도 무거우시였다. 전쟁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헤쳐야 할 혁명의 난국은 점점 가시덤불길이었건만...

그렇다. 그것은 위대하고 한없이 숭고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싸우는 고지우의 전사들을 위해 자신의 차를 내시여 고향소식을 실어준 사랑, 때론 전사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노래도 불러주시였고 콩나물을 길러 고지의 전사들에게 따끈한 밥과 국을 끓여먹이라 베푸신 사랑, 수십발의 원수의 흉탄을 받고 쓰러진 이름없는 한 전사의 침상 곁에 서시여 각일각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조차 수술하라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전사의 아버지로서 하는 부탁이라고 말씀하

시던 사랑.

아, 그 위대한 사랑은 죽었다던 전사들을 안아
일으킨 불사약이었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었

으며 전설같은 거인의 기적을 낳게 하는 샘줄기
였으며 필승의 신념을 안겨준 위대한 보루였다.

내가 가는 길 외 1편

한찬보

나는 조국을 지키는 전사다

총을 잡은 나의 길은

아무렇게나 갈수 없는 길

내 만일 이 길에서 탄생각 한다면

안온한 불빛이 나를 유혹하고

따뜻한 아래목이 나를 끌어당기리

그러면 나는 벌써 전사가 아니다

이 길은 오직 한길 중간이 없다

벗뻗한 전사나 아니면 역적이나

한번 헛디디면 돌이킬수 없어

목숨걸고 나는 간다

내 어지러운 길에 빠지면

전선으로 날 바래준 어머니손길도

대견히 바래주던 정다운이들의 그 눈빛도

머리들고 뿔뿔이 볼수 없으리

어머니조국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충신과 간신을 가르는 이 엄숙한 길을

나는 똑똑히, 곧바로 간다

조국의 아들임을 위훈으로 보여주고저!

아버지

조국 없는 땅에

한생을 물어온 나의 아버지

학교문전에도 못가본탓에

아는것이 없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똑똑히 알고있었다

소중한 그 무엇을 어루만지듯

분여지의 표말을 부둥켜안고

아버지는 생의 호소처럼 말하였다

너는 땅이나 아니면 이 생명이나

내 싸움길 떠날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나라앞에 무공을 세우려거든

한목숨 아끼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 땅을 지키는건

너의 목숨을 지키는것이다

내 준엄한 결전장에서

불속도 물속도 헤쳐넘어

이 가슴에 조국이 준 훈장이 빛날 때

나는 깨달았더라

아버지의 당부

그것은 조국이 가르쳐준 소중한 진리임을!

푸른계절

리명

그림 김원래

태양은 서쪽으로 퍼그나 기울었으나 역구내너머 버들잎새들은 무더위에 짓물려 휘주근히 처져 있었다. 그쪽에서 겨끔내기로 울어대는 매미의 야무진소리가 귀청을 따갑게 꿰지르며 살속까지 파고든다.

급행렬차의 차창결에 자리잡은 나는 얼굴과 가슴노리를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발차신호가 내리기만을 기다리었다. 이런 날 여행은 실로 마땅치 않다. 내가 나서자란 고향도시의 어느 한 고등중학교에서 보내온 편지가 아니라면 아마 여행을 마다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학교에서는 다가오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전쟁참가자이며 영예군인인 나와의 상봉모임을 희망한다는 기별을 보내여왔다. 나는 이틀간의 말미를 받아 떠난 걸음이었는데 이다지도 숨막히는 더위에 부대길줄은 몰랐다.

렬차승강대로 다양한 꽃문양의 달린옷을 입은 네댓명의 처녀들이 떠들며 올랐다. 그들은 해수욕장에서 곧바로 오는모양인지 머리카락들이 한결같이 젖어있어 자못 생기발랄하고 싱싱해보였다.

처녀들이 자리를 잡자 마침내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차창으로 흘러드는 미적지근한 바람에 땀을 들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버들숲 너머로는 탑식고층건물의 옷썰미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우로 부엌계 색이 바랜 하늘이 희끗거리었다.

《이거 무슨 놀음에나 정신을 팔아야지... 건디기가 가쁘구만요.》

내 앞의자에 앉아 부들부채로 더위를 쫓던 길손이 팔살을 찌프리며 말을 건넸다. 그는 손집대우에 올려놓은 가방안에서 휴대용록음기를 꺼내어 창탁우에 올려놓았다. 도지방공업총국에서 수출입담당지도원(나는 그의 이름은 알지 못하고있다.)을 한다는 이 길손으로 말하면 우리 영예군인공장과 잇닿아있는 바다가 휴양소에서 휴양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손님이였다. 40대의 중년치고는 주름살 하나없이 윤기도는 매끈매끈한 얼굴에 보기좋은 군력이 저있었다. 그는 하르르한 연록색의 와이샤쓰우에 연한 과일향기가 흐르는 백설같이 하얀 제끼양복을 걸치었는데 더위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실한 목을 줄아 붙인 물결무늬넥타이가 단정히 드리워있었다. 게다가 금테수정안경을 끼고있어 어딘가 준수하고 문화적인 인품을 절제하였다. 그는 녹음기를 틀어놓았다. 차안에는 서

느러운 해풍을 몰아오듯 《바다의 노래》선율이 흥겹게 물결치기 시작하였다. 나는 흰갈매기가 날으는 푸른 물결에 몸을 떠실으려고 귀를 기울이었다. 그런데 불현듯 렬차원의 성난 소리가 뒤흔들어놓았다.

《손님 정신있어요. 어찌자고 달리는 렬차에 매달렸나말이에요!》

객차안으로 들어서던 웬 젊은이가 단발머리렬차원한테 걸리어 멈춰섰다.

《안됐소. 이 렬찰 놓치면 늦어지여...》

《좋아요. 손님은 다음역에 내려야겠어요.》

《다음역이라니? 난 좀더 가야 하오.》

젊은이는 규정을 어긴 사람답지 않게 통명스레 말하고는 땀발이 퍼지여 구리빛으로 번들거리는 버그러진 앞가슴을 회색모자로 활활 부치며 씨물 씨물 웃었다.

《나한테는 지금 바쁜일이 생겨 그러오. 시간이 없거던. 참 시간이란 제일 흔하면서도 인정사정없다니깐... 허.》

젊은이의 거동을 묵묵히 지켜보던 지도원이 록음기를 끄며 무게있게 입을 열었다.

《동무, 어린 렬차원앞에서 부끄럽지 않소?》

단발머리렬차원을 상대로 너스레를 떨러던 젊은이는 돌덩이처럼 날아든 지도원의 이 타격으로 하여 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약간 우로 치들린 눈꼬리가 부르르 떨며 찌르는듯한 눈총이 이쪽으로 날아왔다. 허지만 그것은 다만 한순간이었을뿐 그는 말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입언저리에 비웃음을 그었다. 공기가 약간 팽팽히 죄여들었다.

《손님, 차표를 확인합시다.》

젊은이는 렬차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잠시 얼머름해있다가 차표를 보일념을 앓고 시뭇이 웃으며 여전히 얼굴의 땀만 훔치었다.

《동무, 렬차원이 지금 동무한테 차표를 요구하지 않소.》

지도원이 하얀 손가락끝으로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점잖게 젊은이를 궁지에 몰아갔다. 젊은이는 그제야 펄쩍 놀라며 뇌이였다.

《아 차표요?... 차표를 끊을 시간이 없었소. 급히 전보를 받고 오르다나니... 값을 치르면 안되겠소?》

《렬차장한테 가지자요.》

단발머리렬차원이 깔끔한 자세를 조금치도 흐트리지 않자 젊은이는 대번에 풀이 죽었다. 그는

공손히 렬차원을 따라 나들문밖으로 사라졌다. 지도원은 입이 쓰꺼운지 더 말하지 않았다. 나역시 젊은이한테 동정이 가지 않았다. 나는 간혹 불민하고 무례한 젊은이들과 맞다들 때면 눈이 시리고 가슴속에서 불덩이같은 의분이 북받쳐 그들의 장래를 두고 걱정할 때가 없지 않다.

우리의 젊은시절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저 젊은이보다도 어린 나이에 공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하던 준엄한 전쟁의 환경속에서 익히고 얼마든지 지켰었다. 우리는 가슴에 끓는 젊음을 의식했을 때 그 발랄한 기분과 정력을 시대와 일치시켰고 그 길에서 생의 참 뜻을 느꼈었다. 나는 웬일인지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해져서 무거운 상념에 잠겨들었다.

(젊은이, 우리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총포탄이 쏟아져내리는 격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조국을 안고 몸부림쳤댔지. 그래 그보다 어린 나이이구말구... 숨막히던 포연, 포탄이 튕적마다 땅이 떨리고 초목이랑 바위랑 마시는 공기마저도 다 타버리는것 같았지. 흠비가 쏟아져 입안에서는 뜨거운불모래가 버적버적 씹히기도 하고... 참 많은 청춘들이 이 땅에다 피를 뿌리며 사라졌었어...)

나의 눈앞에는 세월의 이끼에 덮여여 이름마저도 희미해진 전우들의 얼굴이 얼핏얼핏 지나갔다. 그런데 유독 한 얼굴만이 뚜렷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불타는 나무와 바위즈러를 짓부서트리며 달려드는 무한궤도를 맞받아 피흐르는 입에 수류탄을 물고 비척비척 다가가던 젊은이, 그는 나의 옛 분대장이었다.

나는 바로 그 분대장의 영웅적위훈을 학생들에게 말해주고싶어 렬차에 몸을 실었었다. 상봉모임을 바라는 그들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전쟁기간 공로도 별반 없어 어지간히 당황했으나 옛 분대장의 위훈이 떠올라 자신심이 생겼던것이다. 그런데 나를 번거롭게 하는것은 학생들에게 그가 단순히 희생으로써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던 이야기만을 전하면 무엇이 남을가 하는 의문이였다. 그저 일곱차대의 전투, 땅크와 반격, 부상당한 몸, 입에 문 수류탄...

나는 상념을 더 이어갈수 없었다. 불시에 왼쪽 발동이 밝히우는 감각과 함께 의족으로 련결된 절개한 부위에서 생살이 비틀리여 찢기는듯한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다.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성한 다리를 번디디여 몸을 반쯤 일으켜세웠다. 렬차원한테 단속되었던 젊은이가 분주살스레 다가오다 나의 온전치 못한 다리를 건드려놓았던것이다.

《동문, 끝내 재구를 치는구만. 영예군인도 못할아보다니...》

지도원은 나의 가슴에 달린 영예군인 휘장을 넘겨다보며 나에 대한 필요이상의 레의로 젊은이를 질책하였다.

《실례했군요. 참... 미안하게 댔습니다.》

젊은이는 회색모자를 주물럭거리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나는 전신에 퍼지는 빠근한 아픔으로 미간을 찌프리며 젊은이를 쏘아보았다. 지혜롭게 반짝이는 눈빛과 진한 눈섭만 없다면 코허리가 약간 살아오르고 흠채기가 편편한 인증, 동식한 불편들은 아직 다듬으려고 푼푼하게 여분을 남겨놓은듯 선들이 명백치 못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픔과 함께 일어번지는 노여움을 삭이였다. 그런데 내가 다시 눈을 떴을때 젊은이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은 몸가짐으로 더운날 일단 살에 붙으면 더욱 끈적끈적 달라붙는 송진처럼 우리 의자쪽으로 한발 더 다가섰다.

《주괘 없습니까. 날도 무더운데 한판 쳐보지 않겠습니까?》

《?!...》

나와 지도원은 똑같이 아연해지고말았다. 나는 젊은이의 눈빛에서 악도 고민거리도 없는 천품을 엿보며 내심 허허 웃고말았다. 지도원도 어처구니없는지 허거운 미소를 입귀에 짓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집대우에 놓인 가방에 손을 넣었다. 그도 더위를 잊고싶던차라 젊은이의 요구를 들어줄모양이였다. 그런데 주괘를 꺼내던 그의 가방이 기울어지면서 굳고 뚝뚝한 물건짝들이 나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쏟아져내렸다. 그것은 뜻밖에도 우리고장 바다가 휴양소의 명물인 갯가지 조가비들과 참성껍질들이였다.

《아, 조가비들이군요!》

젊은이가 눈빛이 밝아져 탄성을 올렸다. 지도원의 시허연 낮빛은 대뜸 불그레 상기되어 자못 미안쩍어하였다.

(허, 이 사람 욕심스레 잔뜩 궁져넣었는걸.)

나는 내심 감복하며 그를 도와 바닥에 흩어진 조가비들을 가방안에 주어넣었다. 젊은이도 거들었다. 하긴 운치로운 동해북변의 외진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우리고장 휴양소에 와 이런 희귀한 천연기념물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추억하겠는가. 우리고장 휴양소가 전국에 유명차한 인기를 끌게 된것도 실은 이 다양하고 풍만한 해산물때문이었다.

싱그러운 해풍에 몸을 말긴채 은구슬로 부서지는 물속에 장판지를 잠그고 너럭바위나 금모래불에 앉아 쉼이며 조개살을 따내고 거기다 노란 성게알을 터뜨려 끓인 어죽을 길쭉한 쟁쟁데기숟가락으로 떠서 훌훌 불며 넘기는맛이야말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별미이다. 한번 맛들인 쉼죽에 혀가 녹아버린 고객들과 휴양객들은 잊지 못하여 이 명물껍질들을 기념으로 걸어안고 돌아가곤하였다.

《지도원동문 갯가지를 다 챙겨넣었구만. 하긴 이런 껍질로 공예품같은것을 만들어놓으면 집의

애들과 아주머니랑 회한해할거우다.》

나는 흡족한 기분에 잡혀 우리고장 휴양소를 부디 잊지 말라는 은근한 속심을 비치였다. 그러나 지도원의 윤기흐르는 얼굴에는 마가울의 얹고 쓸쓸한 별같은 어슬픈 미소가 스치였다. 그는 주패를 창탁우에 놓고 발가우리한 랑손바닥에 조가비들을 쳐들었다.

《물론 기념으로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한텐 이런 껌질보다도 속살이 필요해서 그렇니다. ...국제시장에 내가면 이런 조개살이라든가 성게알 수요가 이만저만 아니지요. 공해가 없는 우리 바다 물산에 대한 인기는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갖고 다니기는 불편하여 이렇게 여러 종류의 껌질만 가져다가 의논해볼려구...》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를 뻔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때 잠자코 들고있던 젊은이가 주먹으로 제 허벅다리를 철썩 치며 수궁해나섰다.

《참 멋있는 구상이군요. 조개나 성게양식을 대적으로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도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젊은이한테 보냈다. 그러나 그 조용히 피어나는 미소속에는 까닭모를 당황비슷한것이 떨고있었다.

《양식도 차차 해야지. 당장은 곤난하지만. 하긴 거야... 우리 지방공업총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니까.》

지도원이 심상한 어조로 뇌이자 젊은이는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굳어진 표정은 의혹과 실망, 비웃음으로 뒤번져지며 조소로 이즈러졌다.

《바다가 결단이 나겠는걸.》

젊은이의 힐난은 무엇인가 분명치 못한것이 꿈틀거리는 나의 마음속 그들을 한층 질게 하였으나 지도원은 못들은척하며 나를 상대하여 계속하였다.

《지금 우리 지방공업총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자고 하니 이런따위들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돈을 깔고앉아있으면서도 돈을 모르고 살지요. 우리 일꾼들이 국가적립장에서 머리를 쓰면 이런 하찮은것도 나라에 얼마나 큰 보탬을 주겠습니까.》

해빛이 지도원의 수정안경알에서 부서지며 희멸썩한 그의 미모를 한순간 눈부시게 하였다. 나는 야릇한 무력감을 느끼었다. 그의 말처럼 너남없이 진정으로 나라일부터 먼저 걱정하고 머리를 쓴다면 무슨 일이나 당에서 바라고 의도하는대로 풀려나갈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이의 주장처럼 양식을 하지 않고 팔아버리기만 한다면 바다는 생명을 잃게 되지 않는가. 그러면 휴양객들은 또 얼마나 서운해할것인가.

《참, 그 이름난 휴양소인기도 이제 다 글렀군요.》

또 젊은이가 꺼들자 지도원은 그한테로 돌아섰다. 그는 사려깊게 충분히 리해한다는 뜻으로 고

개를 끄덕이었다.

《아쉬운 일이지. 하지만 어찌겠나. 항용 큰것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 있기마련인걸. 전체의 리익을 위해서말이지.》

지도원은 《전체》라는 의미를 강조하듯 억양을 높이였다. 그는 자기 표현에 만족을 느껴서인지 어조와 몸가짐은 상냥하면서도 확신에 넘쳐있었다. 젊은이의 입귀가 다시 실그러졌다.

《그렇지만 양식전망도 없이 일판을 벌리면 나라의 자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운 휴식은 또...》

《그만하오. 동무가 뭘 안다고 참견이요.》

《야단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뭘요!》

지도원은 그답지 않게 신경질적으로 젊은이의 말허리를 꺾어버렸다. 젊은이의 눈빛도 감때스러워지고 눈섭이 곤두섰다.

만약 이때 건너편 의자쪽에 앉아있던 처녀들이 젊은이를 불러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지도원과 젊은이의 사이에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것이다.

《흥덕동무, 게서 뭘해요. 이리 오세요.》

곱살하게 생긴 처녀가 날씬한 허리를 반쯤 일으켜세우고 젊은이를 찾았다. 그때에야 처녀들을 알아본 젊은이는 다투던 기색이 없이 그들을 향해 쾌활하고 서글서글한 목소리를 날리었다.

《아, 우리 처녀들이 어떻게?!》

《해수욕 갔다오는길이에요.》

젊은이가 처녀들한테로 가버리어 이미 주패의 흥심을 잃은 나와 지도원은 어성버성해지고말았다. 나는 어딘가 대설곳은 젊은이의 주장이 조리는 없었지만 공감되는데가 있었다. 국가적립장을 코에 걸고 눈앞만 보며 한곳을 허물어 리를 본다는것은 상서로운 일인것 같지 않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벼치는 저들이 과연 나라사정을 알기나 하는지 원...》

지도원은 불쾌감을 가라앉히지 못한채 열린 눈빛을 안경알에 반사시키며 웅얼거렸다. 나는 그의 불만을 흘려들으며 젊은이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여겨보았다.

《그 처녀가 고와요?》

건너편 의자너머에서 처녀들이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뭘라고 할가? 헤림이보다 고와.》

젊은이의 대답소리가 청높이 울리었다.

《어마나, 난 그럼 물러서야겠네.》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졌다.

《그 처녀와 평양에서 련애했다는게 사실이에요?》

《련애가 다 뭐야 퇴박맞았는걸. ... 참 난 왜 처녀복이 없을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말야.》

《평양에서 있는 얘기나 하세요?》

처녀들이 호기심어린 눈을 반짝이며 젊은이를 즐겼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유쾌한 빛이 흘러나오는 눈길로 처녀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지난해 우리 화학공업부에서 조직한 창의고안자들 경험토론회때말이야. 그 녀자가 두번째날 첫토론을 하더군. 공교롭게도 휘발유정류탑에 공기랭각기를 도입하여 나라의 여러분야에서 요구되는 연유제품을 훨씬 더 많이 뽑게 된 사실을 가지고말이지.》

《아니, 그럼 흥덕동무의 창안과 비슷하잖아요?》

《난 아연하더군. 발등을 밝힌것이 분하기도 하더란말야. 순식간에 흥분한 난 온몸이 귀가 되어 그의 창안과정을 들었지. 그 동문 설계원이었어. 처녀의 몸으로 그런 엉뚱한 착안을 무르익혀가자니 고생이 여간 아니였더군. 들을수록 동정이 가더란말야. 제노라 하는 일부 기사들이 탑에 세력이 강한 랭각기를 설치하면 탑내 온도격차가 심해지면서 탑이 폭발할수 있다거나 나중에는 혼기철을 놓치지 말고 시집을 가라거나 별의별 험구들을 다했던가봐. 그래도 그 녀잔 기어이 성사시켰던거야. 현대 창안과정은 그렇다치고 창안 그 자체는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것보다 별로 신통치 않더란말야. 난 어쩐지 그 녀잘 만나보고싶더군. 그날저녁 그 녀자의 호실을 찾아갔겠지. 마침 그 녀잘 복도에서 만나지 않았겠어. 토론회연단에 나섰을 땐 미처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몸가짐이 단아하고 무척 살뜰해비더군. 키는 작으나 눈에 영채가 도는 매력있는 처녀였어. 난 직방 <동무의 착안은 아직 미흡한데가 많소.> 하며 허물을 하나하나 들추어낼 차비였는데 왕청같이 내 입에서는 불쑥<동무의 공기식랭각방법을 우리 공장에 도입하자고 그러니 자세히 알고싶어 왔소.> 하지 않았겠어.》

《호호...》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일었다.

《그 녀잔 자기 도면을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하겠지. 그렇지만 내 귀와 머리에 그 녀자의 말이 들어올리 있나? 난 그 녀자의 정기도는까만 눈을 정신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입김이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입술을 훑쳐보기도 했지. 하여튼 전탕 들리고 보이는건 그 녀자의 다정한 목소리와 숨소리, 귀바퀴밑으로 보이는 하얀 살결과 싱싱한 머리카락냄새뿐이야. 그 녀잔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가 덤덤하니 한숨까지 나직이 짓더군. 날 갱통머리라고 비웃는것 같았어. 난 그때에야 정신이 들어 그 녀자의 도면을 활 밀어제끼고 내가 가지고 갔던 우리 도면을 척 펼쳐놓았지. 실은 우리가 한 열교환랭각기 도면이었어. 그녀잔 한참이나 우리 도면을 훑어보더군. 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거렸어. 아

닐세라 도면에서 머리를 쳐든 그 녀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더군. 파르르 떠는 속눈썹밑에서는 푸르스름한 차거운 빛이 흘러나왔지. 난 어깨가 돌아들고 낮가죽이 뜨끈뜨끈해났어. 그런데 이런 변이 있나. 그 녀잔 인츰 얼굴을 싸취고 섬약한 어깨를 흐드득 떨더란말야. 그 녀잔 피로움을 조용히 녹갯히더니 물기에 젖은 눈길로 나를 원망스레 쳐다보며

<동문 어쩔 이럴수 있어요. 날 우정 끌려주고 모욕하고싶어왔군요. 동무가 절 찾아온 동기가 그래서라면 동무같이 교약한 사람은 처음 봤군요. 사람이 지식이나 발명으로만 훌륭해질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고 슬픈 일이지요> 하고 말이지. 쟈장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그를 울렸다니까...》

《허, 훌륭한 처녀를 끌려주다니...》

창밖에 무료한 시선을 던지고있던 지도원이 혼자소리로 뇌이다가 미간아래로 흘러내린 안경을 바로잡으며 나한테로 돌아섰다.

《사실 저 시절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사랑으로 끓는 가슴에는 미덕만이 가득차있구요. 또 열정과 애정이 주는 희열로 삶이 가장선량하고 풍만해질 때라고 볼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저 시절에 사심을 모르고 남을 위해 자기심장을 바치기도 하고 또 리상의 탑을 한층한층 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가 멀리 앞을 보지 않고 일시적인 충격과 반사로 흥분과 열정을 란발하지요. 목표란 일시일시 뜻없이 설레인다고 할가. 누구나 그 시절을 거쳤으니말이지 어떤이들은 이 시기에 생활의 다반사에 쫓기다보니 후날 돌이켜보고는 그 무엇인가 성취할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서글픈 추억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지도원의 그 모든 말마디들은 어느 책에서 본듯한 구절을 외우는것 같아 어쩔선지 나한테는 시들하게 들리었다. 오히려 나의 신경은 젊은이의 그피이한련애담에 줄곧 쏠리고있었다. 그러나 흥덕의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그대신 처녀들이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래서 퇴박맞았다는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요전날 그 동무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수백리나 떨어진곳에서 서로 똑같은 창안으로 만났다? 그야말로 랑만적인데요.》

《그 동무가 지금 혁명사적지답사자로 우리 이웃군에 와있어요?》

《음. 이거 내가 좀전에 받은 전보야.》

《...상봉을 바람. 답사일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5시째스로 출발. 유정.》

《오늘 5시째스로 떠나요? 그럼 어찌니... 이 급행열차가 그곳 읍에 정시로 도착하여도 겨우 한시간밖에 없겠네. 어찌다 만나겠는데...》

《저 멀리 파도는 춤추며 반기며 기슭으로 달려

오고, 백사장 술푸른 잔디엔 그대들 기다려 이슬이 반짝이고... 아쉬워라, 아쉬워라, 짧은 만남이었어!》

허리품이 날씬한 처녀가 흥에 겨워 읊조리며 젊은이를 끌려주자 처녀들은 손벽을 치며 맛장구를 쳤다. 흥덕은 처녀들의 물림에 빠져 허우적이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제 미인을 만나러 가면서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는 시간이 어찌구저찌구 희뻘게 놀았구만. 참 기가 막히군요. 저렇게 설익어가지구서야 그 무슨 전체의 리익이나 집단을 위한 희생같은것을 리해할수 있겠습니까.》

지도원은 무엇에 속히운듯 쓰겁게 입을 다시었다. 그의 눈빛은 꼭 쓸쓸한 무인지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남보다 지체높기때문에 젊은이의 행동리면에서 뭔가 포착한것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굳이 젊은이를 경망스러운 청년으로 보고싶지 않았다. 나는 젊은이의 가슴속에 다들여지지 않은채로 끓는 의협심에 감복하였으며 그 무슨 창안으로 무르익어가는듯싶은 남다른 사랑의 열정이 미쁘게 안겨왔다. 만약 지도원의 눈에 젊은이의 언행이 거슬렸다면 그가 처녀와의 행복한 상봉에 취하여 들떠있기때문일것이다. 하긴 얼마나 좋은시절인가, 좋은 세월을 만나 맘놓고 제 사랑을 찾아갈수 있으니말이다.

우리가 젊은 시절 언제 저런 길을 걸어봤겠는가. 누구인들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는 시절이 없었으랴만 우리는 그 시절 수천리 먼곳에 안해와 사랑하는 처녀를 두고 전선에서 조국의 한치의 땅을 지켜 피를 끓이였다.

나의 분대장한테도 고향에 애인이 있었다. 유정한 달빛이 흐르는 밤이면 참호바닥에 쌓아놓은 빈탄약상자우에 앉아 고향의 애인을 그리며 은은한 피리가락을 넘기던 나의 분대장... 그가 그렇게 애끓게 기다리던 처녀와의 만남은 어찌되었던가...

그것은 아마 2차진공때의 겨울에 있는 일로 기억된다. 전선중부의 크지 않은 도시교외에 머무르고있던 우리는 어느날 휴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날 나는 분대장과 함께 읍거리로 외출하게 되었다. 노상 산발만 타고 행군하면서 전투를 치려야 했던 나한테는 평화로운 주민들이 사는 거리가 낯달리 그리웠다면 분대장인 경우에는 이 고장 특유의 담배를 구입할 목적에서였다. 담배지골로 소문난 그는 매달 공급량으로는 어렵도 없어 짬만있으면 담배《공작》을 벌리곤하였다. 오죽했으면 적후에 습격나갔다가 놈들의 작전장교서랍에서 담배까지 들고와 부대에 물의를 일으켰

겠는가.

자그마한 읍거리는 갖가지 간판들을 내건 잡화가제들과 점포,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다. 우리는 우선 거리 첫 어귀에 자리잡은 잡화가게에 들어섰다. 일이 될 때라 매대우에는 노란 일초와 형형색색의 문양을 돋힌 담배팩들이 눈에 띄웠다. 나는 얼른 지갑을 털어 분대장앞에 내놓으며 웃어보였다. 어서 내뿜까지 사서 맛스레 피워보라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분대장의 눈길은 담배가 아니라 바줄에 주련이 걸려있는 땡기뿜음에 멎어있었다. 나는 의아해졌다.

《집에 누이가 있어요?》

《누이? 허허.》

어색스레 웃어넘기는 분대장의 얼굴은 불그레한 빛갈로 물들었다.

《이 자주색 갑사땡기가 어드래?》

《내가 그걸 알게 뵈니까.》

《허, 부분대장은 아직 처녀들의 치레물계엔 통감감이군. 총각구실을 하긴 글렀어... 실은 말이야. 인민군절을 맞이하여 후방에서 전선위문단을 조직했다는데 공교롭게도 그 처녀가 우리 부대에 오게 된다는 기별이 왔거든. 두해만에 만나게 될텐데... 나도 뭘 좀 마련해보고싶어 그래.》

분대장은 여전히 얼굴이 벌개서 변명비슷한 말을 길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자주뿜땡기가 어찌 되었던가. 그의 마음처럼 진뵈던 땡기...

그것이 나의 눈과 가슴속에 그리도 아픈 추억을 남겨놓을줄이야... 흰눈이 반짝이는 산마루우에 류달리 빨간 딸기빛 노을이 저물어가던 이튿날 불붙는 놈들의 땅크밑에서 내 손으로 그를 끄집어냈을때 그의 팔다리는 여지없이 짓이겨졌었다. 나는 그의 얼굴우에 몸을 굽히고 이상하리만치 애끓고 고요한 그를 부여안았다. 그의 심장은 기적적으로 뛰고있었다. 나는 가슴저미는 상실감에 울음을터치며 피타게 부르짖었다.

《분대장동무. 왜 뒤를 돌아보지 않았소. 뒤에는 우리가 있지 않았소. 분대장동무가 다 까부시지 못하면 그 몇걸을 뒤에서 내가 이 수류탄으로 마저 요정을 널수 있있단말이요. 왜 단신으로 까부실 생각만 했소!...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뒤를 돌아봤더라면...》

나는 애절한 울음을 터치며 피기 퍼진 그의 앞가슴을 지혈봉대로 감아주려고 군복앞설킴을 조심스레 헤치였다. 그런데 심장과 맞대인 그의 왼편 속주머니안에서는 손수건으로 차곡차곡 싹 그 낫익은 땡기가 나졌다. 나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제손으로 처녀의 머리태에 달아주겠노라고 싱글

거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은 칼끝에 허비우는 것처럼 아팠다. 그때 마지막 의식이 들었던 분대장은 흐릿한 눈길로 전우들을 둘러보았다. 무엇인가 더듬던 그의 눈길이 내가 쳐들고있는 빨간땀기에 미치자 한순간 생기가 돌았다. 그는 이내 서글픈 미소를 입가에 그으며 가는 목소리를 힘들게 짜냈다.

《...그한테... 주지... 말... 라... 구...》

나는 분대장의 유언을 지켜 그의 시신을 묻을 때 땀기도 함께 넣어보냈다. 지금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 빨간땀기가 이따금 떠오를 때면 나는 오늘날 청년들이 그처럼 희생으로써 자기 조국과 인간을 사랑할수 있겠는지 누구든 붙잡고 묻고싶을 때가 있다. 과연 저렇게 마음놓고 애인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하는 젊은이들이 조국의 한치의 땅을 지켜 자기 애인에게 줄수 있었던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지 못하고 간 청년들의 고귀한 넋들이 이 땅과 이 하늘에 떠돌고있는줄을 알기나 할가?...

홍덕이들쪽에서는 폭발적인 웃음소리가 차안을 들었다놓았다. 해빛이 덜 비치는 자리로 옮겨앉은 그들은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손뼉을 자락자락 두드렸다가는 그 무슨 말마디들을 골라 주어대는 식의 오락을 펼쳐놓았는데 아마 누가 걸린 모양이었다. 푸른색 와이샤쓰바람으로 오락을 주관하고있는 홍덕은 나들문쪽에서 먼빛으로 구경하고있던 단발머리철차원한테로 다가갔다. 단발머리철차원이 기겁을 떨며 피하러들자 홍덕은 그의 손목을 끌어 기어이 한복판에 내다 세웠다. 처녀는 수줍은 눈길로 홍덕이를 할깃 흘기고는 활짝 붉어진 얼굴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의 배를 그려줘게 하였다. 뒤이어 처녀들은 홍덕이 몰래 저희들끼리 눈짓하며 다시 놀음을 펼치였다. 홍덕은 번열로 번들거리는 너부죽한 얼굴에 벅글썩한 미소를 담고 자기순번이 돌아오면 바위처럼 끄덕않고 곧잘 받아넘기였다. 놀음은 새로운 운을 달고 시작되였다.

...시골총각 싱글벙글 흠쳐만 보고... 도시총각 처녀손목 잡고싶어라... 숫저운 그 처녀 웃어만주니... 질풍처럼 불달린 사랑... 이글이글 타버리면 무엇 남을가... 이번에는 홍덕의 차례였다. 홍덕은 말문이 막혀 좀자르다 박자가 끝날목에야 《이내심장 영원히 불타... 아...》 하며 넘기려 했으나 처녀들이 웃음을 터치며 들고일어났다.

《안돼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일어나요!》

홍덕이는 한참이나 버티였다. 그러나 처녀들의 지긋은 성화에 못이겨 응하고야말았다.

《좋아, 부르지. 뭘 부르냐?》

《그 있잖아요. 동무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

젊은이는 그제야 생각이 떠올랐는지 싱긋 웃어 보인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가늘게 쪼프리였다. 무엇이라 이름하긴 어려운 사색의 그늘이 입가와 눈언저리에 슬쩍 지나갔다. 짙은 서정에 잠기려는 그의 진지한 태도가 벌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모았다. 이윽고 가슴속 깊은곳에서 흘러나오는 진폭이 우렁우렁한 거친 소리가 유유히 감도는 호심파도 같은 노래의 선율을 진동시키며 울려 퍼지였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탁한 음색은 그런대로 서정에 겨워 생의 철리를 물으며 깊은 사색으로 몰아갔다. 차손님들은 그의 거친 목청보다도 웅심깊은 서정을 담고 흐르는 가사에 귀를 기울이며 저마끔 지나오고 흘러가는 생의 나날들을 더듬어 숨을 죽이고있었다. 나도 그의 노래에 인차 젖어들었다. 직분이 문화지도원이었던만큼 그 누가 노래를 부르면 무심히 듣게 되지 않는 습관에서였다.

무릇 가요는 그자체의 요구가 있으면서도 부르는 사람의 감정의 분출이기도 하고 자기자신과의 독백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은 항용 자기의 감정이나 취미, 지향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여 즐겨부른다. 때문에 그가 선택한 노래에는 어디까지나 그자신이 있기마련이다. 나는 젊은이가 우선 그 유쾌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주제로 한 곡을 선정한데 놀랐다. 뿐만아니라 목소리는 그닥 신통치 않아도 노래선율을 꾸며서 가미하려는 헛된 시도는 조금도 없이 자기감정을 솔직하고 의젓하게 표현하여 듣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색을 한층 더 짙게 하는데 또한 놀랐다. 차칸안에는 숭엄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는 차츰 노래의 뒤부분으로 가면서 열정에 넘친 웅글고 담찬 음조로 격정을 터뜨리였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여태 분망히 날으던 수리개가 억센날개를 퍼덕이며 목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려는 자신만만함과 열기로 번뜩이였다.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젊은이는 1절 마지막 음절에 가서는 그 힘찬 퍼덕임을 찾아드는듯한 쉬고 부드러운 소리로 감싸서는 여운을 길게 남기며 다음 절로 넘어갔다. 그 여운은 나의 뇌리에 새삼스러운 파문을 던지

며 내가 만약 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본다면 과연 웃으며 회억할만한것들이 있을는지 의문스러웠다. 또한 이미 빛나는 생을 걸어온 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하는 동경도 갈마들었다. 나의 분대장의 삶을 보더라도 그의 생은 고요한 겨울저녁 빨강계 라오르던 딸기빛 노을처럼 사라졌어도 긴긴세월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아있다. 수류탄을 입에 물고 땅크를 맞받아 단신으로 달려가던 그가 마지막 시각에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생명을 구원했을런지도 모른다. 그의 뒤에는 분대가 엄호하고있었다. 그리고 그와 이어진 하많은 생활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있었다. 뒤에는 사랑하는 처녀와의 행복한 상봉이 기다리고있었고 구만리 하늘에 비친 창창한 미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앞만 보고 달리였다. 최후의 시각에 앞으로만 내짚은 그 몇걸음은 우리가 한 생을 걸어도 닿지 못할 값높은 거리였으며 죽어서도 산사람들과 이어놓은 발자국이였다. 그가 앞으로 달린 거리만큼 중대는 전진하였다. 그만큼 조국도 진군하였다.

노래의 여운에 휘말려 끝없는 사색을 이어가던 나는 때없이 짓누르는 지도원의 목소리로 하여 깨지고말았다.

《참 오늘같은 무더위는 레년에 드문 일인데요. 이런 날은 오히려 곡식들의 생육에 해를 줄거란 말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무질서한 공해산업이 미치는 후파로 대기온도가 높아질 예견이라더니 그 온열화의 징후가 아닐까요?》

(온열화라니?... 이젠 또 무슨 똥판지같은 소린가?!)

젊은이의 노래가 흐르는 지금 그가 무엇때문에 이런 동이 닿지 않는 말을 던지는지 알수 없어 나는 제 귀를 의심하며 굳어지였다.

(무로한 심리에서 오는 번덕일가. 아니면 이 숨엄한 분위기에 휩쓸릴수 없는 고립무원한 고독이 주는 몸부림인가. 도대체 지금 그 말이 누구에게 필요하단말인가!)

지도원은 나의 땀담한 무언의 표정을 감촉하고는 창탁우의 록음기에 손을 가져갔다. 별안간 록음기에서는 섹스폰가락이 뿜어나왔다. 그것은 인생의 참된 진리를 불러 심원한 정적에로 이끌어가는 젊은이의 노래를 여지없이 눌러버렸다. 나는 아연하여 눈시울만 습벽이였다. 지도원은 그 노래를 감상하려는듯 눈을 지그시 감고 두손을 가슴에 엇갈아붙이였다. 나는 머리속에 서서히 울리는 둔한 타격과 함께 치밀어오르는 의분을 견잡지 못하며 록음기다이알을 돌려놓았다.

《왜 그러십니까?》

《저 참신한 노래를 마저 들어보지요. 방해하지 말잔발이요.》

《누가 방해한단말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니?!》

나는 마른침을 넘기며 그를 험오스레 바라보았다. 내가 언제 이 사람과 짝패로 되었던가. 몸이 동행하니 감정과 녀까지 함께 가는줄로 믿고있는가. 나는 이때 비로소 이 사람과 생각이 아주 멀리 떨어져있다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없는 생강이질은 더 지속되지 않았다. 급행렬차가 화학공장지구의 도중역에 머무르자 흥겨운 놀음판을 벌였던 처녀들이 줄레줄레 일어났다. 그들은 생기에 넘치여 아직 더 가야하는 젊은이를 둘러싸고 시가슬렸다. 애인한테 질투에 불타는 저들의 인사를 전해달라는가 하면 아예 잔치날을 약속하라는 등 별의별 통말과 웃음을 다 뿌리였다. 그들은 상쾌하면서도 소란스러운 선풍을 몰아가듯 사라지였다.

지도원은 나의 편잔에 무참해서인지 록음기를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치심의 흔적같은 지지벌개진 얼굴을 감추며 그는 젊은이들과 반대방향인 승강대를 거쳐 밖에 나가 소풍하려는것 같았다. 그는 어쩌서 명쾌한 젊은이의 솔직한 감정과 소박한 기쁨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 나는 갑자기 답답하고 숨막히는 더위와 함께 탁한 공기가 폐부로 흘러드는 압박감을 느꼈다. 푸르고 싱싱한 빛이라고는 한점 찾아볼수 없는 지도원과 마주앉아있는것이 마치 비좁은 한증탕속에 박힌 것처럼 여겨져 이제 두구간이면 끝나게 될 려행이 한정없이 지루할것만 같다. 나는 이제야 무거운 속박감과 탁한 공기, 지루한 려행을 걸어안고있는 이더위가 왜 이다지도 지긋은지 알것 같았다. 잠시나마 이 더위를 잊게 했던 젊은이의 청신하고 상쾌한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기도 한다.

렬차는 차체를 흔들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자 이내 속력을 내였다. 어디선가 열에 뜬 들크무레한 풀냄새가 차창으로 쓸어들어 그나마 한결 숨이 나갔다. 차창가까이로 풀이 성한 무연한 저지가 펼쳐졌었다. 멀리 깃털같은 구름이 한가로이 떠있는 야산아래말기를 둘러싸고 해빛을 취하도록 마신련뭇이 한적한 마을을 끼고 조율고있었다. 물녘에는 살진 누렁소가 주둥이를 틀어박고 걸탐스레 물을 빨아들이며 성가시게 달려드는 등 에떼를 쫓는듯 연방 꼬리를 휘둘러댔다. 어딘가 목가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풍경에 나는 더위를 잊고 얼마간 흘러보냈다. 그새도록 지도원은 제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주위에 어두운 그들이 비끼여 나는 꿈속에서처럼 쫓고있던 저지의 풍경에서 눈을 떴고 돌아섰다. 내앞에는 뜻밖에도 젊은이가 서있었다.

《아바이, 한가지 미안한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

《렬차장을 만나시게 되면 저를 대신하여 이 차표값을 치러주십시오. 아까 제자리에 가있으라고 하여 그냥 돌아섰는데 여태 나타나지 않는구만요.》

젊은이는 자못 미안해하였다. 그는 나의 의아한 시선을 붙잡더니 손을 오무려 내 귀전에 대고는 재빨리 입속말로 속삭이였다.

《난 이제 통과하게 되는 백학역에 내려야 합니다. 이 급행렬찬 거긴 서지 않습니다.》

《?!》

나는 흠칫 놀랐다. 젊은이는 시뭇이 웃으며 자기의 결심을 비쳤으나 그 어조에는 결연한것이 있었다. 나는 아까 처녀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그가 만나려는 처녀는 렬차가 이번에 서게 되는 선봉읍소재지답사숙영소에 머무르고있는줄로 믿고있었다. 이제 알고보니 읍에서 멀리 떨어진 백학답사숙영소였다. 그가 렬차원한테 차표값을 전하지 못하는 까닭도 그래서인것 같다. 나는 젊은이의 분별없는 흥분을 너그럽게 타일려주고싶었다.

《그러니 처녀 읍소재지가 아니라 백학리답사숙영소에 와있단말이군.》

《허 아바이도 들으셨던게지요.》

《안됐네만 들었네... 그 처녀를 꼭 만나야 하나? 후날 편지로라도 나누면 안되겠나?》

《그뎐 벌써... 일이 틀어지지요. 늦어진단말입니다.》

《처녀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게군.》

《아니,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넨 또 려행규정을 어기지 않나. 공민이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말일세.》

젊은이는 더 할말이 없는듯 고개를 숙이였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시속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나? 자네가 정 고집하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거란말일세. 이왕 알게 되었으니 공모자로 뵈테니깐.》

《참 아바이두...》

젊은이는 나를 민망스레 쳐다보았다.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오히려 뒤통에 걸린듯한 랑패스런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손목시계와 창박을 번갈아 살피였다. 멀리 구배진 아스라한 언덕위에 백학역사건물이 성냥갑같이 아물아물 눈에 띄웠다. 젊은이는 서둘러졌다. 그는 나의 창박우에 차표값을 놓고는 제창 승강대쪽으로 향했다. 나는 손님들앞에서 소동을 피울가봐 그를 따라나섰다. 렬차련결칸에는 마침 젊은이만 있어 마음놓고 말할수 있었다.

《자네 부질없는짓은 싹 거두게. 젊은 혈기를 믿고 그렇게 우둘거리단 일을 친단말일세, 젊음도 쓸데 가 써야지.》

《야참, 아바이!》

《안되네!》

나는 젊은이앞에 떡 버티여섰다. 설사 그가 완력으로 나와도 조금도 드리지 않을 강심을 먹였다. 일순간 젊은이의 시꺼먼 눈썹이 부르르 떨더니 얼굴은 안타깝고 간절한 빛으로 이즈러지였다. 그는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속주머니에서 편지를 한장 꺼내여 나한테 내밀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지요.》

나는 무심결에 그가 내민 편지를 받아지였다. 결봉에는 아까 처녀들이 외우던 처녀이름이 적혀있었다. 나는 젊은이들의 내막이 적힌 글을 읽는다는것이 점잖지 못한 일이라는것을 알고있지만 그가 무엇때문에 이런 용단으로 꿋고있는지 호기심도 없지 않아 속지를 뿔아 펼치였다.

처녀의 올곧은 성미를 말해주듯 정바른 글씨가 눈에 안겨왔다. 처음에는 례의 인사말부터 시작했는데 차츰 읽어갈수록 석연해지는것이 있었다. 처녀의 편지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흥덕동무, 전 그사이 동무네가 한 열교환기랭각방법을 깊이 생각해보았어요. 탑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잡아 쓸수 있게 서로 찬것과 교환하도록 한것은 우리의것에 비할바없이 훌륭한거예요. 우리는 공기로 랭각만 하였지 그 열을 리용하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엔 믿기 어렵더군요. 또 부정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새겨볼수록 동무의 성공은 의심할바 없는거예요. 전 피로웠어요. 동무와 헤어져 두달남짓한 기간은 나자신에 대한 쓰디쓴 혐오와 수치심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발전된 원유공업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는 리유가 유

일한 위안이였지만 그보다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첨단기술앞에 주저했고 생명을 담보할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앞에 질겁했던거예요. 첨단기술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 청춘들의 사명감을 안고 동무가 것처럼 고심참담한 길에서 몸부림쳤을 때 난 유치한 성공의 희열에 달콤한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래요. 난 붉은별을 따면서도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철부지 소녀였고 바치는것보다도 받아안는것을 더 즐기는 인간이었어요. 뒤늦게나마 동무가 걸은 그 길에 나의 몸도 세웠군요. 우리는 지금 시험준비를 완결하였어요.

고마와요, 홍덕동무. 평양에서 그날밤 동문 저한테 옳게 깨우쳐주었어요. 허지만 세월이 퍼그나 흐른 지금까지도 그밤이 왜 이다지도 피롭히는지? 동무한테 너무 모진 말을 했기때문인가봐요. 전 동무의 진정을 받아들일 한조각의 따뜻한 마음의 공간마저 없는 비좁은 너자였어요. 이제 북부지방에 갈 기회가 생겼군요. 우리 기술혁신조에 북부혁명사적지답사의 영예가 차례졌어요. 우리는 답사행로를 마치고 돌아와 제창 시험할 작정이예요. 이번 기회에 동무를 만날수 있다면 처녀의 존엄과 긍지를 다 잇고 용서를 빌고싶군요. 부디 용서하세요...》

《보셨지요. 그렇단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위태로운 시험에 착수할 잡도리란말입니다.》

《자넨 성공하지 않았나?》

《모험이었지요. 거의 절대진공과 고압에 견딜수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하므로 시험과정은 폭발을 전제로 해야 했으니깐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시험이었으면 내가 우리 로동안전기술과장과 대판 다투었겠습니까. 그는 날 앞뒤를 살피지 않는다고 노상 불만이였지요. 그래 결정적시각에 앞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설이게 되지요. 우리의 영웅들이 최후의 순간에 앞뒤를 살핀적이 있었습니까? 교약한 일이지만 내가 그를 뭐라고 야유했는지 아십니까. 쥐가 고양이목에 어째서 방울을 달지 못하는줄 아는가, 피가 없고 지혜가 없기때문이다, 그저 영악없이 잡히운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있기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는 자길 쥐에 비긴다고 노발대발했지만 참 고마운분이지요. 그런이들이 나의 생명을 걱정해주고 살피주기에 난 신심과 용기가 더 생기더라란말입니다. 어쨌던 우린 성공했지요. 그러나 그건 낡은 방법이란말입니다! 우린 얼마전에 열교환기를 아주

안전하고 쉽게 해결할 방도를 탐구했습니다. 우리 공장대학학술토론회의 일정에 올라 우리 학급동무들이 매일같이 모색하던끝에 마침내 찾아냈단말입니다!》

젊은이는 환희에 들떠 목청을 돋구었다. 나는 그의 타오르는 눈빛과 희열에 넘친 모습을 보며 그들먹이 피어오르는 뜨뜻한것을 삼키었다.

《그걸 알려주자고 이렇게 편지를 썼었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답사일정을 앞당겨 오늘 떠난다는 전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면 그 위험천만한 시험을 제창 할거란말입니다.》

《그러니 처녀를 위험한 시험에서 구원하겠단말이군.》

《그혼자만이... 아니겠지요.》

젊은이는 약간 더듬거렸으나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나는 신성한것을 고스란히 받아안으며 뼈근한 감동에 젖어버렸다. 불현듯 피부에 닿는더운 바람이 그지없이 싱그러웠고 질풍처럼 달리는 렬차며 마주 달려오는 감철레무며 뒤로 흘러가는 갈색의 땅과 살림집들, 그우에 한가로이 떠있는 솜털구름 모두가 젊음으로 약동하며 뒤끓어번지는듯싶었다. 나는 시대의 첨단을 안고 줄기차게 달리는 젊은이의 더운 숨결에 가슴이 뿌듯해지며 그 기꺼움에 목이 메었다. 이처럼 나의 마음뿐만아니라 갈색의 땅과 질푸른 하늘에 가득 차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타끓는 푸르른 청춘의 열기를 나는 이제 학생들에게 무엇이라 표현해야 하는가.

《아바이 용서하시겠지요?》

《그러니 새로운 착안도 알려주고싶고... 처녀도 만나보고싶고... 처녀 사랑하라구... 사랑해...》

나는 젊은이를 한껏 뚫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모대기며 공연한 말을 곱씹었다. 젊은이는 반짝이는 이발을 드러내며 벌썬 웃었다. 그 깨끗한 웃음은 나를 아득히 흘러간 청춘시절의 기쁨과 그 끝모를 신비스러운 행복에 젖어들게 하였다. 가슴은 느닷없이 되찾은 젊음으로 들레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바이.》

젊은이는 승강대문을 벌컥 열어제꼈다. 차바람이 확 쓸어들었다. 승강대아래터에 내려선 그는 옷자락을 잡아뜯는 바람을 맞받아 다급히 웅쳤다.

《총국 지도원한테 인사를 못했군요... 그가 전 망도 없이 일판을 벌리겠다고 하는건 좀 심사숙

고…》

그의 뒤말은 뼈를 깎는 차륜소리가 삼켜버렸다. 돌연 나의 뇌리에는 젊은이를 무작정 제지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격이 마쳐왔다. 나는 황급히 승강대쪽으로 한발 내짚으며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차바람이 얼굴을 덮치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뼈를 같이하여 푸른 옷자락이 펄럭하며 사라진다. 뒤미처 땅을 구르는 육중한 차량이 소리지르며 지나간다. 그 무시무시한 굉음과 소름끼치는 전철, 사라진 옷자락에서 나는 언뜻 수류탄을 입에 문 나의분대장을 보았다. 비장한 격동이 삼시에 온몸을 휘감았다.

《아바이, 왜 이러십니까!》

별안간 젊은이의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이 귀청을 때렸다. 나는 눈을 떴다. 환각이었다. 실은 나의 바른손이 승강대를 잡고있는 그의 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있었다. 내 입에서는 안도의 숨결이 흘러나왔다. 등골로는 서늘한 식은땀이 척척히 내배였다.

렬차는 어느새 백학역구내를 멀리 벗어나 골간 초입에 들어서고있었다. 차굴에 들어서자 승강대에서 올라선 젊은이는 컴컴한 눈확에 불씨가 튀기는 날카로운 눈길로 나를 얼핏 스쳐보고는 꺼지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를 마주볼수 없어 머리를 떨구었다.

《용서하게… 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네… 그렇게밖에…》

나는 무슨 힘으로 그를 억제했던지 알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그저 그 순간 이 홀룡한 젊은이를 지켜야겠다는 반사적인 충동에서였던지 아니면 어제날 최후의 걸음을 내짚던 나의 분대장을 구원하지 못한 전우의 빛을 갇고싶어서였던지… 그러면서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을 처녀에게 닿지 못한 젊은이의 심정이 헤아려져 가슴이 타들었다.

(참 이를 어찌면 중단말인가!)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속만 바재이었다.

그무렵에 렬차는 읍소재지역에 서서히 들어섰다. 한동안 아무말없이 차창밖을 내다보던 젊은이가 나한테로 돌아섰다.

《아바이, 잘 가십시오. 아바인 꼭 우리 로동안

전기술과장갈군요… 잊 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눈을 슴뻑하며 싱긋 웃었다. 나는 눈시울이 젖어들어 미처 다정한 말을 하지 못했다. 젊은이는 구슬듯이 흠에 내려서자바람으로 역사나들문을 향해 줄달음쳤다. 보매 백학리답사숙영소까지 뛰어갈 잡도리였다.

《저 사람이… 되게나 급한 사정이 있는가보지요?…》

어느결에 내결에 다가선 지도원이 침울한 낮빛으로 나의 눈치를 조심스레 살피며 뇌이였다. 나는 불쑥 생활의 외피만을 보고사는 그한테 공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인간에 대한 그지없는 사랑과 위훈으로 지켜가고있는 젊은이에 대해 그리고 진실로 《전체》를 위해 평범한 날을 바쳐가고있는 그모든 아름다움을 죄다 말해주고싶었다. 또한 젊은이가 그에게 남긴 말도 하고싶었으나 지금은 말할 계제가 못되였다.

《지도원동문 자리에 가 있어주오. 내 좀 할말이있소.》

나는 초조감을 안고 손목시계에 눈을 주었다. 이제 한시간… 예서 백학리까지는 시오리길이다. 과연 처녀를 만날수 있을까?…

역사앞으로 시원하게 뻗은 길을 따라 재계 놀리는 젊은이의 발밑에서는 먼지가 일고 와이샤즈 뒤잔등이 바람에 부풀어올랐다. 처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품고 내쳐 앞으로만 달리는 젊은이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부지중 빨간댕기를 품에 안은 나의 분대장의 모습으로 엇바뀌어 돌아갔다. 나는 전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울컥 젖어들었다.

(분대장동무, 우리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당신처럼 빨간댕기를 품고… 앞으로만…)

나는 목이 메고 눈물이 핑 돌았다. 창문에 물켜선 차손님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정겨운 미소로써 젊은이의 걸음을 바래주고있었다.

땅은 하루의 더위에 지쳐있어도 푸른계절, 푸른빛을 품고 반짝인다. 그 푸르른 땅을 뒤흔들며 환희의 걱정과도 같은 기적소리가 길게 울리였다. 생활을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인간들만이 갈수 있는 그 길로 질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땅이 부지런히 따라가고있었다.

사랑의 권리

강선규

그림 김원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집단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평등한 자주적인 관계인 동시에 서로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동지적사랑의 관계입니다.》

애무로 충만된 어머니의 미소와도 같이 밝고 부드러운 아침해빛이 출근길에 오른 나의 온몸을 포근하게 뽀뽀해주었다.

화창한 5월, 이 강산에 봄빛이 한껏 무르녹는 계절이다.

무릇 사람들은 봄을 가리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는 우리나라의 4계절중에서 봄을 제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해빛속을 걷고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활기있고 행복해보인다.

밤새워 책을 읽고 글을 쓴탓에 피곤이 엉켜 짙 깔하던 두눈이 행길에 나서자 약물로 씻어낸것처럼 시원하고 가벼워졌다.

《엄마, 엄마도 아버지가 곱나?》

《아버지보구는 곱다고 안한다네.》

또랑또랑한 사내애의 목소리와 사분사분 속삭이는 녀인의 말소리가 내 귀속을 간지럽히었다.

말소리의 임자들은 바로 내앞에서 걷고있었다.

연하늘색달린옷을 입은 몸매 날씬한 녀인이 서너살 되어보이는 어린 사내애를 안고 바쁜 걸음을 옮기고있다.

짜리처럼 새빨간 실방울 두알이 달랑거리는 흰여름모자를 쓴 어린것은 엄마의 어깨에 턱을 대고 계속 종알거렸다.

《아버지는 엄마가 제일 곱대. 그런데 엄마는 왜 아버지를 곱다고 안하나. 응?》

《에그, 누가 듣겠다. 호, 호 참...》

녀인은 웃음을 터치며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활짝 얼굴을 붉혔다.

나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행복에 겨운 사람의 얼굴은 어느때 보나 아름다운 법이다.

해빛은 홍조를 띠고 웃음을 머금은 녀인의 가름한 얼굴을 더더욱 매혹적으로 채색하여놓았다.

(ैया, 네 말이 옳다. 너의 엄만 정말 곱구나.)

나는 속으로 뇌이며 어린것의 통통한 볼을 살짝 건드려보고나서 몇배나 더 가벼워진 걸음을 옮겨놓았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한쌍의 처녀총각이 내옆을

스치며 넘어질듯 달려간다. 앞을 바라보니 정류소에 전차가 와 서있었다.

어디선가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가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취주악대가 울리는 《총동원가》의 선율이 흘러왔다.

《뚝뜨르르-》 모터찌클 한대가 넘쳐나는 정력을 어떻게 쏟을지 몰라 통통 튀면서 거울같은 도로를 누빈다. 그우에는 앞가슴이 벌어진 흰색운동복을 입은 남자가 조향손잡이를 움켜잡고 백곰처럼 웅크리고있고 그뒤에는 땀시있게 생긴 경기용자전거를 어깨에 멘 처녀가 남자의 등에 의지하여 모로 앉아있었다.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아침길이다.

나는 느닷없이 이 땅에 살며 일한다는 긍지감에 부풀어올라 취주악의 선율에 박자를 맞추어 씩씩 씩씩 발걸음을 옮기었다.

대학정문에 들어서는데 근무를 서고있던 대학생이 깡뚝이 인사를 한다.

《선생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인사를 받고보니 철학부에서 제일 키가 큰 철학과 4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언제인가 강의시간에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라는 질문을 하고는 스스로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한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웃었으나 나는 웃지 않았다. 그것은 삶의 근본에 대한 물음이였기때문이었다.

《사랑이 매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매혹이 사랑의 출발점이라면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성은 매혹의 기초>라고 더 구체화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 학생은 어쭙어하던 몸가짐을 군인식으로 곧추 세우며 말했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웃어보이며 인사를 건넸다.

《근무를 서느라 수고했겠소.》

《선생님, 전보가 왔습니다.》

학생은 지나치려는 나에게 전보 한장을 내주었다. 회고 긴 종이쪽지에 또글또글하게 찍힌 자모문이 안겨왔다.

《14일 평양 도착, 대학에 가겠음, 윤석.》

후드드- 가슴이 반가움에 뿔뿔하였다. 주먹으로

코밑을 훑치던 소꿉시절부터 리발소의자에 누워 앞면도를 하게 될 때까지 늘 붙어있던 신성탄광의 내 동무가 온다는 소식이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어 고맙소!》

나는 학생에게 인사하고 다시금 전보를 내려다 보며 현관문앞으로 다가갔다.

《무슨 기쁜 소식이 왔습니까?》

누군가 뒤에 따라서며 물었다. 돌아보니 아까 어린애를 안고가던 그 녀인과 신통히도 꼭 같은 옷을 입은 연희선생이었다.

3년전 시집을 간후 처녀때보다 더 말수가 적어진 이 선생을 대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몸차림과 행동거지를 돌이켜보게 된다. 조용하고 단정하면서도 깔끔한 여자...

《예, 기쁜소식입니다. 얼마전에 탄광초급당비서가 된 내 동무가 오늘 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

물음은 있었어도 나의 대답에 대한 호응은 없었다. 그는 출근후에 수표를 하고나서 내가 수표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계단을 오르며 나직이 물었다.

《저... 오늘 저녁 시간을 좀 낼수 없겠습니까?》

저어하면서도 간절한 요구가 비껴 어조였다.

나는 얼핏 그의 낮빛을 살피었다.

희고 부드러운 얼굴에 수심이 한가득 비껴있었다. 그는 내가 아니라 발밑을 내려다보고있었는데 얇은 입술을 감쌀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웬간해서는 자기의 속심을 절대로 내비치지 않는 이 녀선생의 요구는 부탁이기에 앞서 나에게 대한 믿음이었다. 아마도 강좌 세포비서인 나에게 이말을 하기까지 며칠간을 망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합시다. 선생의 요구라면 얼마든지...》

《그 비서동무와의 상봉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일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우리 집에서 자고 갑니다.》

연희선생과 나는 4층에 올라와 창유리를 뚫고 들어온 아침해빛이 열광적으로 부서지는 대리석 복도를 나란히 걸어 동쪽끝에서 두번째 방인 《조선문학강좌》로 들어갔다.

1. 소원

강의를 끝내고 들어오니 내 책상앞에 웬 사나이가 앉아서 연희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여기에 앉아있기에는 그 친구의 열정이 남아돌아가겠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나는 손에 들었던 강의안과 교과서를 첫 책상머리에 집어던지듯 놓아버리고 성큼성큼 그에게

로 다가갔다

《여! 윤석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는 윤석의 두눈에서 맑은 빛이 번쩍 일었다.

《어, 선규!》

그는 일어서며 무작정 나의 랑어깨를 덮치듯 그러쥐었다.

나는 늘씬한 그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야, 이 친구 날쎈데... 세시간전에 전보를 받았는데 벌써 날아왔구나!》

나는 법석 떠들어댔다.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던 강좌장선생을 비롯한 오랜 교원들이 뜻밖이라는듯 놀라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기는 놀라울수밖에... 모든 행동, 모든 말차림새가 다듬어질대로 다듬어진 강좌안의 정숙이 엉망으로 깨어져버린것이다. 아마도 강좌가 생겨서 이런 소란이 벌어진것이 처음일수도 있었다.

《대학교원을 한다길래 좀 점잖아졌을줄 알았더니 10년전이나 꼭 같구나.》

윤석이 얼굴이 벌겋게 되어 미안한 눈길로 선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러게 진짜 대학교원이 될라면 난 아직 멀었어. 여전히 막장기분이야. 허허...》

내가 웃자 선생들모두가 미소를 머금었다.

《소식을 들으니 큰 <롱>이 뻗더군.》

《예끼 사람두!》

윤석은 나의 어깨를 철썩 갈겼다.

《자, 선생님들을 더 방해하지 말구 우린 나갑세.》

나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강좌실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서니 정오에 가까운 초여름의 눈부신 해빛이 온갖 꽃과 나무가 무성한 대학정원에 아낌없이 쏟아지고있었다.

나는 그를 이끌고 덩굴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굴속으로 들어가 백색라크를 칠한 철의자에 앉았다. 서늘로운 그늘속에 꽃향기가 가득했다.

《어떤가? 이런 꽃물속에 앉으니 암반이 비죽비죽 드리운 막장 생각이 더 나겠지?》

나의 물음에 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윽도록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시를 읊었다.

지하철도의 무지개승강기

거기에 오를 때면 나는 본다

감탕 깔린 굴길을 웃으며 걷는

나의 동무 탄부들을...

단정한 옷차림 향학열에 타는 눈

사랑하는 대학생들 마주할 때면

나는 본다-

석수속에서도 《유격대 행진곡》을 부르며

암벽을 뚫는 막장의 청춘들을!

...

이것은 언제인가 윤석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에 적어보낸 시아닌 시였다.

그런데 그가 몇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것을 기억하고있다니...

《자네 기억력이 좋구만.》

《내 기억력이 좋은게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하도 고마워 새겨두었지. 탄부들을 잊지 않는건 정말 좋은 일이야.》

《어떻게 잊겠나. 나를 키워준 고마운 사람들인데. 정말이지 난 지금도

탄부들을 저 지하철도와 유원지의 관성열차, 이 대학강당에 몽땅 옮겨다 앉혀놓고싶네.》

윤석은 무릎우에 놓인 나의 손을 다시한번 꼭 잡아주며 다정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나는 담배생각이 간절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시럭대었다.

《자네 아직 담배를 많이 피우는 모양이구만. 자, 이걸 피우라구.》

그는 아래주머니에서 《홍초》 한갑을 꺼내 나의 손에 쥐여주었다.

《이런... 좋은 담배가 있었군!》

나는 새빨간 포장지를 뜯고 서둘러 한가치를 뽑아 입에 물었다. 구수하고 향기로운 연기를 한껏 들이켰다가 길게 내뿜으니 속이 한결 더 후련해진다.

《윤석이, 어떻게 먼 걸음을 하게 됐나? 한초가 새로운 바쁜 몸일텐데 부러 나를 만나러 오지는 못했을거구...》

《...》

그는 잠간 바재이는듯하더니 자기도 담배 한대를 꺼내들고 내려다보며 말했다.

《날 좀 도와주게.》

눈시울을 내리간 그의 기름한 얼굴에 얼핏 시름의 그늘이 비꼈다 사라진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은 보석같은 굴진소대장 하나를 적십자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오는 길일세.》

《사고가 난 모양이구만.》

윤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게 아니라 원인모르게 시력이 감퇴되는데 여기 와서 의사들의 말을 들으니 어렸을 때 머리에 타박을 받은것 같다고 하면서 치료하자면 펍시간이 걸려야 하겠나우만. 그런데 그가 없으면 우리탄광 굴진속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네. 공장대학졸업반인 이 소대장이 연구완성한 새 형식의 빈구멍테두리 발파법이 빨리 온을 내야겠는데... 그러구 이걸 자네가 좀 말아달라구.》

윤석은 옆구리에 끼고있던 서류가방에서 두툼한 원고봉테기를 꺼내들었다.

《그가 쓰던 소설인데 말이 소설이지 사실은 우리 탄광 당비서였던 주룡석동지와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네. 출판되면 모름지기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보네.》

윤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그어댔다.

나는 이때에야 그의 눈귀에 많은 주름이 생겼다는것과 낫빛이 썩 좋지 못하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지금 내곁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지 나의 소꿉시절 동무일뿐아니라 수많은 탄광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생활의 모든것에 관심해야 하는 당책임일군이라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 왜서인지 이 순간 그가 썩 곱혀보였다.

나는 그의 엄지손가락에 난 새파란 굴간 상처 자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비서사업이 몹시 힘들지?》

윤석은 소년시절과 마찬가지로 특유하게 맑고 검은 눈에 웃음을 담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두어 번고개를 끄덕이였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네. 학생때도 그렇고 사로청일군을 할 때도 그렇고 결핍하면 일군들이 일을 잘못하기때문에 무엇이 안되오, 무엇이 부족하오 하였는데 막상 내가 결머치고보니 보통이 아니구만.》

힘든것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것인데... 잘 안되거든. 자네도 알지 않나. 수틀리면 두마디안팎에 손부터 나가던걸 말이야.

정말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개인을 초월하여 당적립장에 선다는건 보통문제가 아니야. 지금도 감정이 앞서는걸 가까스로 참는 때가 드문하다네. 허, 허.》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피로움치고는 천만냥을 주고도 살수 없는 비싼 피로움이군. 난 자네가 부럽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마음껏 줄수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또 실속있게... 얼마나 좋은가.》

《그야 자네도 마찬가지지. 사실 난 우리 교육 그자체의 생명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네. 사람들을 품어주고 키워주고 밋나가지 않게 옹바로 이끌기 위해 사랑을 안고 모대기기는 교원이나 당일군이 나 다 같다고 보네. 그리고 아까 강좌에서 들으니 자네도 세포비서사업을 하더군. 세포사업 이범위는 작으나 당사업의 모든것이 집결된 정수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난 자네가 내 심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해주리라 믿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없이 웃었다.

《강좌세포사업은 모두 준비된 인텔리당원들과의 사업이니 크게 힘든건 없다네. 하지만 드문드문 심각한 문제가 생기군하지. 로동현장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네. 사실 어떤 때는 내 수준에는 너무 과중한 피로움이 밀려들군하지. 난 자기를 이기기가 제일 피롭다고 하는 자네의 말을 들으니 나에게 이런 좋은 벗이 있구나 하는 기쁨에 윤석이 자네를 그러안고 막 덩굴고싶네.》

《...》

시계를 들여다보니 점심시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윤석이, 인젠 우리 집으로 가자구. 점심을 먹고 좀 쉬어야지. 하루밤 자고 가도 되겠지?》

《용서하게. 나도 백번 그러고싶네만 가야겠네. 점심두 가는길에 먹겠어. 어련하겠나만 나를 대신해서, 또 그의 애인을 대신해서 우리 굴진소대장한테 자주 가봐주게. 평양엔 그의 친척이 하나도 없네. 그의 애인의 집게 평양에 있기는 한데 그애인은 지금 우리 탄광 수질검사때문에 못왔지. 의학연구소 연구사인데 탄광 수도물때문에 질병이 생길수 있다면서 50리 떨어진 명학골물을 끌어오려고 몇달째 나와서 연구에 달라붙었네. 그게 성공되면 탄부들의 위장병이 없어진다는단. 그 처녀는 자기 애인이 여기 온걸 모르고있을걸세. 이제 명학골에서 넘어오면 알게 되겠지. 자, 난 가겠네.》

그는 일어섰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필요없는줄 뻔히 알면서 말린다는것은 친우간에 있어서는 안될 걸치레인것이다. 하지만 그냥 보내자고 생각하니 무엇인가 가슴에 맺히었다.

《잠간만 기다려주게!》

나는 급하게 강좌로 뛰어올라가 책장문을 열고 얼마전에 출판된 소설창작방법에 대한 참고서 몇권을 뽑아들고 내려왔다.

이것이 대학생들과 군중문학통신원들을 위해서 내가 쓴 책이었다.

《윤석이, 나한테 이것밖에 줄것이 없네. 탄광문학소조원들에게 가져다주라구. 그리고 소대장이 쓴 소설은 내 읽어보고 손을 대겠네.》

책을 받아들고 갈피를 넘기다가 필자의 이름을 본 그의 얼굴이 확 밝아지었다.

《고맙네. 탄부들이 기뻐할거네. 자기네 사람이 쓴 책이라고 말이지. 자, 수고하라구!》

우리는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의 머리칼우에서 장미송이들이 방글방글 웃고있었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백양나무에서는 새매들이 우짚었다.

하지만 윤석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전차의

수전기로라에서 푸른 불씨가 무시로 흩어져내리는 탄광의 길고 깊은 굴길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이제몇시간후이면 나의 친구 윤석은 렬차에서 내려자마자 안해와 애들이 기다리는 집에도 들리지 않고 사무실에 들러 작업복에 장화를 신고 그 굴길을 걸어갈것이다.

그는 그렇게 사는데 습관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희생이라고 할수 있는 헌신적인 행동도 그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응당한것으로만 생각될뿐이다. 그의 삶과 희로애락은 탄광사람들의 생활과 하나로 엉켜있었다.

그에게는 자기자신만을 위한 권리가 조금도 없다. 따라서 탄광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쏟아부을수 있는 권리가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람인것이다.

나는 문득 비록 얼마 안되는 당원들이지만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자신의 위치가 깨달아지면서 느닷없는 부끄러움이 엄습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세포당원들은 내가 없이도 얼마든지 교육사업도 하고 과학연구사업도 할수 있을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던가?)

불현듯 한 굴진소대장을 위하여 자기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윤석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나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났다.

(유명무실한 존재, 사랑이 없는 인간!...)

자기 존재의 허무성을 인정한다는것은 죽기보다 더 피로운 일이다. 그래서 나의 가슴은 더더구나 쓰러왔다.

(당원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이되자!)

나는 몇번이나 곱씹어 보아졌다.

그러고보면 나의 친구 윤석은 우정과 부탁만 남기고 간것이 아니라 크나큰 자각을 안겨주고 간셈이다.

이 자각은 내가 지닌 소원들가운데서 가장 크고 귀중한 소원이기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보리밭 내 고향

(재미동포) 강위조

보리밭 내 고향
고향은 보리밭

보리밭언덕에
풀피리 불고

보리밭도랑에
간직한 사랑

보리밭 내 고향
통일된 조국

돌아가 묻히리
보리밭 내 고향

돌아갈 고향은
통일된 조국!

상봉

남대현

번잡한 시내를 벗어난 승용차가 대동강을 따라 뻗어있는 휘넓은 고속도로도로로 접어들기바쁘게 뒤좌석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재호는 다시금 입속으로 되내어보았다.

(송영태라...)

역시 기억에 떠오르는 이름이 아닌것은 물론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와 비슷한 이름이 짝이는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왜서인지 이 이름만은 처음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노상 머리속에 맴돌이치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사라지기는커녕 취재를 다닐 때나 바쁜 원고에 쫓기우다가도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담배대에 불을 붙일 때면 은연중 다시 되살아나면서 갖가지 상념들까지 불러일으키곤했던 것이다.

재호가 이 이름을 알게 된것은 얼마전 태풍으로 조난당한 남조선어선이 우리의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을 때였다. 그 《대양호》의 선원명단에 바로 이 송영태라는 이름이 있었던것이다. 언제나 남조선사람들을 대할 때면 그랬지만 이번에는 그냥 스쳐버릴수 없는 이 이름으로 하여 더욱 그는 자기가 남조선에서 살던 때의 일들, 그러니까 이젠 거의 30년이나 지나가버린 아득한 소년시절의 추억들을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책가방은 보폭에 팽개치고 밀사리를 해먹느라고 늘 패치주둥이가 되어 돌아가곤하던 국민학교 시절로부터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 중학교를 다니던 때의 일, 그러다가 그것마저 견어치우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있던 일, 어쨌든 아버지가 있는 일본으로 밀선을 타고 건너갈 때까지의 열다섯해동안 사귀었던 잊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았지만 여전히 영태라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한데도 이 이름 석자만은 줄곧 안개속에 가리워있는 어떤 신기한 물체처럼 아롱아롱 눈앞을 어지럽히면서 뇌리에 끈질기게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 점이 재호를 안타깝게 했고 바로 그 안타까움이 그를 직접 만나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수 없게 했던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양호》의 선원들이 떠나게 되어있는 남포항으로 차를 달리고있는 것이었다.

(무슨 착각이겠지. 지나친 기대는 흔히 엉뚱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니까.)

언젠가 남조선 예술인들이 평양에 와서 공연하던 때 있던 일을 생각하면 그는 지금도 어처구니

가 없었다.

첫공연을 취재하기 위해 극장으로 간 그는 먼저 흡연실에 들렀었다. 담배생각이 나서라기보다 실은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심정을 다소나마 녹잡하기 위해서였다. 남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대할 때면 무작정 가슴부터 울렁거리는 그였다.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마음은 자꾸만 조급해지기만 했다. 얼마나 보고싶던 사람들인가!

누가 의거입북했을 때는 물론 시위를 하다가 어떤 대학생이 분신했다는 보도를 듣기만해도 그 이름을 곱씹으며 고향에 있는 친지들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혹시 그 동생이나 아들이 아닐까 하고 이모저모 따져보기까지 했던것이다. 그런 그로서 우선 담배라도 태우며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취재는 고사하고 구구조차 제대로 할수 없을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담배불을 얻으려고 재털이앞으로 다가서던 그는 자기에게 공손한 태도로 담배대를 내밀고있는 사람을 보는순간 그만 우뚝 굳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저절로 눈이 둥그래지면서 숨이 딱 막혔다. 그가 남조선에서 온 사람이라는데서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때 한동네에 서같이 살던 윤성우같았기때문이었다. 동글납작한 얼굴이며 늘 웃고있는듯한 귀여운 눈매 그리고 마주쳐다볼 때면 눈을 깜빡거리곤하는 버릇까지 틀림없는 그 성우였다. 나이가 들어 눈가에 주름이 잡혔달뿐이지 신통히도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이게?》

재호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덥씩 거머쥐었다.

《성우가 아니요! 영? 돈암동에서 살던...》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얼퍼름해하는 그였으나 재호는 더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날 모르겠소? 재호요 재호! 왜 미아리로타리에서 자전거주브땀하던 기영이네...》

뿔프질하는 시늉까지 해대는 재호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더욱 쾅해졌으나 재호는 제잡담 그를 한쪽으로 이끌었다.

《이거라구야 참! 이렇게 다 만나다니 영? 근데 언제 음악공부는 다...》

마치 무엇에 물리우는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다급히 두손을 내저었다.

《아, 아예유. 뭔가 착각을 하신가분데 전 충주

태성이지유 네. 충주농고를 졸업하고 국악을 전공한 리태식이라구 네.》

(리태식이? 충주?)

재호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성우가 틀림없는데 착각이라니? 착각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아무렴 내가...재호는 이 사람이 분명 성우가 틀림없으나 자기의 신분을 가리워야 할 필요로부터 변명을 하는것으로, 그래서 부러말씨까지 달리하는것으로 여겼던것이다.

그런 사정쯤은 짐작한다는듯이 이번에는 재호가 입귀를 찢으며 히죽 웃어보였는데 재호의 이 피상한 미소로 해서 그는 아예 질겁한 표정이 되고말았다. 더 마주 서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여겼는지 그는 뭐라고 한마디 내뱉고는 부랴부랴 흡연실을 빠져나갔다. 가면서도 힐끔힐끔 뒤돌아보는 품이 벌써 반정신은 나간 사람이였다.

그때까지만해도 재호는 자기가 그의 말대로 착각하고있다는것을, 고향사람들이며 옛시절에 대한 추억이 너무도 간절했던나머지 어떤 환각에 사로잡혀 그런 망측한 실수를 저질렀다는것을 미처 깨달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이제 불혹이라는 마흔고개를 넘어서서 그런지 느닷없이 고향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동요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하여 잠못이룰 때가 많았다. 확실히 사람이란 나이가 들어갈수록 향수에, 추억에 젖어들기 마련인 모양이였다.

(그러고보면 착각이란 참...)

좌석등받이에 머리를 젖힌 재호는 허구튼 실소를 머금은채 차창가에 펼쳐지는 정경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더위는 찌는듯했으나 역시 가을은 가을이였다. 눈에 띄지 않게 찾아든 가을은 눈에 띄지않게 조심스레 퍼져나가고있었다. 대동강가에서있는 황철나무잎사귀들도 황이 들자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한잎두잎 떨어지고있었다.

《부장동지! 우리 돌아오는 길에 와우도에 들리지않겠습니까?》

차를 몰고있던 인수가 불쑥 묻는 말이였다.

《...》

《글쎄 전 울여름 한번도 해수욕을 못해봤단말입니다. 시내수영장이야 어디 성이 차야 말이지요. 실컷 해수욕을 한 다음 백사장에 척 앉아 조개도 좀 구워보고 어떻습니까?》

언제나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놓고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도전에 제가 먼저 대답하곤하는 버릇이있는 인수였는데 보매 그는 질문을 하는것이 남한테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대답을 하기 위한데 있는것 같았다. 그의 이런 버릇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재호는 그가 무엇을 물

어볼 때마다 잠자코 있기가 일쑤였다. 아니나다를가 그는 이번에도 자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가했다.

《자- 그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간은 낮 두시로 하지요. 그러니 그때까지 취절 끝내입니다.》

그리고는 얼른 속도계기관 밑에 있는 록음기스위치를 절격하고 눌렀다. 그런 그의 행동은 마치 이 결정은 이미 확고한것이기때문에 더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것을 그리고 이런 훌륭한 결정이야 웅당 멋진 음악으로 축하하지 않을수 없다는식이였다. 록음기에서는 기다리기라도 했던것처럼 《축복하-노라》 하는 너가수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이래전에 사진부기자로 입직한 인수였지만 본업인 촬영은 물론 글까지 제법 미끈하게 다듬어 내는데다가 2급면허증까지 가진터여서 웬만한 보도기사쯤은 혼자서 맡아 뛰고 찍고 쓰고하는 이를테면 3박자를 겸비한 신문사의 사랑받는 막내이였다. 어디서 그런 정력이 솟구치는지 원산이나 함흥쯤은 하루사이에 왕복해치우고는 밤새워 사진이며 원고를 정리해서는 부장이 출근하기도 전에 책상우에 갖다놓는가 하면 점심시간엔 점심시간대로 또 온 정구장을 갈범처럼 뛰어다니는것이였다. 온몸에 차넘치는 에네르기를 아무데라도 탕진하지 않고는 몸살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것 같았다.

그에게 남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얼굴에 유별나게 많이 돋아난 여드름이였다. 그것 역시 남달리 분출되는 정력때문인것만은 틀림없었으나 아무리 그렇다해도 좀 지나칠사 했다. 랑불은 물론 턱이며 이마까지도 온통 울긋불긋한 주홍일색인데 얼핏 보면 한창 익어가느 딸기밭을 련상케 했다. 마주서기만 해도 누구나 이 친구가 과연 리발소에 가서 면도를 어떻게 하랴싶은 걱정이 먼저일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시끄러워하거나 타내기느커녕 오히려 안팎으로 활력이 넘쳐나는 진짜배기 청춘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상징으로 여겼는데 왜 처녀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지 안타깝다는것이였다. 아니 그런 처녀들이 불쌍하다는것이였다.

그런 인수를 재호는 각별히 사랑했다. 더없이 순진하고 소탈해서만이 아니라 남다른 사연이 있기도 했다.

인수를 처음 만날 때였다.

재호는 자기가 취재를 떠날 때마다 특히 남조선사람들을 대상해야 할 그럴 때마다 언제나 키가 격두룩한데다가 얼굴이 여드름투성이인 사진부의 신입기자가 뒤따른다는것을 알았으나 그저 심상하게 여겼었다. 아마 이번 기사에는 사진이 첨부되는가부다 하고 여기거나 갓 배치를 받았으

니 실습으로 따라다니는것이겠거니 했었다. 그런데 암만 신문을 봐야 사진이 받쳐지기는커녕 견습생의 처지라면 의례 있을 법한 인사조차 한마디없이 그냥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는것이였다. 모르긴 해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그러자 곧 불쾌하기까지 했다.

《이건 뭐가? 어째서 날 그림자처럼 쫓아다니지?》

참다못해 한마디 했을 때였다.

《미안합니다.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으나 씨물씨물 웃으며 코잔등을 긁어대는 품이 속으로는 그닥 꺼려하는 기색이 아니였다. 그는 먼구스러울 때면 언제나 코잔등을 긁는 버릇이 있었던것이다.

《솔직히 말해 제가 부장동지를 따라다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장동지 한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깐요. 전 단지 자신을 위해 뛰고있을뿐입니다. 사진기자로서의 본분이라고 할가.》

(본분?)

금방 입직한데 불과한 햇내기한테까지 벌써부터 기자의 본분에 대해 따질 사람이 없기도 하거니와 설사 어떤 과제가 있다 해도 그한테 돌아가야 할만큼 촬영기자진영이 빈곤하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재호로서는 그의 말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그래 그 본분이라는게 어떤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제발 그 <솔직히 말하면>하는건 건너치우게. 동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말일세.》

《그러지요. 그럼 건너치우지요. 사실 전 한장의 사진, 그것도 한장의 예술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희망이고 소원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주제넘은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에 남을만한 그런 사진을 찍고싶단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장동질 쫓아다니는겁니다.》

《역사에 남을 사진? 허- 그러니 동문 나를 취재대상으로 그것도 어느새 역사적인 인물로까지 취울린 셈이군그래 응?》

점점 분수없이 높아대는 인수를 재호는 어이없이 바라보았다.

《뭐 역사적인 인물이 따로 있습니까?》

마주 바라보는 눈빛이 제법 만만치 않았다.

《전 부장동지야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60년도까지 남조선에서 살다가 일본을 거쳐 조국에 귀국한 부장동지야말로 분단된 우리 조국을 랑쪽에서 다 체험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지요. 아무렴요.》

대꾸한대야 아무 소용이 없을뿐더러 자기 견해

는 이미 어쩔수 없이 확고하다는것을 보여주려는듯 그는 한손을 내리그으며 자신있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전 부장동지가 남조선사람들을 취재할 때마다 혹시 그들속에서 가까운 친척이나 동무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해서,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않기 위해 이렇게 따라다니는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부장동지가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늘 꿈에서만 그리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걱정, 그처럼 불러보고싶던 이름을 목청껏 웨치면서 서로 얼싸 부둥켜안은 역센 손길 그리고 이게 꿈이 아닌가해서 다시 쳐다보군하는 눈물에 젖은 간절한 눈빛... 과연 이런장면을 그대로 담은 사진을 무심하게 볼 사람이있을가요? 천마디만마디 말로도 형언할수 없는 이백천 환희의 장면을 말입니다. 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감격적인 장면을 포착하고야말겠단 말입니다. 기어이! 제목은 <상봉>이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저의... 아이구 미안합니다. 또 그 말이 튀어나와서. 사실 이건 아직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지만 부장동지한테만은 털어놓는겁니다.》

《?!》

재호는 새삼스런 눈길로 인수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포부를 안고있었다니! 놀라왔다. 아니 더없이 기쁘고 고마왔다. 두팔을 벌리고 인수를 힘껏 껴안아주고싶기까지 했다. 그런줄도 모르고 그를 소격하게 대했던 자기가 민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사실 인수가 야심을 품고 포착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야말로 바로 일구월심 자기가 바라고있는 천추의 소원이 아닌가! 정녕 그 한순간을 기다리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자기였다. 감격에 겨워 몸부림칠 그 꿈같은 상봉을 상상할 때마다 그는 저절로 온몸이 부르르 떨리곤 했다.

(그럼 진작 그렇다고 할 노릇이지.)

누구나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다른 사람의 념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란 자못 류다른것이다.

그때부터 재호는 인수를 친동생처럼 여기면서 집에 자주 청하기도 하고 청해서는 각가지 별식을 차려놓기도 했다. 그리고는 남조선에서 살던 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었는데 그때마다 인수는 취재대상에 대한 새로운 파악으로 해서 흥미를 가졌다면 재호는 재호대로 여태껏 그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귀중한 추억들을 품을 놓고 펼쳐보일수 있게 된것이 여간 즐겁지않았던것이다.

많은 애기들중에서도 인수가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영옥이에 대해서였다. 인수가 관심을 가졌다가보다 재호자체가 어릴적부터 앞뒤집에서 같이 자란 영옥이,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웠고 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잊혀지지 않는 영옥이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력점을 찍어가며 말했기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옥이가 부장동지한테 첫사랑이었다 그말이군요. 이해됩니다. 예.》

이젠 자기도 사랑이 어떤것이라는것쯤은 알고 있다는듯이 제법 고개까지 끄덕거리는 인수였으나 재호는 그 말을 탓하지 않았다. 이성에 대한 색다른 감정이라고는 별로 느끼지 못하던 철부지 시절이었지만 그 애뜻한 추억을 굳이 첫사랑이 아니라고 우기고싶지는 않았던것이다. 뉘라서 그런 시절이 없으면만 재호에게는 특별히 가슴속깊이 소중한게 새겨져있는 영옥이였던것이다.

《어쨌든 이젠 인수의 요구가 뭔가 하는걸 안이상 취재대상자로서 최선을 다할테니 걱정 말게. 그리구 미리 말해두지만 나한테 꼭 그런 순간이, 인수가 바라는 그 <상봉>의 순간이 있으리라는걸 확실해마지 않는다는거네. 알겠나? 그러니 부지런히 날 쫓아다니게.》

이번엔 반대로 자길 따라다니라고 장담해나선 재호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약속을 좀처럼 지킬수가 없었다. 워낙 쉽게 차례지지 않는 기획였던만큼 매번 기대는 컸고 기대가 컸던만치 실망 또한 여간 아니었다. 그것도 한두차례라면 몰라라 해를 넘기면서까지 반복되다니니 요즘에 와선 자연히 인수도 자기에 대한 기대가 소원해질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재호자신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참엔 그래도 남반부사람들이 오기만하면 제먼저 이름들을 알아가지고 와서는 그 명단을 펼쳐보이기도 하고 고향이 근방만 돼도 이 사람이 기억에 없느냐고 따져묻기도 했으나 요즘에 와선 그런 일도 없었다. 은근히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인수한테 왜 관심이 덜해지느냐고 탓할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안됐네 인수!》

자리를 고쳐앉은 재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말했다.

《나때문에 동무의 야심작이 늦어져서 말이네. 나로선 실상 열성을 다하고있네만 어디 혼자 힘으로 되여야말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숨씨로 변속을 하고난 인수는 뒤돌아보며 히죽 웃었다.

《대책을 세우느라고 했으니까요.》

《대책?》

《술직히 말해 이태동안 부장동지를 따라다녔지

만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취재대상을 부장동지가 아니라 남조선에서 오는 사람으로 바꾸었던말입니다. 말하자면 해방직후나 전쟁때 월남한 사람들이지요. 고향이 여기인 그런 사람을 찾는것이 선생님친지나 친구들을 기다리기보다 훨씬 상봉의 확률이 높을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이젠 인수가 자기를 취재대상에서까지 밀어놓는다고 생각하니 불쑥 노여움이 솟구쳤다. 그리고 그런 인수가 원망스러웠다. 이미부터 그런 눈치를 알고있은건 아니지만 정작 그한테서 그 말을 듣고보니 마치 사랑을 약속한 처녀한테서 버림을 받은것처럼 못내 서글프기도 했다.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해도 자기한테 그걸 감추어주기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아무말이나 그저 생각한대로 내뱉곤하는 인수가 밍살스럽기까지했다.

《아니 부장동지!》

후시경을 통해 재호의 표정을 지켜보던 인수는 그제야 자기의 실책이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서둘러 부언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은 부장동지란말입니다. 아무럼 부장동질 내놓고야 어떻게... 그렇다는걸 잊지 마십시오.》

저로서도 그 말이 뻔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것을 깨닫지 않을수 없었던지 그는 레의 버릇대로 손가락을 또 코잔등으로 가져갔다.

(너석! 코잔등은 왜 자꾸...)

괜히 그의 애꿎은 버릇에 화가 동한 재호는 인수의 울긋불긋한 한쪽 볼파구를 흘겨보았다.

(하긴 다른데야 굵기도 어려울테지. 하도 많이 돌아난 여드름이니까.)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인 재호는 다시 등반이에 기대며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월남했던 사람이라... 사실 그런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은가! 상봉으로 치면 그들이 훨씬 빠를지도 모르지. 벌써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참! 내가 살던 안망실에도 어머니를 따라 월남해온 친구가 하나 있었지. 전쟁전에 남에 온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했던가? 행상바구니를 인 어머니가 이마를 저마를 다니면서 남편을 수소문할때면 그 친구 늘 나무를 하거나 부엌에서 밥을 짓군했지. 꽤 드세기도 하던 녀석이더니.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그래 그래!)

동태! 그를 이렇게 불렀었다. 이름이 동태래서가 아니라 한쪽 눈알이 약간 두드러진데다가 붉기까지 해서 그렇게 불렀던것이다. 참엔 아이들이 노는데도 섞이질 않고 집안에만 불박혀있어서 놀림가마리가 된 동태였으나 차츰 지나면서부터

는 전혀 판판이었다. 얼마나 아귀센 녀석인지 점점 동네아이들을 제맘대로 휘여부리기 시작했다. 두마리의 늑대를 물어메친 사나운 세빠뜨가 과수원을 지키는줄 알면서도 자기는 울타리밖에 망을보고 다른 애들을 바자안으로 내모는가 하면 다 썩어가는 위태위태한 가지에 달려있는 홍시까지도 다른 애를 시켜 따오게 했다. 말을 잘 듣지 않을때면 대뜸 그 두루룩한 눈알을 번뜩이며 《너 죽어보간?》 하고 옥박아대곤했다.

이런 동태를 누구보다 못마땅해한것은 재호였다. 자기 말이라면 학교를 뛰꺼먹고 당장 참외밭을 습격하거나 가재잡이를 하던 친구들이 동태는 치만 살피면서 제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기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으리라고 여겼던 골목대장의 위치가 동태로 하여 위협당하게 된것이었다.

(어디보자.)

그러던 어느날 재호를 참을수 없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한창 딱지치기를 하다가 돌아보니 방금전까지 콩지머리를 달싹거리며 줄넘기를하던 영옥이가 마당복판에서 울고있기때문이었다.

재호는 언제나 영옥이의 철저한 보호자였다. 서로 처마를 맞대고있는 이웃사이라거나 학교에 가서도 나란히 같이 갔기때문만이 아니었다. 워낙 귀엽고 깜찍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보다는 너무나도 참하기만 해서 결핍하면 눈물부터 흘리곤 하는 영옥이를 동네에서는 물론 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작용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 보호에 습관이 된 영옥이는 영옥이대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말할것도 없고 어떤 색다른것이 생기기만 해도 꼭꼭 그것을 치마폭에 감추어가지고 와서는 재호를 찾곤했는데 그때면 재호는 그것을 아주 웅당한것으로 받아들이는것이였다.

《이기 뭐라는기교?》

《트롭프스야.》

《드로브스? 난 듣도 보도 처음이다. 묵어도 되는기가?》

한알을 입에 넣고 어금이에 힘을 주어 으드득하고 깨물면 금시 입안에서는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그런 향기롭고도 달콤한 맛이 가득히 퍼지곤했다. 나머지 알들을 입에 다 털어넣고 손바닥에 묻어있는 사탕가루까지 혀바닥으로 핥고나서는 늘 이렇게 말하곤하는것을 잊지 않는 재호였다.

《니 누가 때리모 내한테 말해라. 알았제? 내사힘이 세이까이.》

제판에는 고맙다는 인사 대신이었다. 그러면 영옥이는 그 사과꼭지같은 고개를 간당거리곤했

었다. 그런데 그 영옥이가 울고있는것이 아닌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재호는 곧 저쪽 난가리에 자빠들히 기대여있는 동태, 방금 영옥이한테서 빼앗은것이 틀림없는 고무줄을 한손에 칭칭 감아대고있는 동태를 보았던것이다. 다짜고짜 그 앞으로 다가선 재호는 대뜸 그의 멱살을 틀어잡았다.

《야 이새까, 그 고무줄 못주겠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호의 팔을 뿌리친 동태는 자기 얼굴을 재호코앞에 바싹 들이대며 소래기를 질렀다.

《못주잖다 시까!》

《정말이가?》

《당말이다!》

깃털을 세우고 잔뜩 버르는 닭새끼처럼 둘은 코와 코를 맞댄채 노려보기만했다. 이번엔 동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야! 이 고무줄이 너거가?》

《내기아이다. 영옥이이다. 그라이게 내기나 같은기다!》

《영옥이거가 왜 너거나 같은거가? 행!》

그렇지 않아도 별뚱시리 영옥이 편만 드는 재호가 동태에게는 더없이 꼴사나왔던것이다.

《영옥이가 뭐이가? 너네 동생이가? 너네 각시가?》

《뭐 각시?》

재호는 저도 모르게 영옥이쪽을 흘끔 돌아보았다. 두손을 모아쥐고 눈이 동그래서 이쪽을 지켜보고있는 영옥이였으나 그 모습이 왜서인지 어떤 용기를 돋구어주었던것이다.

《그래 각시라도 우짤래. 내 각시다 와 새까!》

재호의 이 대꾸에 그 불거진 눈이 더욱 휘둥그레진 동태는 갑자기 고개를 젓히고 《텍-거》 하고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다가 이것만은 도저히 참자코 있을수 없다는듯이 마당을 빙글빙글돌아가며 웨쳐대기 시작했다.

《어-허-각시각시 놀각시 노린내난다 똥! 각시각시 놀각시...》

정말 침을 뱉뱉 뱉으며 돌아가는 동태를 노려보고있던 재호는 형하니 달려가 다리를 걸어 메치려고 했다. 그러자 얼치락뒤치락 싸움이 붙었다. 그날 재호는 이마가 깨지고 동태는 코피가 터졌다.

며칠후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재호는 동무들과 함께 다리아래에서 미역을 감았다. 실컷 자맥질을 하고나서 강변에 나온 그는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나무가지우에 엮어놓았던 옷이 온데간데 없기때문이었다. 다른 애들 옷은 다 있는데 유독 자기 옷만 없는것이였다. 곧 동태의 작간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발가벗은 알몸으로는 어찌볼 도리가 없었다. 한데 벌써 아래도리만 대충 꿰찬 동태는 다른 애들과 함께 강우에 있는 다리란간에 붙어서 재호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서로마다 뭐라고 지껄어댔으나 그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여겼는지 동태가 아이들을 제지시켰다. 이윽고 두 손을 나팔처럼 만들어 입가에 붙인 동태가 먼저 선창을 뽑았다.

《재호 불- X은 말불-X! 시-작!》

그러자 모두가 똑같은 나팔주둥이가 되어 합창을 하는것이였다.

《재호 불 X은 말불X 바람이 불머는 흔들흔들!》

(아이고 조새끼 우째빨고)

급한대로 얼른 그쪽을 향해 손바닥안으로 주먹을 밀어넣으면서 《요거나 먹어라.》 하고 연방 감자를 먹여댄 재호는 옆에 있는 보리밭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밤송이같은 보리이삭이 허벅지며 엉치를 찢러대는통에 할수없이 고향사이에 었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납작 었드리었느라니 창황중에도 키익 웃음이 나왔다. 발가벗은채 숨을할딱거리며 었드리있는꼴이 저로서도 꼭 논판 벼포기사이에 네발을 뻗고있는 개구리같았기 때문이였다. 동태가 이꼴을 보지 못하는게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다.

이젠 어쩔수없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는수밖에. 하지만 어두워진단들 훌쩍 벗은채로야 어딜 나선단 말인가! 절끔 눈물이 빠져져나오려고 했다.

(보자. 동태새끼 가만두지 않을끼다!)

이렇게 열번 스무번도 더 맹세를 다지고있는데 자박자박 자갈밭은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누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장구로구나! 옷을 가주 오는기제.)

너무나도 반가운김에 경충 뛰쳐일어나던 재호는 저도 모르게 지라목을 하고 다시 주저앉지 않을수없었다. 글썽 그가 영옥이일줄이야...

그후부터 동네에서는 물론 학교에서까지 새로운 소문이 퍼졌다. 어허- 재호하고 영옥이하고 보리밭에서 어찌고저찌고...

《니 소문 들었어?》

어느날 울상이 된 영옥이가 찾아와 하는 말이였다.

《무슨 소문?》

《니하고 내하고 글씨...》

다음말은 잊지도 못하고 뒤로 뺨 돌아선 영옥이는 숨만 할딱거렸다.

《말해라. 니캉내캉 우째다는기가?》

《글씨 보리밭에서... 잔... 체했다고...》

《잔체?》

재호는 저절로 웃음이 킬킬 나왔다.

《우째다말이가. 니사 본래 내 각시아이가. 그러께에 잔체도 해야 되는기제.》

《뭘-야?》

갑자기 입술을 앙다문 영옥이가 와락 달려들어 팔이며 잔등을 사정없이 꼬집어대기 시작했다. 얄전하기만 하던 영옥이가 것처럼 영악스러울줄은 짐작도 못한다였다.

《아이고 아야!》

《말해, 내가 니 각시아?》

《아프다, 그만해라.》

《글씨 각시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동태로 해서 퍼진 소문도 소문이였지만 영옥이한테서까지 봉변을 당한 재호로서는 어떻게든 그만한 보복을 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그래서 궁리해낸것이 마을어귀에 있는 동태네 집앞을 오갈적마다 웨쳐대는 합창이였다.

(니가 합창을 했으께 나도 합창을 한다. 새끼!)

그것은 아이들이 흔히 덩불처럼 외우곤하는《잔내비밀구녕 새빨개》로 시작되는것인데 그것을《새빨간건 사과》로 잊지 않고《새빨간건 동태》,《동태는 이복놈》,《이복놈은 빨나고》,《빨난건 빨갱이》로 고쳐불렀던것이다. 이복사람들은 다 얼굴이 빨간데다가 빨까지 났다는 이남 당국의 악선전을 들은데서 기인되지만 그말을 할 때면 이복에서 온 동태가 제일 참지 못해한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정말 그 합창이 터지기만 하면 동태는 두마디안팎에 부지쟁이나 장작개비, 손에 탁치는대로 거머쥐고 달려나오곤했다. 그럴수록 재호는 더욱 목청을 돋구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리 웨쳐대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호기심이 동한 재호는 아이들과 함께 살금살금 그 집 문앞으로 다가갔다. 잠자코 방문에 귀를 기울이고있는데 뜻밖에도 훌쩍거리는 동태와 그를 달래는 동태 어머니의 목소리가 새나왔던것이다.

《일없다, 일없어. 그런 소리야 백번 들은들 뭘라니? 난 그저 네 아버지질 찾기만 하든 빨이 백개라도 좋갔다. 천개라도 좋갔어. 기린데 네 아바진 어드메 있기에... 살아있기나 한지 원... 어이휴-하늘도 무심하지...》

동태 어머니는 흐느끼고있었던것이다.

그때부터 재호는 더는 그《잔내비》를 외우지 않았다. 아니 외울수가 없었던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는 몰랐어도 결코 함부로 외워서 안될말이라는것만은 깨달았던것이다. 그는 그것을 이듬해 동태네 모자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 다른데로 이사를 간 다음 더욱 똑똑히 느꼈던것이다. 마치 자기때문에 그들이 마을을 떠난것 같아 못내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수가 없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일만은 생생하게 기억되는지도 몰랐다.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찾았을까? 그 동태도 살아있으면 벌써 마흔이 넘었겠구나!)

새삼스레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윽고 부두에 이르렀다.

어느새 부두에는 남조선어민들을 바래러 나온 수많은 환송객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서있었다. 《대양호》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어선 한척이 꿈무니로 뽕뽕 흰증기를 뿜으며 잔교에 붙어있는데 어민들은 승선안내원이 호명하는데 따라 한사람씩 부두에서 걸어와 그 배에 오르고있었다.

한생을 파도에 부대끼여온듯한 백발을 날리는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금방 중학교나 졸업했을 애티나는 청년의 모습도 보였다. 늙은이건 젊은이건 배에 오른 선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손에 쥔 꼬깃꼬깃한 수건으로 눈굽을 짖어대고있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재호는 저절로 눈굽이 저려들었다. 그들에 대한 남다른 감정도 감정이었지만 그들이 타고있는 배를 보느라니 은연중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던 때의 일이 떠올라서였다. 역시 리별이란 언제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송영태 동포!》

재호가 잔교로 다가서던 바로 그때 돋보기를 코마루에 걸친 늙은 승선안내원이 호명한 이름이었다.

얼른 부두쪽으로 돌아선 그는 긴장한 눈길로 어부들을 주시했다. 그러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재호는 몇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는 선원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같이 지켜보고있는 사람, 어떤 늙은이를 부둥켜안은채 흐느끼고있는 사람이 모르긴해도 송영태가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들었다. 그의 이런 짐작을 옆에 있는 승선안내원이 확인해주었다.

《저 사람이 송영태지요. 글썄 이번에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겠소! 40년만에 말이웨다. 마주서있는 저 평감이 바로 그의 아버지라우.》

(아버지? 그럼 저 사람도?)

문득 월남한 사람을 취재대상으로 하겠다던 인수말이 생각난 재호는 곧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웬걸 인수는 어느새 사진기를 들고 서로 껴안고있는 두사람의 주변을 이쪽저쪽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역시 야심작에 대한 기회만은 놓치지 않고있는 인수였다.

《아바이! 저 사람이 어디서 산답니까? 송영태 말입니다.》

기자로서 응당 해야 할 취재긴 하지만 그걸 누굴통해 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미처 따질경황이 아니었던 재호는 승선안내원이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는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배의 소속이 제주도라니까 모두들 거기서 살았디요.》

(제주도?)

재호는 무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주도라면 단 한번도 가보지 못한곳일뿐더러 알 사람이 있을 리만무하기때문이었다.

(제주도에 있는 송영태?)

저절로 고개가 기웃거려졌다.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가가 뭐라고 이르기도 하고 팔이며 어깨를 붙잡았을 때에야 그는 겨우 로인으로부터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그의 어깨는 더 세차게 들먹거렸다. 두손에 얼굴을 묻은채 흐느끼던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눈물을 말끔히 씻은다음 조용히 그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정히 땅을 짚으면서 천천히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이마가 땅에 닿았으나 그는 일어날념을 잃고 그대로 엎드려있었다. 아니 엎드린채 온몸을 떨고있었다. 언제 다시 만날지모를 아버지, 아니 이제 필경 다시는 만나지 못할 아버지에게 남기는 마지막인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재호는 절로 목이 짹 메여올랐다. 옆에서 그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얼굴을 싸쥐고 돌아섰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이제 한시바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는듯, 마치 누가 붙잡는것을 뿌리치기라도 하는것처럼 다급한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왔다. 잔교에 다가선 그가 승선안내원의 손을 잡으면서 얼핏 고개를 든 바로 그때였다. 재호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온몸이 갑자기 전기에 감전되기라도 한것 같았다. 혹시 잘못보지나 않았나해서 다시보았으나 틀림없었다. 눈물에 젖어있긴 했지만 분명 그의 한쪽눈이 두드러져있었던것이다.

(아-니?)

방금전까지 움해있던 동태에 대한 생각이 눈앞에 환각으로 나타난게 아닌가싶어 아연해졌다. 그러나 환각은 아니였다.

(설마?)

다시보니 역시 환각이 틀림없었다. 작달막한 키에 짙 버그러진 어깨, 바다바람에 그슬린 검스레한 살갗, 더우기 다부진 체격에는 어울리지도 않게 장발을 한 머리는 동태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도 판다른 사람이 아닐수 없어서였다. 확실히 눈의 표적을 내놓고는 어릴 때 동태의 모습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다. 하지만 재호는 한순간도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가

숨은 점점 더 활랑거리기만 했다.

(아니, 동태일수 있다. 저 눈 그리고 전쟁때 월남한 사람치고는 너무도 젊은나이!)

아버지를 찾아 월남했던 동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사실은 도저히 그가 동태일수 없다는것을 증명하고있었지만 재호는 그런것을 따질여유가 없었다.

리성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그를 동태로 믿을만한 근거가 못된다고 우겨대는것이였으나 감정은 한사코 이런 반박을 물리치고 동태일수 있다, 아니 동태다 하고 속삭이는것이였다. 어떤 확신에서보다도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다시는 만회할수없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수 있다는 다급함에 쫓겨 재호는 배와 련결된 계단을 밟으려는 그에게 엉겁결에 부르짖었다.

《동태!》

한참만에야 그것도 천천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멍하니 마주보기만했다.

《절... 찾으셨는가요?》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에서 재호는 대뜸 실망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새삼스레 동태가 아니라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였다. 언젠가 대극장휴게실에서 있었던 일이 피륙 되살아나면서 자기가 또하나의 망측한 실수를 저질렀다는것을 통감했다.

《이거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착각을 했나보군요. 하긴 뭐 이젠 30년전일이니까요. 실은 혹시 어릴 때 안망실에서 살던 동무가 아닌가 해서...》

마주 바라보는 그의 두눈에 일순 가늘게 찌푸러지는것 같았다.

《뭐라구요?》

한걸음 가까이 다가선 그는 유심히 재호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안망실? 그럼 거기서도 안망실에서 사셨단말입니까?》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는듯이 고개를 기웃거리는데 그였으나 재호는 그의 이 말에 다시금 후닥닥 놀랐다. 재차 심장이 박자를 가하기 시작했다.

《살구말구요. 그 안망실에서 살던 재호입니다. 류재호요!》

《재호?》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놀란, 기겁한 표정으로 변한 영태였다. 그러나 그만큼 어조는 더 큰 의혹에 젖어있었다.

《안망실에서 살던 재호야 일본으로...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갔는데...》

《바로 일본에 갔던 그 재호가 나란말이요. 나.》

재호는 벌써 제목소리가 아니였다.

《?!》

영태는 갑자기 무엇에 쫓리우기라도 한것처럼 뒤로 주춤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당장 꺾뚫기라도하려는듯한 그런 시선으로 재호를 노려보는 것이였다.

《아-니 그럼 이게?》

《그래 동태가 맞지? 안망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동태가.》

《맞네. 그 동태네. 영태라는 이름대신 늘 동태, 생동태로 불리우던 그 영텔세!》

순간 재호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생동태라는 말을 듣자 여태껏 안개속에 싸여있던 그의 이름, 송영태라는 이름이 불현듯 뚜렷한 표상으로 되살아났기때문이였다. 그렇지! 생동태!

《오- 영태!》

《재호!》

두사람은 동시에 한덩어리가 되였다.

《어디 좀 보세. 어디...》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지 재호의 어깨를 그러쥔 영태는 새삼스레 재호를 이모저모 뜯어보았는데 그것은 재호도 마찬가지였다. 이때까지는 그가 그토록 동태이기를 바랐으나 동태가 틀림없다는것을안 이제와서는 혹시 그가 어릴적 그 동태가 아니지 않나 하고 못내 의심스럽기만 했다.

비로소 재호는 영태의 모습에서 어릴 때의 흔적,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는 희미한것에 지나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런점들을 발견해낼수가 있었다. 오래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을 갑자기 대할 때면 처음에는 헤여져있었던 사이에 생긴 외모의 변화로하여 좀처럼 알아볼수 없다가도 차츰 그 얼굴은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고유한 표정이 되살아나는 모양이였다.

《이게 얼마만인가, 영? 일본으로 갔다더니 언제 이리루 왔나?》

《이젠 20년이 돼오네.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가긴 했지만 그때 벌써 아버지가 귀국을 하시기 않았겠나. 그래서 나도...》

《그래? 그것 참! 어찌면 자넨 나와 그리두 비슷한가! 응? 나 역시 얼마나 아버지를 찾아다녔게. 어머니와 함께 말이네. 안망실을 떠난후로 충청도, 전라도를 다 훑었다네. 그런데 그렇게도 찾던 아버지가 글썽 여기에 와 계시잖이야.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 남으로 갈 때 아버진 우릴 찾아

다시 북으로 들어오셨단말이네.》

(그랬겠구나! 그런줄도 모르고...)

불쑥 머리에 행상을 이고 이 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남편을 수소문하던 영태 어머니의 가공한 정상이 떠올랐다.

《그러니 어머니 아직도...?》

《그렇네! 아직도 아버지를 찾아다니시네. 내가 아무리 만류해도 아버질 찾기전엔 눈을 감을수 없다시면서 말이네. 그래서 작년에 우린 또 제주도에게까지 가지 않았잖나. 마지막땅인셈이지. 난 제주도에서도 아버질 찾지 못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가하고 못내 걱정스러웠네. 생각해보게. 이 남땅에 온첫날부터 아버지를 찾아다니 어머니가 아닌가! 이젠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평안도 룡강에서 온 송수진씨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생선수레를 끌며 골목을 누비고있다네. 그런 어머니가 제주도에게까지 아버지가 없다는것을 알면...

재호! 난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 사실을 어머니한테 알리기가 무섭네. 어떻게 알린단말인가! 그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 아마... 아버지를 찾아다닐땐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어쩌나하고 불안했는데 정작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만나고보니 이젠 도리어... 참! 살아있다는게 이렇게 무서운 일로 될줄이야...》

영태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그의 두눈에 솟구쳐오른 눈물은 점점 커다란 방울이 되더니 마침내 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런 영태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 재호는 얼른 말머리를 돌렸다.

《그래 거기 친구들은 잘 있나? 안망실친구들말이네.》

무슨 말이던 해야했기에 꺼낸 말이었으나 하고보니 망랑했다. 아버지를 찾아 온 남녘땅을 돌아다니던 영태가 안망실에 다시 갈리 만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언젠가 대구에 불일이 있어 갔다가 얼핏 한번 들렀었네.》

손수건으로 눈굽을 짖어대던 영태는 코멘소리로 대꾸했다.

《선환일 만났는데... 선환이 알지? 짱구말이네. 농사를 짓느라고 이젠 령감이 다 됐어. 등이굽어든데다 이발까지 다 빠진게...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더군. 물어보니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거야. 서울로, 부산으로 참!》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영태는 곧 재호의 팔을

거머쥐며 똑바로 마주쳐다보았다.

《생각나나? 영옥이! 왜 어릴 때... 그래그래 자네 <각시>말이네.》

그의 입에서 영옥이 말이 나오자 재호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하고 흥벽을 쳤다. 것처럼 애타게 그리웁던 영옥이 소식이었으나 막상 그에 대한 말을 듣게 되자 어찌선지 반갑다기보다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잘 믿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영옥이에 대한 말을 그토록 수월하게 해대는 영태가 어떤 불가사의한 존재로만 여겨지는것이였다.

《인천에서 만났었네. 우리 배가 인천회사에 소속돼있을 때였으니까 그것도 벌써 5년전일세.》

(인천?)

재호는 여태까지 영옥이가 다른곳에서 살고있다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대학을 다니거나 시집을 가게 되면 의례히 다른고장에서 살게마련 이런만 왜서인지 영옥이만은 늘 그 안망실, 가을이면 하얀 박꽃이 초봄처럼 피어나는 그 초가집에서만 살것으로 여겼던것이다.

《만나자마자 자네애길 하데. 아마 자네만은 잊혀지지 않는 모양이야.》

《인천에서 무얼하게? 이젠 아이도 두셋은 될걸?》

짐짓 혼연한 표정을 지어보인 재호였으나 그런 재호를 바라보던 영태는 왜서인지 곧 시선을 아래로 깔았다.

《영옥인 그때까지 혼자였네. 아니 지금도 혼잘거네.》

《혼자라니 그건 왜?》

다시 재호를 여겨보는 영태의 기색은 그에 대한 애길 해야할지 아니면 말아야할지 망설이는 눈치가 분명했다. 그러나 숨을 한껏 들이그으며 고개를 끄덕거리는것으로 보아서 얘기하기로 결심한 모양이였다.

《고등학교 3학년때라던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부득불 늙은어머님과 셋이나 되는 동생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안될 처지가 됐다는거야. 그래서 할수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지. 사도공, 세탁부, 지어는련관공장에서까지 일했지만 그제 안정된 직업일수는 없었다는 거네. 마침 그때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네. 자긴 비록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학공불시킬 결심이였다네. 그런데 매달남부금을 무슨수로 충당하겠나. 그래서 생각다못해 시작한 일이

…》

재호는 점점 숨이 가빠지면서 목이 타드는것을 느꼈다.

《결국 그는 동생을 위해, 식구들을 위해 자길 희생시킬 결심을 한거네. 가족들도 모르게말이네. 그길밖에 판도리가 없었다는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가 있길 하나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길 하나 그래서 결국…》

난 아무말도 할수 없었네. 그의 딱한 사정도 사정이었지만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기가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말이네. 그때 내가 놀란게 뭘지 아나?

그런 애길하면서도 영옥이가 우는게 아니라 웃고있는것이였네. 서글픈 미소긴 했지만 직업이 갖다준 그런 미소가 얼굴에 떠있는게 아니겠나. 어릴 때 것처럼 마음이 예려 잘 울던 영옥이가 이젠 이런 녀자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빠오르던 숨이 일시에 목구멍을 꽉 메우는 바람에 재호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앞에 보이던 모든것이 대번에 빙그르르 어지러이 맴돌이치는것이였다. 그 귀여운 눈매로 말뚱말뚱 쳐다보곤하던 영옥이, 그러다가 알았다는듯이 고개를 까닥거리고는 뽀르르 달려가곤하던 영옥이가 그렇게 되다니? 저절로 신음이 터져나왔다.

《뚜-》

출발을 재촉하는 《대양호》의 고동소리였다.

그제야 재호는 이미 배에 올라있는 어민들은 물론 승선안내원이며 부두에 서있는 환송객들까지도 자기들 두사람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이렇게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하다니? 재호!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 북에 있던 내가 남에서 살고 남에 있던 자네가 북에 있으면서도 서로 오가지도 못하니말일세. 그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되뇌이는 영태의 목소리는 한탄이라기보다 차라리 그 어떤 부르짖음이였다. 아니 가슴을 굽어내는 피타는 절규였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아니라는것을, 바로 우리 나라를 둘로 토막친 외세와 그 세력에 아부하는 분렬주의자들때문이라는것을 말해주고싶었으나 재호는 가슴이 미여져올라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영태는 곧 얼굴을 들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두눈을 번쩍이며 재호를 쳐다보던 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난 믿네. 믿는단말일세. 우린 이제더는 갈라져서 못사네. 통일은 온 이남땅의 민심일세. 민심은 곧 천심이라지 않나! 서로 만남이,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걸 믿네. 안그런가? 부디 우리 그날을… 재호!》

와락 재호를 그러안은 영태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재호 역시 이때껏 애써 참아오던 눈물이 물목이 터진듯 마구 쏟아져나왔다. 통곡이라도 하고싶었다. 아니 가슴을 치며 마구 몸부림이라도 치고싶었다.

《암… 그렇지 않구! 곧 다시 만나구말구…》

배전에 나가 영태의 손을 쥐고있을 때는 물론 손을 흔들며 목메인 소리를 웨칠 때까지도 지어는 영태를 실은 《대양호》가 웅기중기 솟아있는 기선들사이를 빠져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도 재호는 제정신이 아니였다. 마치 자기가 어떤 꿈을, 그것도 어떤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있는것만 같았다. 사실 악몽이 아니고 뭐란말인가! 아니 악몽인들 이런 악몽이 어데 있단말인가! 설사 악몽이라해도 이걸 너무나도 모질고 잔인한 꿈이 아닐수없었다.

영태 아버지를 만나 어릴 때 영태와 함께 지내던 일이며 남편을 찾아헤매던 영태 어머니에 대한 애기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길 영태로 여겨달라면서 자주 집으로 찾아갈것을 약속하고 헤어진 다음 차에 올랐을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모든것이 사실로 믿어지질 않았다. 이걸 어떻게 사실로 믿을수 있단말인가! 사실이래면 이걸 또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무한 사실이 아닐수 없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사실이라기엔 너무나도 허황찬 현실, 이 비정한 현실이 바로 오늘의 북과 남이라는 생각이 들자 재호는 새삼스레 가슴이 터지는것 같았다.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가고 부르짖던 영태의 그 애통한 절규가 터진 가슴을 더욱 갈기갈기 찢어대는것이였다.

정녕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남편이 북에 있다는것도 모르고 온 이남땅을 다 찾아헤매야 하는 안해, 살아있는 아버지런만 그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리기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아들, 그처럼 순진하던 영옥이가 밤녀인이 되여 애소를 머금은채 거리를 헤매고있다는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어야만 하는 이 현실…

과연 내가 바라던것이 이런것이였단말인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한이 없을것 같던 그 천추의 소원이 이토록 가슴쓰린것이란말인가!

그처럼 생각만해도 저절로 가슴이 떨리곤하던 그 꿈만같은 순간이 이다지도 비통한것이란말인가!

들썩하고 몸이 들추었을 때에야 재호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승용차는 어느새 항구도시를 벗어나 대동강을 끼고 달리고있었다. 9월의 미풍에 잔주름이 곧게 잡혀있는 강수면이었으나 모래를 실어나르는 수송선한척이 강북판에서 그 일매진 주름을 우악스레 찢어내고있었다.

차를 물고있는 인수는 줄곧 침묵이었다. 그 역시 부두에서 받은 충격으로 하여 무슨 말을 꺼내기에는 마음이 착잡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이처럼 고대해오던 기회가 차례진것만큼 그 기분만은 각별하리라 여겨 재호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졌다.

《그래 이젠 소원이 이루어졌나? <상봉>말이네.》

아무 대꾸도 없던 인수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사실 전 오늘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처럼 바라던 기회가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차례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침엔 몸이 떨리고 손이 떨려 촬영을 할수가 있어야지요. 그게 좀 진정되는가 했는데 이번엔 또 눈물이 나와 초점을 맞출수가 없는게 아닙니까. 참... 그런 사정도 사정이지만 전 어쨌든 오늘 제가 그처럼 노리던 순간을 제대로찍지 못했습니다.》

《찍지 못하다니?》

재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찍지 못했다기보다 찍을수가 없었지요. 글썽제가 노리던 그런 장면이 차례져야 찍을게 아닙니까. 술한 장면을 찍긴 했지만 그걸 다 색깔이 어두운것들뿐이란말입니다. 부장동지!》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만은 더없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려는듯 인수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전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의 상봉이 어떤것인가하는걸 알았습니다. 직접 겪어보고서야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상봉은 제가 바라던 그런 감격이나 기쁨은 고사하고 도리어 슬픔이고 고통이라는것입니다. 설사 만났다해도 만난 기쁨

보다 몇배 더한 생리별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으면 안되는 상봉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원이 새로운 한으로 맺히는 그런 상봉이지요. 결국 제가 바라는 그런 상봉이 아니었다는걸 똑똑히 알았던말입니다.》

사실 그런 상봉이 아니고 뭐란말인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바라던 원이 도리어 한으로 맺히는... 그래서 아직은 있을수 없는 상봉...

하지만 재호는 왜서인지 그렇게만 여기고싶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만 여길수가 없었던것이다. 오늘의 상봉이 비록 피로운것이긴 했지만 그 피로움속에서 뭔가 새로운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이 뭔지 저로서도 적어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슬픔이나 고통만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그 어떤 더없이 강렬하고도 절박한것이 있었다.

문득 남편을 찾아 헤매는 영태 어머니며 영옥이의 애처로운 모습이 떠오르는가 하면 자기를 부둥켜안고 웨치던 영태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순간 그는 어떤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것은 여태까지는 감각으로만 느끼던것을 두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심장으로 받아안게 될때 체험하게 되는 그런 비상한 충격이었다.

《인수!》

재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리고있었다.

《나 역시 오늘의 상봉이 피로웠네. 그렇지만 난 바로 그 피로움속에서 래일에 대한 확신, 뚜렷한 확신을 가지게 됐네. 상처의 고통은 종치를 도려낼때가 제일 심한 법이 아닌가! 새 생명의 탄생 역시 가장 모진 진통을 거치기마련이고. 난 오늘의 상봉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는걸 똑똑히 깨달았네. 삼천리강산이 하나로 되고 외세가 물러나고 분렬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네! 통일이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이젠 바로 눈앞에 다가섰단말이네.》

내 눈에는 보이네. 북남으로 자유로이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말이네. 통일의 광장에 우리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7천만 겨레의 감격에 넘친 모습이말이네!》

이렇게 웨치는 재호의 두눈에는 그날의 환희와 열광이 한껏 너울치고있었다.

통일조국 만만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집계작(남조선)

조국분단 44년
반미항쟁 44년
조국의 하늘은 끝없이 푸르려
푸르고 슬픈 조국의 산아
해빛조차 채찍되어 다가서고
한포기 풀까지도 창끝되어 일어나
군화발아래 짓이겨진
한반도의 허리를 그려안고
박차고 일어서고 뿌리치고 일어나서
가자 다같이 민족해방전선으로!

이 땅의 원통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구천을 헤매며 창문을 두드리는데
잠을 자는가 벗이여
잇있는가 동지여
한반도의 저고리를, 치마를 피로 물들인
제국주의의 총검을
어머니의 비명을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듯한 통곡을
민중의 타오르는 분노를

그렇다, 우리의 투쟁이 어찌 동란이라
우리 조국의 강을
아버지의 땀방울이 스민 대지를
소녀의 살결같이 새하얀 옷을
꽃나물같은 목숨일지라도

어찌 가만 앉아 네놈들에게 짓밟히랴
형제여, 동포여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의 총성
살륙의 포성
아직도 이 땅
어두운 착취와 길다란 쇠사슬은 남아
이 땅을 짓누르고있으나
5월광주의 진달래의 환성
각지를 휩쓴 6월항쟁
구사대, 요시찰명단, 농산물가 충격에
대항한 노동자, 농민들

우리의 눈물겨운 투쟁
투쟁을 멈출수는 없다
남과 북은 하나의 혈맥
성조기가 펄럭이는 한 통일은 안된다
핵무기를 숨겨두고는 평화통일 안된다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투쟁속에서
이 산하의 암흑을 밀어내고
한나에 솟구칠 불기둥으로
민중이 세워야 할 기치
아, 통일조국
통일조국 만만세